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사례집

함께 그리는 양천 이야기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사례집

함께 그리는 양천 이야기

차례

발간사 4

양천마을 이야기

마을과 만나다 8

이웃만들기 10

시니어마을살이 104

양천은 마을로, 마을은 양천으로 108

우리마을지원사업 110

마을길라잡이 192

우리가 마을 해결사 196

마을해결책 198

주민모임연합사업 210

모의주민자치회 214

마을을 만들다 220

생생마을터 222

골목아고라 242

들樂날樂 256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의 이모저모

공모사업? 그냥 하자! 270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설명회 271

이웃만들기 제안자 참여심사 272

중간정산 워크숍-정산, 어렵지 않아요! 273

마을을 즐겁게, 자치를 새롭게 275

마을아카데미 276

마을자치아카데미 279

교류와 협력을 넘어 실천으로-선진지 탐방 285

대전시 유성구 품앗이마을 286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꿈마을 288

안산시 상록구 사동 290

서울시 성동구 새활용플라자 292

순천시(민관합동) 294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296

성남시 논골마을 300

점은 선으로, 선은 면으로 306

양천구 마을공동체 권역별 네트워크파티 307

양천구 마을공동체 주제별 네트워크파티 311

주민과 함께 마을 속으로 315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한마당 316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320

마을 느티나무들의 뭉클 릴레이

1. 마을사업지기 326

2. 마을지원활동가 331

3. 마을기록지원단 332

4. 주민협치과 마을공동체팀 334

5.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335



발간사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의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는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비행기, 기차, 도보 등 각종 수단이 제시됐지만 최종 선정된 답변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적인 정답은 아닐지라도 무릎을 치게 하는 지혜로운 답변이 분명합니다.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에서도 동행이 발휘하는 큰 힘을 발견할 수 있지요.

굳이 먼 곳에서 찾지 않더라도 저는 우리 양천구 마을공동체를 보며 함께 가는 길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발견하곤 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마을공동체 속에서 함께한 이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물론 어렵고 힘들었던 점까지 솔직하게 엮은 ‘함께 그리는 양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음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의 모임이 유지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회복을 돕고, 주민이 꿈꾸는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토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 왔습니다.

2019년에도 양천구 마을공동체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장의 족적을 남기며 발전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을활동에 참여했고, 다채로운 교육과 우수 지역 탐방을 통해 공동체의 역량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참여도 늘어나 양천구 마을공동체는 명실공히 ‘함께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신월2동의 ‘함께 만드는 우리 골목’은 삭막한 콘크리트 주차장을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함께하는 훈훈한 공간으로 변모시킨 골목밥상, 동네 어르신과 함께하는 게릴라콘서트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로 성장해 얼마 전 제2회 한겨레-SH 행복동지이야기공모전에서 마을공동체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라서 행복한 양천’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신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모든 주민 모임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마을로 성장을 거듭해 나가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양천구 마을공동체! 함께여서 더 설레고 행복합니다.

2019년 12월

양천구청장 김수영



양천마을 이야기



마을과 만나다

양천은 마을로, 마을은 양천으로

우리가 마을 해결사

마을을 만들다





마을과 만나다

이웃만들기/시니어마을살이

이웃만들기

음식나누기! 이웃더하기!/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바른 문화 구축하기/내 이웃도 즐겁게 하는 맛난 세상/새싹이 싹쑥/
아빠와 함께 세상 배우기/엄마 놀아 줘!/퓨전 NEW 영양학과/다함께 건강하자! 목5동/
엄마들과 아이들의 '놀이'를 통한 좋은 이웃만들기/알콩달콩 세대공감 소통/
옥상 플랜트를 활용한 도시농부체험 및 수확을 나눔사업/신월 실버 스마일 오케스트라/마음모아 뜨개나눔/
신원중학교와 함께하는 9988 청춘만세/이리와~ 알려줄게!!!/친환경제품 만들기를 통한 환경의식 개선사업/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마을 만들기/소통과 화합 '한마음 축제'/나와 너, 우리의 힘/몸과 마음이 건강한 나로 서기/
코디얼과 여러 가지 수제과일청 만들기/북(BOOK)치고 장구(場口)치고/불어라~행복바람! 바람개비 동산 만들기/
도지나(도란도란 지지고 나누자)/푸른마을 핵인싸/스트레스 날려 봐/선조들의 멋과 맛 '손맛' 품은 고추장 만들기/
기쁘지 아니한家/행복 플러스

시니어마을살이

초화 마을 만드는 시니어



음식나누기! 이웃더하기!

- 단체명/모임명 우리동네 반찬나눔이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요리조리 미팅
 2. 고시원 음식나누기
 3. 독거노인 음식나누기
- 주 활동지역 목1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우리동네 반찬나눔이’는 그저 평범하게 살면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주부들의 모임이다. 마을공동체란 의미도 모른 상태에서, 주부 9단의 특기를 살려 음식을 만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다.

시장 조사를 하고, 보다 더 싸고 좋은 물건을 골라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다 보니, 고생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돌아왔다. 또한 회원들 간의 친목도 더 돈독해졌다. 사전 조사를 할 때 고시원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 집밥을 먹고 싶어 해 그 분위기에 맞게 하려고 노력도 했다.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란.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이므로,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나에게 행복 플러스가 돌아왔다.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 드린다.



음식나누기! 이웃더하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바른 문화 구축하기

- 단체명/모임명 달려라~ 똥강아지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안양천 주변을 산책하며, 바른 문화 캠페인하기
 2. 강아지 똥주머니 만들어서 나누기
 3. 반려동물들의 안전한 먹거리 나누기
- 주 활동지역 목동 안양천 주변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안양천 일대로 강아지 산책을 다니며 자연스러운 친목이 형성됐다. 거의 매일 마주치다 보니 아이들 이름, 성격, 특징 등을 알게 됐다. 아픈 아이의 증상을 듣고 선배들의 노하우나 병원 등도 공유하고 집을 비울 때는 서로 돌봐 주기도 하고 사이좋게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3~4세 정도의 어린이가 썩썩카를 타고 있는데 강아지가 짖으며 따라갔다. 그러자 아이가 놀랐다며 아이의 엄마가 견주에게 강아지를 죽여 버린다고 화를 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러한 상황은 서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자각이 들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어색하게 그룹이 나뉘고 불편했던 사람들이 남녀노소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또한 애견인들도 아이의 부모님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마을이 되었다.

작지만 소소하게 변화되는 모습에 가슴이 뿌듯해 어깨를 으쓱 올리며 입꼬리도 올려 본다.



안양천 강아지 친구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바른 문화 구축하기-에너지공동체 캠페인

기록자 채형원

일시 2019년 9월 21일(토) 15:00-17:00

장소 안양천 피크닉장

참석자 이선화 제안자 외 30여 명



이번 주말은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쌀쌀하게 부는 날이었다.

멀리 목동현대아파트가 보이는 안양천생태공원 옆 피크닉장에서 강아지를 끌고 나온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바른 문화 구축하기' 멤버들이 모임을 했다.

지난번 모임에서 만든 LED랜턴을 나눠 주며 달동 에너지공동체 캠페인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애견모임이기 때문에 에코마일리지 홍보전단과 함께 강아지들을 위한 배변수집봉투를 기념품으로 나눠 주며 에너지절약 홍보를 했다. 옆에서는 친환경수세미도 구입해 와서 나눠 주었다.

나들이, 몽치, 꼬미, 하루 등 달려라~ 똥강아지들 얼굴이 그려진 배너형 입간판을 세워놓고 있으니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다. 무슨 행사냐며 질문도 했고, 에너지절약과 반려인의 바른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인도 하고 갔다.

가면서 한마디를 했다. "맞아, 요즘 병들면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뻐 땀 키우다가 늙거나 병들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또한 이제 가정마다 한 마리씩 키우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인데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병원비를 낮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그 사람도 강아지를 키우는 터라 반려문화를 이해할 것이다.

넓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간만에 자연을 만끽하는 아이들. 집 안에서나 산책길에 목줄을 하고 다니다가, 이곳에서 잠시 풀어 놓으니 잔디밭을 신나게 뛰어다닐 수밖에. 덩달아 견주들도 함께 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을 던져 주워 오기도 하고 오랜만에 아는 친구들을 만나서인지 서로 짚으며 반기기도 하고 어떤 강아지는 능름하게 앉아서 다른 강아지들 노는 걸 바

라보기도 했다.

그런데 강아지가 수십 마리 뛰어다니니 누군가 신고를 했나 보다. 분명 비반려인일 것이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반려인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서로 이해하고 공존할 줄 알아야 바른 문화가 구축될 것이다. 경찰이 와서 지켜보고 있으니 아이들 운동시간은 이걸로 끝.

다시 목줄을 하고 강아지들 간식과 함께 교육시간.

간식을 먹으려고 출렁거리며 재촉하지만 대표 제안자인 이선화 씨는 "앉아"라는 말을 잘 듣고 암전히 앉아 있는 강아지들에게 간식을 한입 넣어 주었다. 옆에서 보던 강아지들도 따라서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재롱을 떨어 간식을 한입 먹곤 했다.

그런데 옆 유모차 위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검은 강아지 로꼬를 발견하고 왜 뛰어놀지 않는지 물었더니, 유기견인데 사고로 시력을 잃어 눈이 보이지 않는 강아지라고 했다. 그래서 뛰어놀지 못하고 소리로 반응을 하니 시끄러운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도 강아지도 반려인이 되면 정으로 사는 건가 보다. 아파도 가족이고 늙어도 한 식구이니 말이다.

다시 한번 에코마일리지 전단과 기념품을 나눠 주며 에너지절약 홍보를 했다.

그동안 몇몇은 강아지들이 돌아다니며 흘린(?) 것들을 배변봉투에 주워 넣었다. 그때그때 수거를 하지만 놓친 것도 있고, 이곳을 깨끗이 하고 간다는 의미로 열심히 청소를 했다.



내 이웃도 즐겁게 하는 맛난 세상

- 단체명/모임명 맛난 세상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외부지원금이 끊긴 효성아파트 노인들을 위한 식사 대접
2. 할머니들의 이야기 들어주기
- 주 활동지역 효성아파트 경로당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내 이웃도 즐겁게 하는 맛난 세상’은 효성아파트의 내부문제라 할머니들이 크고 넓은 경로당에서 조그만 3평 정도의 방으로 내쫓기고 보조금-주민센터 관리비 기타 외부지원금-이 완전히 끊겨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였다. 우리에게 대한 할머니들의 호응이 좋았고 모두 하나가 되는 즐거운 교제였다.

섬기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받는 사람들도 길에서 만나면 늘 감사해하며 손을 잡고 고마워 했다. 사업은 끝났지만 간식을 들고 찾아가서 인사하며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자 했다.

“자기들이 해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한 할머니는 직접 만든 음식을 사업 후에 우리에게 나눠 주며 격려해 줬고, 오가는 격려가 큰 힘이 됐다.

한 가지 오해는 우리들이 아파트 관리비에서 할머니들을 섬긴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왜 노인들이 있는 가정에서 섬기지 아파트 관리비에서 섬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불평이 나왔다. 매달 40만 원의 보조금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쓴다는 슬픈 소식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 선의의 일도 이런 살벌한 세상에서는 오해를 살 수 있구나 하며 심적으로 안타까웠다.



새싹이 싹싹

- 단체명/모임명 목2동 싹싹이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어울림 센터를 이용하는 유아, 초등 저학년과 함께 꽃나무교실을 운영하여 가족 간, 주민 간 친목도모
- 주 활동지역 목2동 어울림센터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목2동 어울림센터를 왕래하며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함께 놀고 있지만 어머니들은 각각 벤치에 떨어져 앉아 아이들이 잘 노는지 지켜보기만 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하고, 또 어머니들끼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놀이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됐다. 평소 원예에 관심이 많던 목2동 통장님들과 뜻이 맞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꽃나무교실을 운영해 보고자 모임을 형성하게 되었다. 꽃나무교실을 통해 아이와 부모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주민들은 서로 어울려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을활동을 시작했다.

주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본 후, 아이들이 직접 흙을 만져 보고, 새싹(식물)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바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또 꽃나무교실을 통해 아이와 부모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주민들은 서로 어울려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마을을 기록하다

- 행사명** 새싹이 싹싹-식물수업
- 기록자** 채형원
- 일시** 2019년 8월 29일(목) 14:10-15:00
- 장소** 목2동 어울림센터
- 참석자** 하순희 제안자 외 3명, 어린이 8명



오전에 폭우가 내려 걱정이 되었지만 2시가 넘자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햇볕이 짹짹하다. 목2동 어울림센터 놀이터에 엄마 손을 잡은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놀이터 한쪽에 자리한 어울림센터 안에서는 목2동 통장들이 주축인 이웃만들기 '새싹이 싹싹' 모임의 식물수업 준비가 한창이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모인 봉사자들로 오늘도 아이들이 오기 전 재활용 컵과 식물, 재료들을 준비했다.

'새싹이 싹싹'은 목2동 통장모임에서 시작했다. 올해부터 이곳 놀이터 어울림 센터에서 격주로 목요일에 원예학습을 하는데, 아이들과 어머니, 봉사자들 간의 대화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처음 이웃만들기사업을 시작했지만, 어울림 센터라는 공간이 있어, 신청서를 받아 출석부도 만들고 격주로 모임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자그마한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8명의 어린이와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어머니들로 그리 크지 않은 센터가 북적북적했다.

오늘은 재활용 컵에 준비해 온 식물을 옮겨 심는 수업을 했는데, 하순희 제안자는 직접 설명을 하며 시범을 보이고, 아이들이 따라서 만들 때 통장협의회 앞치마를 두른 3명의 봉사자들이 도와주곤 했다. 아이들도 흙을 넣고 식물을 심는 과정을 스스로 해 보고는 각자 만든 화분을 들고 활짝 웃음을 지어 보



였다. 모두 스스로 만든 화분을 들고 잘 키워 보겠다는 다짐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아이들이 화분을 직접 만드는 시간은 30분도 안 걸렸다. 식물수업을 마치고 나서 책을 보는 아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 등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머니는 어머니들끼리의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엄마, 이거 잘 만들었죠?” 하며 자랑하던 아이는 의자에 자기가 만든 화분을 올려놓고 “햇볕 받고 잘 자라라.” 하고는 놀이터로 뛰어갔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센터의 마무리는 물론 봉사자들 몫이다.



아빠와 함께 세상 배우기

- 단체명/모임명 양화초등학교 아버지회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깨끗한 세상 만들기-학교 정화 활동
2. 친구 같은 좋은 아빠
3. 난지캠핑장 & 수영장
- 주 활동지역 목2동(양화초등학교 주변)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우리 모임은 목2동에 거주하며 양화초등학교 재학생을 둔 아버지들이 자녀의 인성교육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마을의 복지, 문화, 환경,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논의하고, 좀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는 초등학교 졸업한 아버지들도 함께하면서 여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자녀들과 행복한 추억과 봉사하는 습관을 키우기를 희망하며 이웃만들기사업에 신청했다.

활동을 하며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아이들끼리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 좋았다. 본 행사를 진행하며 부모와 자녀가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아빠와 함께 세상 배우기-목2동 역사문화축제 참여

기록자 채형원

일시 2019년 9월 28일(토) 11:00-17:00

장소 목2동 양화초등학교 내외

참석자 대표제안자들과 자녀 6명



9월의 마지막 주말인 28일 목2동 동네 분위기가 떠들썩했다. 특히 목2동시장 입구에서부터 걸려 있는 오색의 만국기가 골목을 따라 양화초등학교까지 주민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오늘 이곳 양화초등학교에서 목2동 역사문화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아빠와 함께 세상 배우기의 슈퍼대디 모임도 마을축제를 빛내고자 초등학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봉사활동을 했다.

그동안 학교에서만 열리던 행사를 온 동네로 확대시키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역사와 문화로 함께 놀고 즐기자는 제1회 목2동 역사문화축제가 올해 만들어졌다. 목2동장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민들의 지원으로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공항대로 큰길에서 학교로 오는 길목 이곳저곳에 용왕산과 오목교, 안양천의 전설과 유래 설명, 목2동의 명소와 유적지 소개는 물론 목2동의 역사에 대한 퀴즈마당을 비롯한 주민들의 작품 전시회, 포토존 등을 만들어 길거리 축제문화를 활성화시켰다.

학교에 다가오자 학교 담장을 예쁘게 색칠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열기구와 무지개 등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벽화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들 중에 군데군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도 있었다. 칙칙했던 축대 담장이 하늘색 바탕에 가정의 사랑과 어린이의 꿈이 담긴 밝은 그림으로 재탄생했다.

학교 운동장엔 집에서 가지고 나온 아이들의 물건들로 열린 벼룩시장과 과산군을 비롯한 먹거리장터,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에너지 자립마을 등 공동체들의



홍보부스도 있었다.

아빠와 함께 세상 배우기 모임도 이곳에 자리했는데, 주변에 제기차기와 비석치기 등 전래놀이를 하는 곳이 있어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좋은 곳이었다.

‘아빠와 함께 세상 배우기’는 양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사업의 하나로, 아이들이 이곳 양화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빠들의 모임이다. 2010년 양화초 아버지회로 시작해 지금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현 아버지회원들을 포함해 계속 모임을 하고 있다.

매월 학교 주변 정화활동은 물론 DMZ나 현충원 방문 등 교육적 행사와 캠핑, 여름철 물놀이같이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키워 가는 시간을 마련해 이름처럼 훌륭한 아빠들의 모임 활동을 해 왔다.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솜사탕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행사를 했는데, 솜사탕 기계를 양화초등학교 운동장에 2대, 골목길에 하나를 설치해 아이들을 맞이했다. 아이들과 함께 어릴 적 추억의 솜사탕을 찾는 어른들 모습도 보였고, 달콤한 솜사탕의 유혹에 아이들의 줄이 종일 끊이지 않았다.

점심 무렵, 기계 한 대가 과열인지 움직이지 않는데 솜사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김종락 제안자가 전화로

고장 수리 요청을 하고, 슈퍼대디들은 점심 겸 잠시 휴식시간을 가졌다.

분위기를 띄우는 길놀이로 시작된 행사의 첫 무대는 아이들의 태권도 시범.

항상 어버이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아이들이다. 이어지는 경기민요, 그리고 각 자치회들의 발표회와 각 학교들의 댄스공연에 이어 주민노래자랑을 마지막으로 6시간의 대장정이 끝났다.

이번이 1회 행사지만 알찬 구성과 다양한 무대로 마을 주민들의 행복이 한껏 더 커진 하루였다.



엄마 놀아 줘

- 단체명/모임명 하하하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놀이터에서 색다른 즐거움 느끼기(영단어 보물찾기)
2. 아이들과 벽화 그리기, 물총놀이
3. 독후활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기
- 주 활동지역 목4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목4동에서 미취학 아이들을 키우는 맘들로 항상 육아의 피로를 느끼며, 엄마와 아이 혼자 노는 것보다 또래 친구와 함께 노는 것이 엄마와 아이들 모두에게 힐링 시간을 주는 것 같아 항상 놀거리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의미 없이 놀기만 하는 것보다 무언가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특별한 놀이를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육아의 피로를 느끼는 주변 또래 육아 맘들과 함께 아이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주된 활동은 놀이터에서의 색다른 즐거움 느끼기(영단어 보물찾기), 벽화 그리기, 물놀이하기, 독후활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도자기 페인팅, 야광 탕탱볼 만들고 소등)를 했다.

처음에 사업을 함께하자고 제안했을 때 엄마들의 의심 어린 질문을 받았지만, 사업이 한 회마다 진행되며 처음 질문을 했던 엄마들이 다음 모임을 더 기다리고 궁금해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던 기억이 난다.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엄마들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서 더욱 친밀한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었다.



퓨전 NEW 영양한과

- 단체명/모임명 어울림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새로운 이웃 알아 가기
 2. 영양한과 레시피 상호 공유하기
 3. 영양한과 만들기
 4. 영양한과 무료 시식회 실시
- 주 활동지역 목4동(어울림아파트 노인정)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바쁜 생활로 인해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생활을 통해 이웃주민을 바로 알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

여러 가지 견과를 이용해 영양한과 함께 만들기와 양천구 마을공동체한마당 축제장에서 무료시식회를 실시했다. 활동을 하면서 참여 회원의 시골에 계신 친정어머님께서 ‘너도 이런 것을 만들 줄 아니?’ 하고 맛있게 드셨다는 말을 듣고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이웃들과 좀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다. 그리고 한마당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공동체의 다양성을 알게 됐다. 가족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돼 보람된 활동이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퓨전 NEW 영양한과-영양한과 만들어 나눔하기

기록자 이경미

일시 2019년 11월 11일(월) 14:00-15:00

장소 목4동주민센터 3층 식당

참석자 마을사업지기 5명



11월 11일 월요일 오후, 목4동주민센터 식당에 '퓨전 NEW 영양한과' 팀이 모였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목4동 이웃만들기 모임으로, 대부분 직장생활로 바쁜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건강한 간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역시 스스로 개발한 조리법으로 영양 한과를 만들기 위해 모였는데, 여러 차례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손발이 척척 맞아 한과 만들기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퓨전 NEW 영양한과는 땅콩,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박씨, 크랜베리, 참깨, 들깨 등 여러 가지 건강한 재료를 중탕해 가열한 조청이나 물엿으로 버무려 만든다. 한데 버무린 재료를 한과틀에 넣은 뒤 밀대로 판판하

고 단단하게 미는 작업은 보기보다 힘이 많이 든다. 그래서 대부분 한과집에서는 남자들이 이 작업을 담당한다고 한다.

한과를 틀에 미는 작업을 하던 문성희 씨는 틀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는 명절마다 어머니가 한과를 만들어 줬다고 한다. 그때 배운 솜씨로 가끔 한과를 만들어 먹고는 했는데 틀이 없어서 아쉬웠고, 그때마다 어머니가 쓰던 한과틀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고향집에서 발견한 틀을 집으로 가져왔는데, 그 틀로 한과를 만들 때면 지금도 늘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한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일하는 엄마들로서, 가족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영양한과를 만드는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보람 있다고 한다. 또 바쁘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 눈인사만 하기 일쑤였던 이웃들과 같이 한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고, 열심히 만든 한과를 주변의 친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더 좋다고 한다.



틀에 부어 형태를 잡고 밀대로 밀어 식힌 한과는 웬만큼 굳어진 후 일일이 손으로 썰어서 한자리에 모아두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크기로 자른 한과를 종류별로 작은 포장에 나눠 담으면 이날의 한과 만들기 작업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경비 아저씨나 청소부, 이웃들에게도 나눠 준다고 한다. 재료 준비부터 개별 포장까지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어려웠을 테지만, 힘든 만큼 보람이 느껴지는 하루가 되었을 것이다.



다함께 건강하자! 목5동

- 단체명/모임명 건목회(건강백세를 추구하는 목5동 모임)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목5동 둘레길 걷기
 2. 인근 시설 견학하기-파리공원 책놀이터, 양천자원회수시설, 양천바이크라운지 등
 3. 건강강좌-한달에 한 번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강의 개최(후원: 이대목동병원)
- 주 활동지역 목5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잘 조성된 목5동 둘레길을 걸으며 주민간 친목을 도모하며 건강도 증진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일상 삶 속에서 건강수칙 및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시작하게 됐다.

첫 번째, 목5동 둘레길 걷기로 주민들이 함께 바르게 걷기를 습관화했다. 두 번째, 건강강좌를 통해 건강수칙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 마련(이대목동병원 후원으로 주민센터에서 건강강좌 개최), 세 번째, 우리 동네 탐방으로 파리공원 책놀이터, 양천자원회수시설, 양천바이크라운지 등을 다녀왔다.

건목회 행사를 통해 주민들 간에 건강한 삶 속에서 주위를 돌아보며 소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 그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주위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평범하지만 늘 잊고 지냈던 소중한 교훈도 얻었다.

다함께 건강한 목5동이 될 때까지 건강백세를 추구하는 목5동 모임인 건목회가 오래오래 유지되도록 하는 게 마지막 바람이다.



마을을 기록하다

- 행사명** 다함께 건강하자! 목5동-건강강좌
- 기록자** 이경미
- 일시** 2019년 9월 25일(수) 10:00-11:00
- 장소** 목5동주민센터 5층 어울림홀
- 참석자** 마을사업지기, 목5동 주민 등 총 45명



목5동의 이웃만들기 모임인 건목회는 '다함께 건강하자! 목5동'이라는 사업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상시 목5동 주변의 안양천 둘레길을 걸으면서 이웃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모임이다. 이날은 특별히 건강강좌를 마련했는데, 근처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이날 강의 주제는 '백내장의 발생 원인과 예방법'이었는데,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의 김현진 안과 전문의가 강의를 해 주었다. 백내장은 노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질환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병이다. 하지만 그냥 방치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다른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

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백내장은 눈 속의 투명한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생기는 질병인데, 초기에는 점안액 등을 사용해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 특별한 통증 없이 시력 저하, 빛 번짐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 검진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또 이외에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황반변성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반'이란 망막에서 시세포가 밀집되어 빛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황반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



우 시력 손상까지 올 수 있다. 그러나 황반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심각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조건 겁부터 내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볼 것을 권유했다. 김현진 전문의는 이날 강의를 통해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평상시 생활 습관과 식생활을 비롯해 눈에 좋은 영양제까지 꼼꼼하게 알려 줬고, 마무리 시간에는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듣고 답변해 줬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눈떨림과 비문증 등에 대해 물었을 때 어떤 경우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를 알려 줬는데,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얘기하면서, 지나치게 어두운 곳에서 눈을 혹사하지 않는다면 마음껏 읽고 마음껏 보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다. 길지 않은 시간, 집중도 있게 진행된 백내장과 황반변성에 대한 강의는 눈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알찬 시간이었다.

엄마들과 아이들의 '놀이'를 통한 이웃만들기

- 단체명/모임명 함께 놀자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아이들의 바깥놀이 및 실내놀이
 2. 어른들의 독서토론 및 수제용품 만들기
 3. 홈파티 및 가족놀이
- 주 활동지역 목5동(경인초등학교 운동장 및 카페, 회의실, 회원의 가정)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우리 모임의 대표 제안자들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놀리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엄마들이다. 핵가족화 시대이며 이웃 간의 교류가 많지 않은 요즘, 아이들이 함께 노는 것을 원하고 엄마들도 함께 이웃을 만들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운동장, 놀이터, 회의실, 가정 등에서 함께 모여 재밌게 놀기도 하고 때론 투닥거리며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이웃이 되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해 줬으며, 여름에는 함께 물놀이를 하고 가족들이 모여 같이하는 시간도 가졌다. 활동하면서 엄마들은 책이라도 한 줄 더 읽고 조금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이들도 서로 배려하고 함께 노는 방법을 배웠다.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에게도 엄마들에게도 경쟁이 아닌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만들어 나갔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며, 견문을 넓히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통해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갖게 됐다. 아직 어린 둘째가 있는 엄마들이 모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한정적인 예산으로 인해 더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과 함께 놀고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참여어린이 이재희), "물놀이, 비누방울놀이, 그림 그리기 정말 재미있었어요."(참여어린이 허지안), "내년에 또 하고 싶어요."(참여어린이 이려한)라고 말한다.



알콩달콩 세대공감 소통

- 단체명/모임명 모두가 꿈꾸는 미래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어르신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오물조물 만들며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소통함
 2. 이웃 간에 자주 일어나는 분쟁의 문제점들을 서로 얼굴도 알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만들기를 통해 서로서로 재능기부하며 해결해 나감
 3. 요즘은 가정주부들이나 아이들도 바느질을 잘 못하는데,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짐
- 주 활동지역 신월1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휴대폰의 발달로 가족 간에도 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요즘 세상에 사소한 것들로부터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접근하기 쉽고 주민들이 거부하지 않을 것 같았다.

바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재료에는 서민들에게는 귀하게 생각되는 천연가죽이다. 천연가죽으로 컵받침, 연필꽂이, 동전지갑, 파우치 등을 만들면서 서로서로 궁금한 것들을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었고, 이웃 간의 분쟁도 줄어들었다. 반응이 좋아서 다른 동에서도 와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어르신들은 파우치를 하나 더 만들면 안 되느냐고도 했다.

회사일, 자원봉사캠프 활동, 이웃만들기사업 집행, 거기다가 주민센터에서 활동하는 것도 있어서 바쁘다.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소중한 봉사 활동들이고 몸은 조금 힘들지만 마음은 항상 행복하고 부자다.

마을 사람들이 화분 하나로 남자아이들만 있는 집이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모두 만족해했다. 또 천연비누는 거품이 잘 나서 아이들이 손을 더 깨끗하게 씻는 것 같이라며 좋아했다.

처음해 보는 마을사업이다 보니, 미숙한 점이 너무 많아서 생각했던 것들을 반도 실행하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하기도 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도전해 보고 싶다. 마을공동체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모두 함께 웃음소리 넘쳐 나는 우리 마을을 만들고 싶다.



옥상플랜트를 활용한 도시농부체험 및 수확을 나눔사업



- 단체명/모임명 락락/CPGA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단지 내 화단조성 및 가을 국화심기를 통해 환경개선
 2. 옥상텃밭에 채소, 배추, 무를 심고 기르며 이웃 간 소통
 3. 수확물을 다듬고 김장을 해, 아파트를 벗어나 폭넓게 이웃과 수확물(김장)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
- 주 활동지역 신월2동(아파트 단지 내외에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신정뉴타운 롯데캐슬은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된 아파트로서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주민 간의 반목과 갈등이 많았다.

5년이 지나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한 화단에 국화 심기, 텃밭에 채소를 심어 가꾸고 수확물의 나눔을 통해 단헷던 마음이 차츰 열리고 주민 간에 소통과 교류가 시작됐다.

더불어 행복한 모임, 봉사의 필요성을 함께 느끼게 되는 소중한 기회였고 주민 간의 반목과 갈등도 점차 해소됐다.

1회성의 행사가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한다면 처음보다 더 가깝게,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며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을 맞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옥상플랜트를 활용한 도시농부체험 및 수확을 나눔사업-아파트 화단에 가을 국화심기

기록자 이경미

일시 2019년 9월 1일(일) 10:00-11:00

장소 신정뉴타운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 내 화단

참석자 김한수 외 14명



9월의 첫날인 일요일 오전, 신월2동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의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주민 모임은 주말마다 20여 명 안팎의 주민들이 꾸준히 만나면서 봉사하고 소통하는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이웃만들기 모임으로, 대표인 김한수 씨는 현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장이기도 하다.

‘락락’이라는 이름의 이 주민모임은 남성 주민들의 참여가 도드라졌는데,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의 스포츠동호회 회원들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친목모임이었으나 뜻을 모아 봉사 활동을 함께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합류해 지금에 이르렀다.

이 아파트에는 원래 옥상녹화 사업으로 옥상텃밭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이를 활용할 방안을 찾던 주민들은 ‘옥상 플랜트를 활용한 도시농부체험 및 수확을 나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웃만들기사업에 공모했고 선정되고 나서는 더욱 열심히 활동 중이다.

옥상텃밭에 농작물을 심고 가꾸면서 이웃과 정을 나누고, 수확한 농작물은 필요한 곳에 기부함으로써 아름다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옥상에 텃밭을 가꾸면 도시열섬현상이 완화되고, 냉난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유익한 점까지 있다고 하니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또 평상시에는 아파트 단지 안의 배수로와 하수구를 정리하고 화단을 꾸미는 등 환경정비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많은 이웃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주에는 김장철에 수확할 배추와 무를 심었고, 이날은 아파트 단지 안의 화단에 가을국화를 심을 예정이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주민들이 화단의 흙을 고르고 화분을 옮기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국화를 심는 중에도 오고가는 아파트 주민들이 예쁜 가을국화에 관심을 보이며 작업자들과 인사를 주고받았고, 이런 자리를 통해 모임을 알게 된 주민들이 새로운 모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주민 모임원 가운데 최용진 씨는 농사 경험이 풍부해서 마을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도 작업 현장을 누비며 세세하게 작업 지시를 내렸고, 주민들은 그의 지휘에 따라 열심히 의견을 모아 가며 일을 했다. 평소에 쉽게 보기 힘든 각종 농기구를 익숙한 솜씨로 다루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였는데, 서로 역할을 나누어 능숙한 솜씨로 국화심기를 진행했다.

아파트 정문 쪽의 화단은 어느덧 갖가지 국화로 가득 찼고, 일부는 남은 작업을 마무리하고 일부는 새로 손질해야 할 뒤편 화단으로 갔다. 별이 잘 드는 앞마당과 달리 뒷마당은 잡초도 잘 자라지 못할 정도로 모든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뒤편 화단을 둘러본 최용진 씨는 토질도 좋지 않고 별도 잘 들지 않기 때문에, 화단을 정리한 다음 얇게 모래를 깔고 흙을 덮자는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작업을 시작했다.

일단 할일이 정해진 뒤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경험자의 의견을 경청해 서로 할일을 정하고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렇듯 이날 활동도 서로의 협조 속에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갔다.

이 아파트 주민 간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없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 모임이 활발해지면서 아파트 분위기는 눈에 띄게 좋아져서, 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기 바쁘다고 하니 참 반가운 소식이다. 돌아오는 초겨울에는 정성껏 가꾼 김장용 배추와 무를 수확해(지난번 파 수확물을 신월2동주민센터를 통해 나누는 것처럼) 주변의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계획이다. 그 넉넉한 마음만큼 이 모임에서 뿌린 소중한 땀방울이 앞으로 더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라본다.



신월 실버 스마일 오케스트라

- **단체명/모임명** 신월 실버 스마일 오케스트라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마을 주민과 소통
2. 음악실기교육을 통해 문화활동 증진
3. 공연을 통해 만남을 이루고 이웃 간의 새로운 만남 형성
- **주 활동지역** 신월3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신월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꾸려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공간과 문화활동을 이끌어 내고 싶어 만들게 됐다.

공연활동과 교육활동을 이어 가면서 배움의 속도는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함과 함께한다면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웃과 하나되어 음악을 통해 소통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어르신들이 음악을 함께 즐기며 배움을 통해 공연을 하며 자존감이 높아진 것에 대해 매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마을공동체한마당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 축제의 장을 열었을 때, 우리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 어르신들이 매우 큰 성취감과 기쁨을 느꼈다고 한다. 무대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존감이 향상되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게 돼 매우 좋았다.



마을을 기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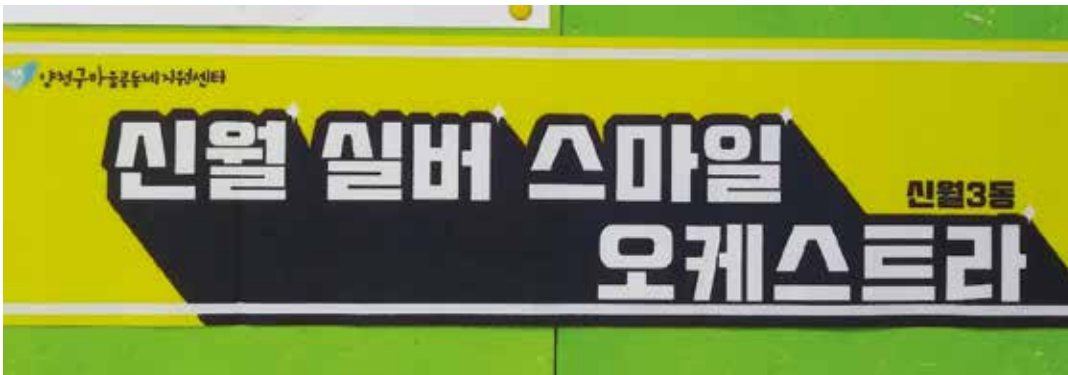
행사명 신월 실버 스마일 오케스트라-오케스트라 연습

기록자 차은경

일시 2019년 8월 5일(월) 13:00-14:30

장소 신월3동 소리엘 음악학원

참석자 오케스트라단 9명



8월 5일 신월3동에 있는 소리엘 음악학원에서 '에델바이스', '섬 집 아기', '과수원길', '등대지기', '아리랑', '조개껍질 묶어'와 같이 우리 귀에 익은 음악이 울려 퍼졌다. 오늘은 2019년 이웃만들기사업에 선정된 '내 나이가 어때서' 모임의 신월 실버 스마일 오케스트라의 연습 날이다.

신월 실버 스마일 오케스트라는 신월동의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년층의 문화생활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어 구성된 오케스트라로 피아노와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로 이루어진 미니 합주단이다.

실버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어르신인데 그 가운데 최연장자는 플루트 주자로 놀랍게도 올해 여든넷이다. 그 뒤를 이어 70대와 60대, 50

대까지 플루트 5명, 바이올린 1명, 첼로 2명에 지휘자와 피아노 반주자로 오케스트라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전공자가 아닌 취미로 악기를 배운 순수한 아마추어로 몇 년의 이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막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도 함께하고 있다.

신월 실버 스마일 오케스트라의 피아노 반주를 맡고 있는 장한샘 씨는 원래 바이올린 전공자로 지휘자인 음악학원 원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음악활동 틈틈이 학원 일을 돕다가 학원에서 악기를 익히는 실버세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마을에 실버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하게 됐다고 한다.

새로이 악기를 배우기란 쉽지 않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느라 치매예방에는 아주 좋다고 한다. 이 폭염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습을 계속하는 이유는 가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은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실버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었다는 소식만 듣고도 벌써 여러 곳에서 연주 의뢰가 들어와서 연습을 게을리할 수가 없다고 한다.

연주를 마치고 악기를 챙기는 어르신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재밌고 신나서 힘든 줄도 더운 줄도 모르겠다고 하며 환하게 웃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 연습하기 위해 집에서 개인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정말 대단하다.

가만 있어도 더운 이 계절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악보 보라, 연주하랴 정작 지휘자를 볼 여유도 없어 지휘자의 무서운(?) 한마디를 듣기도 했지만 다들 즐거워하는 표정들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마을에서 문화를 즐기고 또 전파하려는 실버 스마일 오케스트라, 선선한 날씨를 기다리듯 '작은 음악회'도 기다려진다.



/마을 인터뷰/ 신월 실버 스마일 오케스트라

일시: 2019년 11월 11일(월) 13:00

장소: 신월3동 소리엘 음악학원

참여: 장한샘

진행: 차은경



마을 인터뷰

1.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현재 신월동에 노인인구가 많아요. 주변의 문화센터와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해 본 결과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이 다양하지 않았어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나의 재능을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음악활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도 문화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2. 마을사업명이 신월 실버 스마일 오케스트라인데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나요?

신월동에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입니다. 단원들 연령 기준을 50세 이상으로 잡아서 실버란 표현을 넣고 굳이 스마일을 붙인 것은 음악을 하면서 웃을 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예요. 이 활동을 통해서 우울증과 치매 예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팀 이름은 사업명과 같아요.

3.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이게 되었나요?

어머니가 신월동에서 20년간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어르신들 가운데 음악을 배우고 싶어 어머니를 찾아온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마을사업도 어머니에게서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배울 기회가 많

마을 인터뷰

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학원은 사교육장이라 경제적인 여건을 전혀 무시할 수 없지요. 그래서 마을사업과 연결하면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배우고 싶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합주를 하고 싶는데 장소가 없는 사람들을 이미 좀 알고 있어 그런 사람들과 지인들을 모아서 소규모로 10명 정도로 시작하게 됐어요.

4. 어려운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나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오케스트라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능기부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취지에 공감하고 재능기부하려는 강사들도 있었지만 스케줄이 맞지 않아 사업 전반에 확대시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재능기부를 해줬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원들이 마을사업을 시작하면서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이미 해 왔던 사람들도 있었고, 지난 해 이런 마을사업을 염두에 두고 준비 단계로 준비를 한 부분도 있어요. 오케스트라를 하려면 약간의 실력이라도 있어야 하기에 재능기부를 통해 준비를 했어요.

해결해야 할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에요. 새로운 단원들을 많이 받는 게 가장 큰 과제인데 예산상 그게 어려웠지요. 배우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번 사업에선 10명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악기와 어머니의 지휘 재능기부 그리고 학원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지요. 사업이 좀 커지면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고 악기대여도 좀 더 가능해지고 공간도 늘리고 간식이라도 준비하기 위해선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5. 어르신들을 지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나요?

처음이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오케스트라를 만든 것은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육에 있어서 자꾸 결과물을 중요시하면 스트레스가 발생하지요. 과정 자체가 중요하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준 차가 나는 것을 스트레스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함께 끌어 가게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공동체의식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취지를 자꾸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손이 많이 굳어 있어요. 손을 풀면서 몸을 쓰는 것이고 악기는 머리도 써야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존감을 높입니다. 그러면 우울증 예방도 되고 치매 예방도 된다고 생각해요.

6. 주민 참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올해 두 번의 연주회를 열었어요. 한 번은 파리공원에서 열렸던 마을공동체한마당 행사의 무대였고, 다른 한 번은 이 학원에서 가졌어요. 특히 학원에서 연주회를 했을 때는 주민들 참여가 적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던 주민들이 참여해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주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알고 친해지는 것인데, 홍보 부족으로 많이 오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하지만 시작 단계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7.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마을지원활동가의 지원은 만족스러웠나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웃만들기사업은 음악에 중점을 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 관련해 디테일하게 설계를 있지 않아요. 그래도 센터나 활동가들이 신경을 많이 써 줘서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8. 바라는 공동체상은 무엇인가요?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그 안에서 누군가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센터장님께서 잘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공동체를 만들어 활동을 해 보니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인데, 모이기 전에 경제적인 부분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리더들이 구성원들에게 심어 주면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경제적인 것이란? 나도 음악을 전공했지만 음악을 한 사람들은 재능기부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공동체 안에서 재능기부를 하거나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마을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공동체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봉사나 재능기부는 개인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나 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연주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도 할 수 있고요. 1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악기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이 재능기부예요. 물론 참여자들에게 최소한의 자부담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전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 사업의 의미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우선입니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자기생활이 우선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위 단계의 일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나 방과후 학교에서 동네 마을 강사들을 불러 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마을 강사로 등록이 돼 있지만 실제로 활동할 기회는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을 설명하면 좋다고 하면서도 재능기부라고 하면 선뜻 나서질 못합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건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많아지면 재능기부도 하고 공동체사업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 내년에도 마을공동체활동을 계속할 계획이 있으세요?

내년에도 하고 싶고 조금 더 규모를 키워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올해 사업명이 이웃만들기인데, 과연 이웃을 만들었나 하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통해서 이웃을 만든 것은 무엇이나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오셔서 감상해 주세요.” 이 정도의 말밖에 없었어요. 사실 더 좋은 것은 음악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죄송하지요. 예산이 좀 더 커지면 재능기부와 결합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10. 이 마을사업 전에 공동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연주공모사업은 해 본 적이 있지만 마을공동체공모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1. 공동체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바뀐 것이 있다면요?

음악활동의 초점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의 주요한 일자리는 학교였지요. 방과 후 교사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육이 필요한 대상은 아이들이란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교육은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잘 돼 간다고 봐요. 아동 수가 줄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자꾸 올라가지요.

반면에 노년층은 인구가 늘면서 일인당 지원액도 줄고 그중에서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것이 문화활동 비용이에요.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시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문화활동 또한 중요하며 그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지원이 많아지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될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어른들 앞에서 공연하면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왜냐하면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공연을 접하고 감상하고 체험하고 직접 악기를 다루 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늙을 것이잖아요. 내가 나중에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이런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모아 뜨개나눔

- 단체명/모임명 손길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놀이터 나무에 뜨개옷 입히기(방충해 방지)
2. 직접 뜬 수세미를 판매한 수익금 기부(지역 아이들 돕기)
3. '꽃할매골목합창단' 합창공연
- 주 활동지역 신월3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처음에 마을활동을 시작할 때는 80세 넘는 할머니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젊었을 때 해 본 뜨개질로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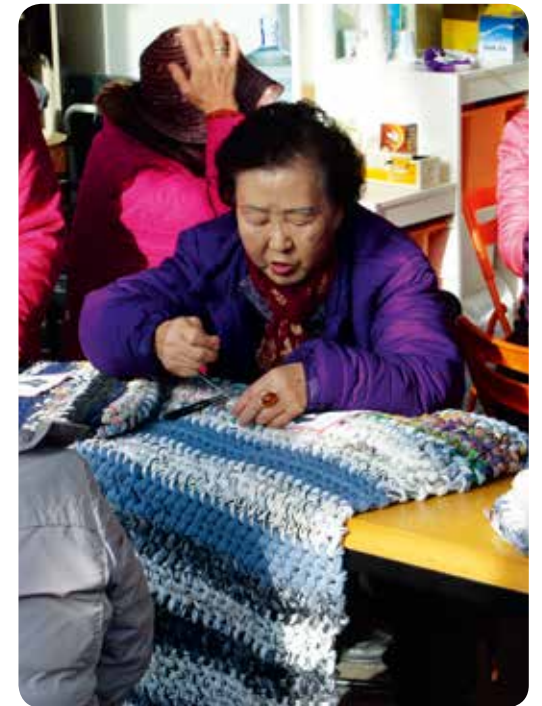
생소한 양말목으로 뜨개를 하게 된 이유는 환경을 생각해서였다. 봄이 오면 겨우내 나무를 감싸고 있던 뜨개옷을 수거하여 폐기해야 하는데, 버려지는 양말목(기계로 양말을 짜고 남아 버리는 폐기물)으로 만드는 것이 쓰레기를 덜 만드는 방법이었다.

여름부터 뜨기 시작한 나무 옷은 제법 무거웠지만,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도와주어 나무에 옷 입히기까지 마무리했다. 도움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 할머니들도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마을활동이 즐겁고 뿌듯하다. 매일 지나다니는 놀이터에서 우리 이름으로 재능기부를 한 뜨개옷을 볼 때마다 보람 있고 뿌듯하다. 지나가는 이웃들도 뜨개 솜씨를 칭찬해 준다. 이웃들이 우리가 마을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줘서 기쁘다.

참여한 사람들도 뜨개질을 하면서 많이 웃고 즐거웠다(서명석), 내년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박순임), 집에만 있다가 모임에 참여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참 즐겁다(권정순)고 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와 나무 옷을 벗겨 수거하면, 벌레들도 나무 옷과 같이 사라져 놀이터에는 벌레들이 좀 줄어들게 되겠지. 내년이 기다려진다!

내년에는 우리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터나 서서울호수공원에서 나무 뜨개옷 뜨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마음모아 뜨개나눔-겨울나무 옷 손뜨개

기록자 채형원

일시 2019년 7월 24일(수) 14:00-15:30

장소 신월노인참여나눔터

참석자 노정자 회장 외 13명



무더위가 한창인 7월 하순, 신월시장 입구 신월노인 참여나눔터에서 할머니들이 새롭게 뜨개질을 배우고 있었다.

오늘은 할머니들이 겨울철 나무들을 보호하는 겨울 옷을 만든다고 한다. 보통은 나무 밑부분을 벗짚으로 감싸 주지만, 이곳 할머니들은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부근의 남부놀이터와 경인놀이터 나무들에게 손수 뜨개질을 해 겨울옷을 입히기로 하고 오늘 첫 모임을 가진 것이다.

1시 반쯤 일찍 도착했는데도 벌써 할머니 10여 명과 강사는 탁자에 둘러앉아 무언가를 쌓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신월3동 자원봉사캠프장인 강혜영 강사는 나무 겨울 옷 소재를 양말목으로 준비해 왔다. 양말을 만들 때 나오는 양말목이라는 폐자재로 환경도 보호하자는 뜻이라 한다.

지금까지 손뜨개질을 많이 해 온 할머니들이지만 처음 보는 팔찌 같은 동그란 천으로 뜨개질하는 방법을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이었다.

평상시에 하는 뜨개질이 아닌 특이한 소재인 관계로 오늘은 나무에 싹을 커다란 네모 옷을 만들기 전에 자그마한 동그란 방석 만들기부터 연습했다. 강사는 할머니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했다.

나무로 만든 뜨개바늘 없이 손가락으로 동그란 양말목을 끼우고 엮어 가며 한코 한코 늘려 가는 할머니들 처음 해 보는 거라 하더니 나에게 사진도 찍어 달라는 여유도 생겼다.

오늘 참여한 14명의 할머니 중 특별한 할머니들이 있었다. 언니와 동생인 제일 연장자 서묘석 할머니와 서명석 할머니다. 동생에게 연세를 여쭙어 보니 언니와 10살 이상 차이가 난다고만 했다. 언니가 93세이니 80세 정도 되셨을까?

서묘석 할머니는 손놀림이 조금은 느려져 다른 사람들보다 크기로는 좀 부족하지만 방석 만드는 열의가 대단하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열중했다.

그러나 뜨개질은 완전한 수작업. 벌써 한 시간이 넘게 뜨개질을 하다 보니 할머니들은 의자에 앉아 있기 힘들다며 손목에 양말목을 잔뜩 끼우고 바닥으로 내려와서 하기도 하고, 손가락에 쥐 난다며 주무르고 또 주무르며 뜨개질을 하기도 했다.

제일 먼저 노정자 회장이 동그란 방석을 완성했다. 만들 때도 손놀림이 빠르더니 일찍 완성하고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곳을 빙 둘러 할머니들의 자랑거리가 빼곡히 걸려 있는 걸 보니 신월노인참여나눔터에서는 그동안 많

은 일을 한 것 같다. 노인참여나눔터 활동 수칙을 보니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자, 형님 동생으로 존중하자, 서로 돕고 다같이 봉사하자' 등 상호관계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서로 화목하고 단합이 잘되는 신월노인참여나눔터. 수십 년씩 각자 다르게 생활을 해 온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살아가는 방법인가 보다.

그동안 노래 연습도 해서 발표도 자주 하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뜨개질, 종이접기는 물론 시를 쓰는 할머니도 있었다.

작년엔 14명의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솜씨 자랑, 그리고 예전의 마을 기억과 현재의 신월동을 비교하며 지도를 만들어 책도 펴냈다고 한다. 정말 많은 나이에도 활기차게 살고 있었다.

2019년의 첫째 목표가 '건강하자'인 것처럼 현재 18명의 회원 중 90세가 넘는 할머니가 3명이나 있었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는 90세가 넘어야 어르신 대우를 해 준다고 노정자 회장이 농담같이 얘기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신월노인참여나눔터 할머니들의 활약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을 인터뷰/ 마음모아 뜨개나눔

일시: 2019. 10. 14(월) 10:00-11:00

장소: 신월노인참여나눔터

참여: 박경미, 이민숙, 서명석(이하 박, 이, 서로 표기)

진행: 채형원



1. 마을공동체활동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 노인참여나눔터의 어르신들이 작년에 뜨개질활동을 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손뜨개로 수세미를 만들어서 마을축제 때 판매도 하고 판매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마을에 나와 활동을 하다 보니 근처 놀이터에도 놀러 가게 됐어요. 마을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한 어르신이 놀이터 나무들에게 겨울 옷을 입혀 주면 어떨까... 하고 제안했지요. 다른 어르신들도 다 좋다고 해서 이웃만들기사업에 지원하게 됐어요.

2. 모임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박 어르신들이 지내는 곳이 노인참여나눔터잖아요. 나누는 손길이라는 의미를 담아 '손길'이라 지었지요.

3. 모임 회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노인참여나눔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뜨개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4. 모임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있나요?

박 마을에서 함께 봉사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5. 모임을 할 때 애로점은 없나요?

이 어려운건 잘 몰라요, 없어요. 재밌어요, 그냥.

박 근데 이동할 때 좀 힘든 거 같아요. 이동할 때 어쨌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좀 불편한 어르신이 있어요. 관창은 사람도 있지만 아닌 어르신도 있어서 목동 파리공원처럼 거리가 좀 있는 곳은 항상 차가 필요해요.

그럴 때 차량지원은요?

박 그거는 한국헬프페이지에서 차량지원을 요청하면 나오기도 하는데,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른 힘든 점은 없나요?

이 없어요.

서 만족해요.

6. 내년에도 공동체사업을 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요?

이 있지요. 뭐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정해야겠지요.

7. 이 모임을 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서 사람이 부지런해져요. 기쁘고 즐겁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것이 즐겁다고요. 지금 노인들은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해요.

8. 어르신들이 하는 활동에 대표제안자로 함께하는 이유가 있으시죠?

박 우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사업을 해 보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뜻 뭐 하고 싶다고 얘기할 만한 어르신들도 많이 없어요. 평상시에 좀 꾸준하게 어르신과 대화를 많이 해서 필요한 게 뭐고 원하는 게 뭔지, 뭘 잘하는 건지 파악할 수 있는 활동가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어르신과 격의 없이 말을 하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여기서 만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 좀 빨리 알 수가 있었어요. 또 어떤 걸 잘할 수 있겠다, 좋아서 하겠다, 이런 걸 하면 싫어하겠다 등을 이제는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자고 하면 아마 싫다고 했을 텐데 뜨개질을 한번 해 봤고 좋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확장을 시켜 나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마 나무에 옷 입혀 주자고 하면 어르신들 대부분은 싫다고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경험하고 뜨개질은 많이 했던 거라서 그거랑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좀 활동가가 해 주는 게 필요하답니다. 그러려면 일 년 단위로 바뀌는 마을활동가나 마을상담가보다는 좀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케어를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교육이나 워크숍 회의 같은 거 가 보면, 어르신들 하고 몇 번 같이 가 봤는데, 우선 회의하거나 진행하는 사람들이 일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입장에서 말이 굉장히 빠르고 잘 들을 수 없어요. 그것보다는 어르신들의 신체적인 특성에 맞춰서 큰 소리로 천천히 얘기할 수 있는 회의나 워크숍 같은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대상이 어르신은 아니고 마을사업들도 보통은 어르신은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끼리만 참여를 하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 회의 한번 설명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못 하겠다는 걸 많이 느낄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 마을공동체에서 시작한 시니어 관련된 사업은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쪽만 따로 특화해줬던 것들, 올해 좀 참석률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시대고 또 아직 하면 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런 걸 좀 특성화시키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원중학교와 함께하는 9988 청춘만세

- 단체명/모임명 쓰리동 패밀리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보들보들 손 마사지-월2회 마을 어르신들에게 손 마사지를 주기
2. 오늘은 아트랄라-어르신과 청소년이 1:1 매칭해 나만의 수공예 생활소품 만들기
3. 수다방-어르신을 위한 수다방을 통해 간식과 이야기 나눔
- 주 활동지역 신월3동 경인놀이터 지킴마루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정이나 복지관들이 많이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 또는 몸이 불편해 그곳마저도 갈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은 현실이다. 그래서 홀로 집에 있거나 놀이터와 골목에 홀로 배회하는 어르신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과 마을의 관심 속에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자는 취지로 함께하게 됐다.

신원중학교, 청소년, 학부모, 신월3동 자원봉사캠프가 연계해 놀이터와 마을의 유휴공간인 지킴마루를 이용해 손 마사지를 해 주고, 수공예 생활소품도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음식과 다과를 함께 먹으며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웃음과 정을 나눴다.

활동 초반에는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참여가 저조했으나 참여봉사자들의 적극 협조와 지속적인 홍보로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찾았으며, 매주 화, 목요일이 되면 오히려 먼저 와 우리를 기다리고 반가워하는 모습에 감사와 보람을 느꼈다. 조금은 서툴고 고생도 많았지만 서로 소통하며 더불어 행복해지는 경험을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들과 마을공동체활동을 하며 서로의 관심 속에 소외되는 세대 없이 함께 행복해지는 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리와~ 알려줄게!!!

- 단체명/모임명 YOU KNOW(유노)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아이들 성교육
2. 세대공감 어울림
- 주 활동지역 신월4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하지만 쉽게 부모들이 알려 주기 어려운 성에 관한 얘기를 재밌고 정확하게 알려 주고 싶었다. 또한 요즘 성에 관한 무지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 주고 싶어서 이웃만들기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첫 번째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성교육을 10월에 1차시(5일) 몸, 2차시(12일) 성, 3차시(18일) 성폭력 예방, 4차시(26일) 성평등 등으로 나누어 4번 진행했다.

두 번째 사업은 세대공감 어울림으로, 바운스(구로 롯데마트 내)에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에서 벗어나 부모님, 친구들과 교감하는 시간이 됐다.

아이들이 아동·청소년 성교육 후 신체 변화와 성인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결해서 청소년 성교육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학부모 성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친환경제품 만들기를 통한 환경의식 개선사업

- 단체명/모임명 함께 모여 소통하고 공감하고 나누기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천연제품을 만들어 쓰면서 환경인식 개선
 - 2. 자녀와 가정의 사소한 일들을 만들기를 통해 해소
 - 3. 활동을 통해 이웃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기
- 주 활동지역 신월6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동네에서 봉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통해 환경문제를 접하면서 우리 주부도 미래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려고 생각하다가 친환경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작은 실천으로 마을사업을 하게 됐다.

손수 만든 수세미와 비누를 매일 쓰면서 향기 나는 비누로 손 씻기부터 실천하고 이웃들과 나누면서 물 절약도 되는 것 같다.

화사한 화분이 우리집 거실에서 미세먼지를 걸러 주는 것 같아 미세먼지 걱정도 뚝!

가을이라 건조한 날씨에 에센스를 사용하는 얼굴과 손에서는 주름이 짝 펴져 동안이 되고 있다.

주부가 웃으니 가정이 밝아지는 것 같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친환경제품 만들기를 통한 환경의식 개선사업-친환경화장품 만들기

기록자 채형원

일시 2019년 8월 28일(수) 10:20-11:20

장소 신월6동주민센터 4층 자치회관

참석자 김정희 제안자 외 13명



신월6동주민센터는 처음 가 보는 곳이라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먼 길은 아니어서 30분도 안 되어 10시가 되기 전에 주민센터에 도착했다. 물어보니 오늘의 행사가 열리는 장소는 4층 자치회관이었다. 이곳 도서관의 한 공간에서 김정희 제안자를 만났다. 이 모임은 도서관을 돕는 마을 자원봉사자 모임에서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는 중 환경과 미세먼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제품으로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모임을 만들었다고 한다.

오늘의 주제는 친환경화장품으로 미스트, 에센스 만

들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와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전, 만들 재료들을 테이블 3개에 나누어 준비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쓰는 게 가격 면으로는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며 환경의식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모두들 처음 만들어 보는 거지만 설명서에 쓰여 있는 대로 한 방울 한 방울 섞어나갔다. 서로 가르쳐 가며 한 단계씩 해 보지만 잘되고 있는 건지.

10여 가지가 넘는 재료들을 하나씩 조심스레 조합하는 모습이 마치 연구원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혼합물을 병에 담고 라벨도 붙였다. 잘 되는지 손등에 발라도 보고 얼굴에 뿌려도 보고. 흐뭇한 표정이었다.

한 번씩 만들어 보고 난 후 늦게 온 사람들에게 하나 하나 섞는 걸 가르쳐 주기도 한다. 이곳 1층이 주민센터인데, 여기서 친환경 에센스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 있는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들었다. 주로 여자들이었지만 오늘 처음 온 남자 직원도 있었는데, 그램 수도 정확하게 꼼꼼히 만들더니 만든 제품을 들고 총총걸음으로 내려갔다. 이어 온 여자 직원은 옆 사람도 가져다 줄 거라며 2개를 들고 즐거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만든 제품이 하나둘씩 모여졌다. 20개를 만들겠다고 준비했는데 혼합과정에서 부족한 재료가 생겨 3명은 만들지 못했다. 게다가 1층 직원들이 기념품이라며 5, 6개를 가져가서 완성품은 10개뿐이었다. 오늘처럼 만든 제품들을 전시해 판매도 할 계획이라는데 몇 개 되질 않아서 계획대로 잘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판매수익보단 친환경제품 만들기로 환경오염 제로에 한 발 다가선 오늘이 즐겁다.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마을 만들기

- 단체명/모임명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우리 동네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골목에 화사한 꽃밭 만들기
2. 꽃향기에 이웃 주민들과 인사 나누면서 정 나누기
- 주 활동지역 신월6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우리 동네는 한쪽은 뉴타운으로 깨끗한 마을로 탈바꿈하고 있으나 남부순환로 옆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골목에는 몰래 버려진 쓰레기로 이웃들과 언쟁의 소지가 많아 꽃을 심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신청했다. 국화꽃을 심으면서 이웃들과 인사도 서로 나누고 커피도 마시면서 국화 향기만큼 날리날리 정이 쌓여서 이웃끼리 아침저녁으로 만나면 담소를 나누는 정다운 골목이 되어 가고 있다. 국화꽃이 활짝 핀 골목에서 주민들의 미소가 번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만나는 이웃들의 칭찬에 보람이 있었다. 주민들이 "마을이 환해졌어요, 국화 향기로 힐링되는 마을, 골목에서 만나는 이웃과 정담을 나눴어요."라고 한다.

국화꽃을 심으면서 마을 주민들과 소통했고, 예쁘게 핀 국화를 보면서 골목길에 나오면 작은 힐링이 되는 것 같다며 주민들의 칭찬을 받았다.



소통과 화합 '한마음축제'



- 단체명/모임명 공~감
-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 주요활동 1.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재능나눔 만들기 체험 봉사(경로당, 길훈아파트)
2. 마을공동체한마당 축제 무궁화꽃 만들기 체험부스 봉사
3. 해맞이축제 무궁화꽃 만들기 체험부스 봉사
- 주 활동지역 신월7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어느 날 모임에서 “아이들 어릴 적 살던 5층 아파트에서는 10가구 중 8가구는 서로 왕래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함께 밥을 해 먹고 함께 아이들을 키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우 부럽고 행복한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위아래 살면서 겨우 인사만 하는 정도 혹은 얼굴도 모르는 이웃지간, 이웃 간 층간소음·반려견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되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서로에 대해 알고 관심과 배려를 갖고, 분쟁과 싸움이 줄어들기 바라는 마음들이 모여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아파트 마당에서 주민들과 함께 한복방향제 만들기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회로 요즘의 생활이나 즐거움을 이야기했다. 또 경로당에서 캔들을 만들면서 젊은 주민들과 어르신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등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아들 며느리들도 조곤조곤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고, 즐거운 시간이 됐다고 고맙다는 말에 즐겁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왔다. 그 후 경로당에서 주 1회 친구 세대가 함께 만들기를 통해 이야기가 이어 가고 있으며 주민들 간에 층간소음·반려견 등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와 너, 우리의 심

- 단체명/모임명 신봉사(신월시영아파트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나의 심-뜨개질을 바탕으로 엄마들의 수다 모임과 나눔 활동
2. 너의 심-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진행
3. 우리의 심-1~3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놀이터 축제)
- 주 활동지역 신월시영아파트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주민들의 친목과 더욱 살기 좋은 아파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놀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나와 너, 우리의 심’은 사업명과 같이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심을 주고 친목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줬다.

뜨개질하면서 수다 모임하자고 모여 코바늘만 잡으면 다들 조용하게 집중하는 분위기, 공장장의 할당량 재촉으로 손이 덜덜 떨리는 재미, 완성된 작품을 채워 가는 재미뿐만 아니라 경로당 등 어르신들에게 나눔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의 심(놀이터 축제)은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물놀이를 하며,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집에서 뛰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던 엄마의 모습에서 벗어나 함께 뛰놀 수 있는 시간이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귀한 추억이 됐다.

또한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공연으로 풍성한 축제가 진행됐으며, 아이들을 위해 몸소 흠뻑 젖어 주신 센터장님께 감사 드린다.

이웃만들기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나와 너, 우리의 삶-수다와 함께하는 코바늘뜨기

기록자 차은경

일시 2019년 8월 4일(일) 15:00-17:00

장소 신월시영아파트 경로당

참석자 회원 13명, 어린이 4명



폭염이 온 나라를 달구었던 8월 4일 일요일에 '나와 너, 우리의 삶'이 즐거운 뜨개 수다모임을 가졌다. '나와 너, 우리의 삶'은 2019년 이웃만들기사업에 선정된 팀으로 주민들의 친목과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신월시영아파트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신봉사)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이날은 폭염 탓에 장소를 아파트 중앙공원에서 경로당으로 변경, 뜨개와 수다의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뜨개질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 코바늘을 잡아보는 사람도 있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기대 이상의 작품에 환호도 질렀다. 도대체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생산하고, 함께 크게 웃는 시간도 있었다.

이날 코바늘로 뜬 것은 나눔을 위한 수세미와 생수병 커버였다. 코바늘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말하다 보면 코 수를 놓치는 탓에 말하는 것도 잊을 만큼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열중하다가도 여기가 쉽거나, 공장이나 조금 쉬엄쉬엄 하자며 또 한바탕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뜨개를 하는 회원들은 30-40대 엄마들이었지만 50대 이상도 많이 참여해 이야기꽃을 피우며 함께 수박을 잘라 나누고 뜨개를 하는 엄마들의 자녀들을 돌봐주기도 했다. 경로당은 원래 일요일에는 개방을 하지 않지만 이날은 다음 날 있을 음식 행사로 어르신들도 나와서 어르신과 중장년, 젊은 엄마들과 아이들의 세대 통합 자리가 되기도 했다. 어르신들께 수박 대접하고 그동안 떠 두었던 수세미도 나눠 드리는 깨알센스를 보이기도 했다.

'나와 너, 우리의 삶' 팀의 다음 행사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터 축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총, 물풍선이 등장한다니, 다음에도 꽤 신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심보다 활동이



될 행사지만 방학맞이, 여름 나기로 아이들과 함께하며 마을 안에서 더욱 친해지리라 기대된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나로 서기

- 단체명/모임명 맘 밸런스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돌봄밥상-건강하게 준비해 함께 즐기는 이웃밥상
 2. 나는 꽃이어라-정원가꾸기, 플라워 작업을 통한 마음 살핌
 3. 마음의 심포-서로의 아이를 살펴 줌으로써 시간을 선물, 함께 자라는 우리 아이들
- 주 활동지역 신월7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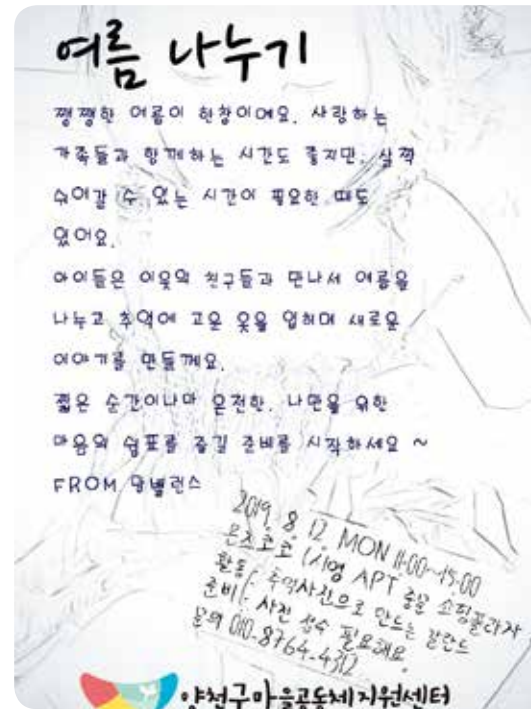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교육과 돌봄의 주체인 양육자에게도 보살핌이 필요하다. 몸이 힘들고, 가끔은 다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싶을 때,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이웃을 만들 수 있다면 조금 더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으리란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식사에 소홀해지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함께하는 공간에서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나와 친구와 같은 이웃을 위해 예쁘게 차려 내 건강하고 즐겁게 나눈다.

예쁜 꽃도 만져 보고, 작지만 집 안에 나만의 정원도 만들어서 들여 두고 가꿔 본다. 한여름 더위에 지치고 시든 다육들이지만 다시 정비하고 정성으로 지켜 주니 빛깔과 모양을 찾아가고 떨어진 잎에서는 어느새 약하지만, 앞으로 굳건히 땅에 딛고 서게 해 줄 뿌리도 자랐다.

그사이 우리는 나의 마음도 다독여 보고, 곁에 선 이의 마음도 살펴보게 된다. 낯선 사이로 만나, 어느새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 만든 꽃을 선물하고, 아이를 살핀다. 우리는 그렇게 한 뼘만큼 가까운 사이가 됐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나로 서기-다육식물 화분 만들기

기록자 이경미

일시 2019년 7월 17일(수) 10:00-12:00

장소 온즈코코(신월시영아파트 중문상가)

참석자 이현미 외 5명



‘맘 밸런스’는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대화를 나누다가 만들어진 팀이다. 한때 우리 모두는 꽃이었으나 자기를 잃어 버리고 양육자로 살아가면서 밥 한끼 편하게 먹지 못하고 허둥지둥 바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에 너무 지쳐 있기에 스스로를 보살핌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나로 서기’ 위해 모임을 시작했다고 한다.

맘 밸런스는 ‘돌움밥상, 나는 꽃이어라, 마음의 심포’라는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돌움밥상’은 함께 모여 요리하고 식사하면서 건강한 조리법도 익히고 이웃과 나누는 시간이다. 그동안 소홀했던 건강을 챙기기에 좋은 시간이 될 듯하다.

‘나는 꽃이어라’는 식물이나 꽃을 만지는 원예작업을

통해 작은 기쁨을 누리며 서로의 원예 지식도 공유하고 위안을 얻는 시간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웃에게 식물을 선물하거나 이웃들을 초대해 작은 전시회도 열 생각이다.

‘마음의 심포’는 휴식이 필요한 회원이 주변 회원에게 도움을 청하면 힘든 사람 대신 아이를 돌봐 줌으로써 재충전할 시간을 주는 사업이다.

지난 1차 모임에서는 ‘꽃밥상’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대접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2차 모임에서는 ‘마음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개성이 담긴 다육식물 화분을 만들기로 했다. 이 팀을 제안하고 이끌어 가는 이현미 씨는 순천만정원

을 여행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원을 구경하는데는 열성이지만, 스스로 식물을 가꾸는 일에는 무관심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꾸준히 보살펴야 하는 수고로움이 따르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과 기쁨을 주는 일이고, 아이들에게는 재미와 함께 책임감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공감을 느껴서 이 모임사업을 제안했다.

오늘은 비교적 키우기 쉬운 다육식물로 화분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각종 흙과 돌을 미리 준비하고, 각자 고른 5개의 작은 다육식물로 작업을 시작했다. 다육식물의 특징, 잘 자라는 생장 조건, 적응 후 물 주기, 분갈이 시기 등의 설명을 듣고 새로운 원예 지식도 배우면서 식물을 키웠던 경험도 공유하니 자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화분 안에 망을 깔고 크기가 다른 돌이나 스티로폼을 채우는 이유는 배수와 통풍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식은 앞으로 다른 식물을 키울 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진행자의 설명에 따라 차근차근하다 보니 각자 나만의 화분이 만들어졌다. 고른 식물도, 배치한 모습도 달라서 서로 비교해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는데, 한데 모아 보니 조화로운 모습이 또 색달랐다.

늘 생활에 쫓겨 바쁘게만 지내다가 잠시나마 화분을 매만지며 여유를 찾은 회원들이 완성된 화분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이 좋았다.

이 모임은 열린 구조라 각자의 취향껏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 서로 소통하는 공간에서 모임을 알리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현미 씨는 앞으로 모임이 정착되면 주변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해 보고 싶다는 바람을 들려주었다. 이웃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넓은 마음에 응원을 보낸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나로 서기’ 위해 오늘도 모임을 가진 맘 밸런스가 앞으로도 다양한 모임을 통해 재미난 이웃, 든든한 친구로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



코디얼과 여러 가지 수제 과일청 만들기

- 단체명/모임명 늘봄배움터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청 만들기
 - 2. 떡케이크 만들기
 - 3. 마을축제 참여
- 주 활동지역 신정1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신정1동에는 힐스테이트가 입주하면서 기존 10단지 주민들과의 주차난이나 소음 등이 많아졌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불협화음을 소통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이웃만들기를 진행했다.

같은 학교 학부모들끼리 동네에 모여 서로의 고충을 토로하고 이해하는 만남의 장이 돼 보람되고 뜻 깊은 사업이었다.

신규 입주민들과 기존 주민들이 늘봄배움터라는 모임을 통해 서로를 좀 더 알고 소통하며 작은 문제라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보람찼다.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이은진), “좋은 기회를 통해 배움을 실천할 수 있어서 좋았다.”(김미숙), “이런 좋은 기회를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 가면 좋을 거 같다.”(정은숙)고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정1동 구성원뿐만 아니라 신정3동, 신정7동 인근 주민들과도 소통하고 알고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고, 배우면서 소통하는 모임을 통해 양천구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마을공동체공모사업이 기존 모임을 자리 잡고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자칫 좋은 취지의 모임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는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좀 더 회원들과 정을 나누고 견고히 다지는 기회가 됐다. 또한 이런 노력으로 얻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회원들이 노력할 것이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코디얼과 여러 가지 수제 과일청 만들기-핫도그 만들기

기록자 이경미

일시 2019년 10월 10일(목) 11:00-12:00

장소 양명초등학교 학부모회의실

참석자 11명



신정1동의 이웃만들기 모임은 ‘코디얼과 여러 가지 수제 과일청 만들기’ 사업으로 과일청 만들기라는 특색 있는 주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 인기 있는 수제 과일청 만들기를 선택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 양명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엄마들로 구성됐으며, 매주 목요일 오전 양명초등학교의 학부모회의실이나 신정1동주민센터에서 만나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레몬, 블루베리, 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등 다양한 과일로 수제 과일청을 담갔으며, 과일청을 담그는 것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학부모

모회실 책장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림, 액자 등도 모두 이 모임에서 배워 만든 작품들이라고 한다.

또 그날그날 수업을 통해 배우고 익힌 내용들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아이들과 나누고 있는데, 주로 자녀들이 다니는 양명초등학교나 신정1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날은 오전에 엄마들이 먼저 핫도그를 만들어 보고, 오후에 캵스카우트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도할 예정이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한 재료들을 가지고 학부모 회의실에 모인 엄마들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핫도그를 만들어 보면서, 여러 가지를 의논했다. 각각의 재

료와 소스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재료 손질을 어느 단계까지 하는 게 좋을지 꼼꼼하게 결정할 사항들을 점검했다.

각자의 아이디어대로 만들어진 핫도그는 기성품 못지않은 모양새로 똑딱 완성됐다. 아이들이 즐겨 먹지 않는 채소부터 소시지와 치즈까지 속이 꽉 채워진 핫도그가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 잠시 차를 마시며 함께 먹어 보기로 했다.

풍부한 재료와 정성이 담긴 핫도그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큼 매우 맛있었으며, 오후 수업에서 핫도그를 만들며 즐거워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엄마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흐뭇해졌다.

이 모임에는 여러 학년의 엄마들이 섞여 있어서 선배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도움을 얻는다고 한다. 이사를 와서 모든 게 낯설었던 엄마는 좋은 이웃을 만나서 함께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더 반갑다고 한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난 후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배움을 경험하는 이 모임이 이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은 내 아이뿐만 아니라 마을 안의 아이들도 함께 보살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수업 내용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신정1동주민센터의 작은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미리 홍보한 후 그곳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엄마들은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좋고, 서로 마주보고 많이 웃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 이렇게 배운 내용을 마을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도 기쁘다고 한다.

알차게 채워질 시간들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코디얼과 여러 가지 수제 과일청 만들기’를 응원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기대해 본다.



북(BOOK)치고 장구(場口)치고

- 단체명/모임명 놀 걸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주 1회 모임을 통해 책을 읽고 인문학 나눔 활동
 2. 강사님을 초빙해 작은 인문학 강의를 듣고 나눔
 3. 그린나래 도서관에 '생각이 열리는 나무'를 전시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주 활동지역 신정1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아이들의 엄마로, 동네 주민으로 인사를 나누던 시간이 쌓이면서 인사만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인문학 책을 통해 의식을 확장시키고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가져 보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갱년기 탈출도 시도하고, 자녀들과 대화거리도 만들며 무엇보다 이웃들과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아줌마들이 가지고 있는 기발한 능력들이 발굴되고 이를 통해 마을 안에서 함께 즐거운 일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다.

주 1회 모임 활동을 통해 책을 읽고, 읽은 책에 관한 내용으로 인문학 나눔 활동을 하며, 강사를 초빙해 '고대 근동의 문명권'이라는 주제로 작은 인문학 강연도 열었다. 나아가 '생각이 열리는 나무'를 만들어 그린나래 도서관에 전시하며 나뭇잎 모양의 책갈피에 명언이나 아름다운 시 구절 그리고 부모님, 친구, 이웃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린나래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생각이 열리는 나무'는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게 돼 활동을 계획한 우리들도 많은 감동을 받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됐다.



불어라~행복바람! 바람개비 동산 만들기

- 단체명/모임명 행복바람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기획회의-사업규모, 내용 등 결정
2. 환경정비-아파트 옹벽 잡초 및 쓰레기 제거 등 환경정화
3. 바람개비 동산 조성
- 주 활동지역 신정2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평소 잡초가 무성하고 무단투기로 삭막했던 목동현대아파트 옹벽에 바람개비 동산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 사업을 계획했다.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해 사업을 결정하고 회의를 거쳐 진행됐다. 우선 주민들이 모여 아파트 옹벽에 잡초 및 쓰레기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아파트 옹벽길 100m에 바람개비 120개를 설치하여 바람개비 동산을 조성했다. 특히 구립 신정2동 어린이집 원아들이 함께 참여해 바람개비를 만들고 바람개비 동산을 조성함으로써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불어라~행복바람! 바람개비 동산 조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사업이었으며, 앞으로 바람개비 동산을 잘 관리해 행복바람이 부는 신정2동을 만들 것이다.



도지나(도란도란 지지고 나누자)

- 단체명/모임명 도지나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함께 떡 먹어요-떡 나눔을 통해 사업홍보 및 이웃 알기
2. 도지나한마당-이야기와 음식으로 이웃과의 깊은 관계 맺기
3. 도지나 소풍-이웃과 손잡고 소풍 가기
- 주 활동지역 신정3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이웃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신규 입주민과 기존 주민 사이 울타리를 낮춰 마을 사람들이라는 공감대를 끌어 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사를 가면 떡을 돌리던 옛 풍습처럼 떡 나눔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이웃을 알아 가는 활동을 시작으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으며 나의 이야기, 마을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알고 정을 느끼는 알찬 시간들로 채웠다.

마을사업이 처음이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으나, 경험이 곧 스승이라고 부족했지만 알찬 경험이었다. 내년에도 마을사업을 한다면 뽀뽀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웃, 남녀노소, 세대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보람찼고, 대표제안자들의 업무분담과 합심으로 처음이지만 즐거운 시간들이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이웃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끝으로 함께 활동한 활동가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마을을 기록하다

- 행사명** 이웃만들기-마을밥상
- 기록자** 채형원
- 일시** 2019년 7월 7일(일) 15:00-17:00
- 장소** 신정3동 이든채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정자
- 참석자** 도지나 대표 박정연 외 약 100여 명



‘도지나’란 신정3동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의 하나인 이웃만들기를 말한다.

금년 3월 새로 지은 아파트인 이든채에 입주한 박정연 씨가 처음 만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서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다정다감하게 바꾸어 보려고 제안했다.

‘도지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지역 주민끼리 도란도란 모여 앉아 부침개를 지지며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자’는 뜻을 줄인 것이라 한다. 글의 선입견보다 훨씬 깊고 멋진 단어를 만들어 냈다.

신정3동에 위치한 이든채아파트는 바로 앞에 큰 병원과 공원도 있어 생활 편의성도 좋은 곳이며, 지양산

자락으로 푸른마을과 이편하우스가 감싸고 있는 포근한 요지다. 새로 입주한 주민들은 신혼부부에서 어르신, 독거노인에 이르기까지 계층도 다양하다.

오후 2시에 찾아간 이든채 관리사무실 앞에는 아직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았다. 전화를 해 보니 박정연 씨와 뜻을 같이한 엄마들이 집에서 오전 내내 반죽을 만드는 등 부침개 준비를 하고, 과일과 떡을 예쁘게 싸느라 바쁘다고 한다. 얼른 와서 짐 나르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에 한걸음에 101동 집으로 찾아갔다.

반죽통과 김치, 동네 슈퍼에서 제공해 준 음료수와 과일 등 갖가지 음식이 담긴 통들을 밀차에 싣고 정자 앞 현장으로 향했다. 나는 돗자리를 펴고 동사무소에서 현수막을 걸고, 관리소장님은 테이블을 갖다 놓는 등 준비에 다들 바쁘다.

3시가 다가오자 흥을 돋워 줄 점핑 팀이 도착했다. 음악 소리와 함께 활기찬 율동이 이어지자 여기저기서 어르신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박정연 씨는 부침개를 부치느라 바쁘고, 도와주는 두 사람은 입장료 1천 원을 받고 과일과 떡을 나누어 주었다.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마이크를 잡고 행사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 특별히 없어 분위기가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

행사에 온 마을 사람들도 이끌어 가는 사람이 없으니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젊은이들도 각자 따로따로 앉아 먹기만 하고 돌아갔다.

뭔가 개선점이 필요하다. 마을사람들의 마음을 이어 줄 끈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나 박정연 씨는 “첫 모임이고 누가누가 이 아파트 주민인지 얼굴 정도는 익혔으니 앞으로 만나면 인사는 하겠죠.”라며 긍정적으로 말했다.

두세 차례 더 이런 모임을 거치며 연말쯤에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푸른마을 핵인싸

- 단체명/모임명 토끼들의 울타리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아이들의 인성과 지식 쌓기
 2. 이웃과 친목 다지기
 3. 주변 환경 돌아보기
- 주 활동지역 신정3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요즘은 아이들을 한 명 또는 두 명만 양육하다 보니 개인주의가 돼 가고, 이웃 간에 교류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한 번씩 아이들을 맡길 일도 생기는데 맡길 할머니나 친인척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놀이터에서 나처럼 같은 고민을 하는 이웃들을 한두 명 만나게 되면서 공동육아라는 걸 생각하게 됐다.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 헤매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이웃과 함께여서 재미있게 신나게 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지기도 하고 놀이터 주변에서 활동을 할 때면 처음 보는 친구들도 다가와 기웃기웃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부채 만들기, 팽이 만들기, 독서수업, 캠페인, 마을 돌아보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조금 서먹서먹하기도 했지만 점점 친해지니 더 편해졌고, 아이들도 엄마들도 서로 왕래하면서 즐거움도 힘든 일도 함께 나누는 이웃이 됐다.



스트레스 날려 봐



- 단체명/모임명 은행정두드림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일주일에 두 번씩 배구를 하면서 스트레스 풀기
 2. 배구하는 날은 빼고 모여서 손뜨개하기
 3. 배구공만 두드리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이웃의 문도 두드리기
- 주 활동지역 신정4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우리는 배구라는 매개로 배구공을 두드리며 스트레스를 푸는데, 배구공만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의 문도 두드렸다.

배구도 하고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신정4동에 출생신고 하는 부모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이불과 양말을 떠서 신정4동주민센터의 복지팀에 전달했다.

“아기자기한 양말을 떠 놓고 보니~ 예전에 우리 아이 키울 때가 생각난다.”, “좀 더 이쁘게 이쁘게 뜨고 싶다~ 빨리 손주 봐서 떠 주고 싶다”고 하는 회원들도 있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덤볐는데 뜨개질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마을공동체한마당 축제 시에 이불 전시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판매하라고 난리였다. 또 이불을 받은 아이는 너무 행복하겠다고 만족해했다.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듣게 되어 기분이 참 좋았고 뿌듯했다.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선조들의 멋과 맛 '손맛 품은 고추장 만들기'

- 단체명/모임명 솜씨를 자랑하는 모임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마을공동체한마당 참여
 2. 고추장 담그go 비빔밥day
 3. 고추장 담그기와 체험행사
- 주 활동지역 신정6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맛혀져 가는 전통 장 만들기 수업 진행 및 주민 체험을 통해 이웃 주민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시작했다.

자기계발을 하는 동시에 친목을 도모하며 이웃 주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고추장 담그기와 대형행사 시 주민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각자의 재능과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모임이 활성화됐고 굳건해졌으며, 이웃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고추장 잘 만드는 비법도 알게 됐다.

고추장을 만들고 비빔밥을 같이 먹었던 사람들과 마을에서 마주쳐도 즐겁게 인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을 축제 시 고추장 재료가 부족해 체험을 못한 사람들의 아쉬움이 컸다.

내년에도 배움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며, 강사님 지도에 감사 드린다. 고추장 담그는 법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됐고, 새로운 이웃들을 만나 즐거웠다. 마을축제 때는 고추장체험의 열기가 뜨거웠으며, 봉사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해 행복했다.

올해는 이웃만들기를 통해 많은 주민을 만나는 기회였다면 내년에는 찾아가는 이웃만들기사업을 해 보고 싶다.



기쁘지 아니한家

- 단체명/모임명 사랑가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과자집 만들기
 - 2. 재능을 나누는 수다파티
 - 3. 빵집으로의 여행
- 주 활동지역 신정6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이웃사촌들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을소식, 육아정보, 자녀 결혼 등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고 싶었다.

사랑가의 사업은 마을축제 때 과자집 만들기 체험부스 운영과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의 에코백 만들기, 마음의 안정을 위한 원예수업, 빵집으로의 여행으로 진행했다.

사업을 통해 하나가 된 회원들은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에 더욱 친해졌고, 행사 때 즐거워하는 주민을 보며 우리가 마치 큰일을 해낸 것 같은 마음에 행복했다.

에코백 만들기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환경운동을 한 것 같다는 주민의 말이 칭찬 같아서 보람도 느꼈다.

올해 행사를 통해 이웃들 간의 좋은 관계가 형성됐고, 내년에는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는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행복 플러스

- 단체명/모임명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 공모사업 유형 이웃만들기
- 주요활동 1. 꽃꽂이 활동을 통한 이웃 소통
 2. 이웃과 이웃의 만남
 3. 마을공동체한마당
- 주 활동지역 신정7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신정7동에 이사 와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이웃들과 이런저런 만남을 하고 동네를 알아 가던 중, 이웃만들기에 대해 듣고 이웃들과 즐겁게 함께하면 더 많은 이웃도 만들고 재미있겠다는 막연한 호기심에 시작을 했다. 시간이 지나고 만남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의논하는 든든한 이웃이 되는 과정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이제는 몇 달 남짓한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이루고자 한다.

양천구에 있는 공원들을 산책하며 주변을 더욱 관심 있게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면서, 신정동에 애정을 듬뿍 가지는 이웃들이 됐다.

힘든 일이 생겨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생겨 정말 든든한 나만의 기둥을 세워 놓은 느낌이 든다.



초화 마을 만드는 시니어

- 단체명/모임명 국화마을 사람들
- 공모사업 유형 시니어마을살이
- 주요활동 1. 초화 모종 기르는 양묘장 운영
2. 꽃 모종 마을정원-주택·상가 앞 식재
3. 주민들에게 주택·상가 앞 화분 놓기 홍보
- 주 활동지역 신월5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우리 모임은 5년 전부터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저비용으로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공유거리 화단에 꽃을 심어 주고 화단을 일궈 주었는데, 클린 마을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이에 마을 시니어 형님들에게 함께해 보자고 제안하며 2019 마을공동체 하반기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신월5동은 아무리 예쁜 꽃을 심어 밖에 내놓아도 가져가지 않는 믿음의 마을로 변화했고, 주민들에게 마을 정원 가꾸기 인식 계도 효과가 있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한마당 행사와 양천구 새마을지도자회 신영시장 생명 살리기 캠페인 때 꽃 모종을 200본 이상 무료나눔 실시로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정원을 초화로 가꾸는 봉사 활동 도중 5세 여아의 기도 폐쇄로 응급 상황을 조치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마을공동체 하반기 공모사업 기회가 주어져 마을 정원을 한층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 주민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초화 마을 가꾸기에 동참 주민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초화 마을 만드는 시니어-거리정원 가꾸기

기록자 이경미

일시 2019년 9월 26일(목) 10:00-12:00

장소 신월5동 견고 싶은 거리 일대

참석자 마을사업지기, 마을 주민 10명



신월5동이 국화마을로 자리 잡아 가는 데는 누구보다 열심히 오랫동안 마을을 가꿔 온 장숙영 씨의 노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992년부터 거주해 온 그는 두 손녀들이 대를 이어 자라나는 이곳이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가 되기를 바랐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민공동체가 활발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마을 꽃 가꾸기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개인농장에서 가꾼 국화 모종을 이웃들과 나누어 왔으며, 어떻게 하면 도시의 불빛 안에서 국화가 잘 자랄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실험한 결과를 주변에 알려 왔다.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던 중에 양천구 마을공동체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화마을 사업을 다양

하게 실천할 수 있었다.

국화 화분을 거리 곳곳에 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국화를 가꾸며 해마다 국화를 볼 수 있는 마을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또 신월5동에 조성된 3.5km의 둘레길을 국화길로 가꾸기 위해 950개의 작은 화분을 구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초화 마을 만드는 시니어’ 모임은 매주 목요일마다 모종과 작업도구를 준비해서 거리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다. 10여 명 되는 모임원 중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거리를 가꾸며 마을을 위해 활동 중이다.

처음부터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꺼이 나서 주지

는 않았지만 거리의 화단에 예쁜 꽃이 피어나고, 국화꽃을 심은 화분이 늘어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주민 간에 대화가 많아지고 동네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밝아진 것이다.

‘초화 마을 만드는 시니어’ 모임의 대표제안자인 조봉원 씨 또한 처음에는 국화 키우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국화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 사업장 옆의 공터에 많은 국화 화분을 키우고 있고 간이 비닐하우스까지 설치 중이다. 국화는 잘 가꾸기만 하면 10년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마을 환경에 잘 맞는 품종과 재배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 ‘현해, 현수’라는 재배방법을 설명할 때는 원예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보여 줬는데, 이 또한 끝없는 관심의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모임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장숙영 씨의 작업장으로 갔다. 이 공간은 주택에 맞붙어 있는 공간으로, 개인 농장에서 키운 국화 모종을 가져다가 관리하면서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 작업하는 공간이다. 처음에 국화를 키우기로 결정한 이유는 국화가 사군자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영하 5도에서도 견딜 만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다. 국화는 가을이 되면 피기 시작해서 서리가 내릴 때까지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고 잘 관리한다면 여러 해 동안 볼 수 있다. 또 이 마을에는 방치되어 있던 시유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곳을 현장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화초가 자라는 과정을 마을 주민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애정을 쏟고 있으며, 이웃 상가에서는 자발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기도 했다.

‘초화 마을 만드는 시니어’ 모임은 신월5동 국화마을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국화를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연환경과 비슷한 자연배합토를 이용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가로등 불빛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생종을 심고, 물을 대기 어려운 곳에는 작은 화분을 매다는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최적의 조건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만든 국화 화분들은 잘 키워 보기를 원하는 이웃이라면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전해진다. 선물처럼 이웃집 앞에 화분이 놓여지기도 하고, 지역의 예람 공부방 아이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면 물을 주러 나가기도 한다.

작은 국화 화분은 마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거리가 아름다워진 것은 물론이고, 꽃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마을 주민 간에 대화가 많아졌다. 이제는 거리 어느 곳에 예쁜 국화 화분이 놓여 있어도 누구 하나 가져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로 믿고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이뤄 가고 있다.

‘초화 마을 만드는 시니어’ 모임은 자발적으로 국화를 키우는 주민들이 더 많아지고 국화를 비롯한 초화 키우기가 문화로 자리 잡으면 ‘가을 국화축제’를 열고 싶은 바람이 있다. 지금까지의 꾸준한 노력을 되돌아보면 멀지 않은 미래에 마을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축제가 현실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노력이 향기로운 국화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양천은 마을로, 마을은 양천으로

우리마을지원사업/마을길라잡이

우리마을지원사업

book적 book적 우리 마을/목동들이 파리로 가자/너와 나의 연결고리, 마을에 있다? 잇다/달빛정원 같이 갈래?/
행복한 수작/웃찾동3(웃음으로 찾아가는 행복한 동행)/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한마음 놀이마당/
나눔을 함께해요/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자연과 마을에서 별난 걸 다하는 별별마을학교/
중년 장애여성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양천모임, 나눔 바느질 이야기/아이들과 함께하는 야구/느린학습자 워킹그룹

마을길라잡이

[해통지]해맞이마을은 통장들이 지킨다



Book적Book적 우리 마을

- 단체명/모임명 북앤맘
-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 주요활동 1. 아이들에게 책 읽어 주기 활동
2. 마을탐방으로 아이들과 마을 알아 가기 진행
3. 체험활동을 통한 지역민과 소통
- 주 활동지역 목1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우리 모임은 책을 통한 봉사나 나눔으로 모이게 됐다. 아이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친해지는 과정을 엄마라는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활동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우선 마을에 숨어 있는 도서관 탐방 등을 통해 아이들이 마을을 좀 더 알아 가고, 찾아간 도서관에서 책을 만나고 그 속에서 세상을 알아 가는 기회가 됐다. 또한 마을을 벗어나 차를 타고 찾아간 곳에서 책과 관련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좀 더 책과 친해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마을 관련한 진행 사업 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임구성원들의 재능기부로 이어진 페이스 페인팅과 각종 체험 부스, 벼룩시장을 필두로 한 마을행사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구성원과의 관계와 신뢰가 돈독해졌으며, 행사를 주관하는 동안 각자의 에너지가 마을구성원들에게 전해지는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 또한 높아지게 됐다. 이런 경험을 갖도록 지원해 주신 마을공동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book적book적 우리 마을-오목내 너른마당에서 놀자

기록자 차은경

일시 2019년 10월 19일(토) 10:00-14:00

장소 오목공원

참석자 회원 15명 외 참여 어린이 다수



10월 19일 오목공원에서 'book적book적 우리 마을'의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과 페이스 페인팅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book적book적 우리 마을'은 북앤맘 팀이 지난해에 이어 2019년 우리마을지원사업에 선정돼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목동에 위치한 목운초등학교의 학부모 모임인 '북앤맘'은 2017년 학교에서 책을 읽어 주는 봉사를 하는 엄마들이 모여 학생들에게 책 읽어 주기 활동을 하며 활동 영역을 점차 넓혀 나가고 있다.

10월의 좋은 날, 목동 마을축제인 오목내 가을한마당 행사의 일원으로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비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벼룩시장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고, 한편에서는 축제에 놀러온 어린이들에게 페이스 페인팅으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페이스 페인팅을 하며 자연스럽게 아이 나이를 묻거나 북앤맘 활동 소개가 오가기도 했고, 그러다가 자녀 양육에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등 마을 안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

이날 페이스 페인팅 체험부스 옆 농구마당에서는 관

내 5개 중학교(목운, 목일, 목동, 신서, 월촌) 농구팀이 출전, 기량을 겨루는 농구대회의 열기도 만만치 않았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모임은 학교 내 활동으로 그치는 경우가 흔한데, 마을사업을 기회로 학교 밖으로 활동을 확장해 나가며 마을활동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바람직한 예가 되고 있다.

내 자식, 내 학교를 뛰어넘어 마을의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로, 마을의 학교를 내 학교처럼 생각하며 좀 더 너른 시각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book적book적 우리 마을'에게 기대해 본다.



목동들이! 파리로 가자

- 단체명/모임명 여섯어울림
-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 주요활동 1. 목5동주민센터 꼬마버룩시장 정기공연
2. 파리공원 문화축제와 마을축제 참여
- 주 활동지역 양천구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우리 모임은 목5동주민센터와 양천구 마을공동체사업 그리고 생활동아리협의체 가입으로 많은 동아리와 연계해 자주 공연도 선보이고 폭넓은 활동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 참여했다.

‘찾아가는 공연’, ‘목5동 꼬마버룩시장 정기공연’, ‘양천구 마을공동체한마당 공연’, ‘강북구 산악문화제’, ‘공생공락 공연’, ‘김포공항 출국장 공연’, ‘KBS 불교축제 오프닝’ 등 다양한 공연도 했다. 4월부터 시작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을 공유하고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때마다 박수와 격려로 응원해 준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보람을 느꼈다.

마을활동 중에 산악제에서 오프닝 공연을 할 때는 관객이 적어 실망했는데 다시 재공연을 부탁받아 좋았고, 솔로 파트에서 앰프 전원이 켜지지 않아 당황했던 일 등 다양한 에피소드도 있었다.

양천구 내 곳곳에서 동아리활동이 활발해져서 행복하다. 앞으로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과 가족이 함께 나누는 모임 등을 소식지 등으로 만들어 알리고 싶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 안정과 여유를 선사함으로써 얻는 행복감과 양천구 마을공동체라는 모임을 주축으로 더 폭넓은 공연과 문화를 함께 나누길 기대한다. 여섯어울림도 적극 참여를 약속한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마을에 있다? 있다!

- 단체명/모임명 **新사임당**
-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 주요활동 1. 맘맘소통데이
 2. 다독多讀책놀이터
 3. 나는야 꼬마 에너지 환경운동가!
- 주 활동지역 **신월2동(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신정3동(꽃사슴어린이공원)**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新사임당은 신정3동 꽃사슴어린이공원과 신월2동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마을에서 다년간 함께 일
 굴 보면서 지내던 엄마들이 '온 마을이 연결고리를 지어 가면서 함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하면
 서 뭉치게 됐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데 공감해 겁 없이 작년 우리마을지원사업을 소소하게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더 많이 공감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엄마들의 소통모임 '맘맘소통데이'를 꾸
 리고, '다독多讀책놀이터'로 놀이와 배움의 장을 펼쳤다.

자꾸 모이고 우리가 직접 정한 활동들을 이어 나가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나눔까지도 실천할 수 있었다.
 나아가 현재 삶에서 직면한 환경문제, 에너지문제를 에너지공동체활동을 통해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제로 커갈 수 있도록 같이 배우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나는야 꼬마 에너지
 환경운동가!'라는 실천 활동으로 이어 간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였다. 또 같이 활동하던 엄마 들이 꼬물거리는
 새 생명을 맞이하는 축복이 더해지기도 했다.

지역사회와 점차 친밀하게 활동하면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무한 지지와 조력, 옷찾동3 마을팀과의 연계를
 통해서 한층 신나고 즐겁게 한 해를 보낸 것 같아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여러 활동을 통해 함께 나누며
 성장하면서 우리는 지금 마을에서 진짜 주인으로 살아가는 중이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너와 나의 연결고리, 마을에 있다? 잇다-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

기록자 채형원

일시 2019년 8월 9일(금) 17:00-19:00

장소 신정3동 꽃사슴어린이공원

참석자 최영경 외 대표제안자 3명, 어린이 40여 명



신정네거리에서 나지막한 언덕을 넘어 꽃사슴어린이 공원을 찾아갔다. 지난날 야산이었을 시절, 꽃사슴이 뛰놀 듯한 곳이다. 신월로 큰길에서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길모퉁이 전봇대에 'NO플라스틱'이 붙어 있었다. 오늘 행사의 내용을 짐작하게 했다.

햇볕이 무척 따가운 오후였다. 태풍이 지난 뒤라 더욱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주최 측도 어린이들을 생각해 시작 시간도 늦춰나 보다. 오후 5시가 다 되었는데도 후텁지근했다. 나지막한 언덕을 올라오는데도 옷에 땀이 났다.

꽃사슴어린이공원에 도착하니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들이 안내판도 걸고 놀이기구들도 정비하며 어린이들을 맞을 준비에 바빴다.

놀이터 나무 그늘 아래에서 또 다른 어린이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이곳에선 책도 보고, 집 안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동그랗고 예쁜 부채에 적으면 그 부채를 선물로 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다.

관련 책들을 가져왔지만 책을 보는 어린이는 많지 않



았고, 아이들은 엄마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듣고 있다.

그러더니 어떤 아이가 나름 무언가를 생각한 듯 부채에 적어 넣었다.

'물 틀어 놓고 비누칠이나 양치질하지 않기', '청소기, 드라이기는 한 단계 낮춰 사용하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앞으로 우리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다.

이곳은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놀아야 제 역할을 하는 곳이다. 10여 명의 어린이들이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온 형들과 물풍선 터뜨리기를 하느라 시끌벅적했다.

던지는 아이들은 기대에 찬 얼굴과 행복한 쾌감의 표정을 반복하며 물풍선 던지기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물풍선을 맞는 형들의 모습은 점점...

아무리 방패막이가 있지만 옷 젖는 걸 포기한 듯했다. 이제 좀 큰 어린이들이 에너지 절약의 글귀가 적힌 방패막이를 들고 서 있기로 했다.

가까이에서 던지지 못하게 줄도 쳐 놓았지만 아이들의 물풍선은 사정을 봐 주지 않았다. 점점 고개도 속

여지고 몸도 움츠러들고, 한 언니는 아예 포기한 듯 곳곳하게 서 있었다.

그래도 물놀이는 마냥 즐거운 시간. 물풍선이 부족해 엄마들이 또다시 만들어 와야 했다.

생활 속 공간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낸 두 시간.

자리를 마련한 새사임당 엄마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참여한 어린이들에게도 절약의 습관과 행복한 모습을 어린이 될 때까지 평생 간직하면 좋겠다.



/마을 인터뷰/

너와 나의 연결고리, 마을에 있다? 있다!

일시: 2019년 10월 22일(화) 10:00-12:00

장소: 신월종합사회복지관 4층 꿈꾸는도서관 내 열람실

참여: 김효순, 임은아, 최영경(이하 김, 임, 최로 표기)

진행: 이경미



1.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 최영경 씨의 제안으로 같이 활동하게 됐어요. 최영경 씨와는 놀이터에서 안면을 익힌 뒤 오래 봐 온 사이예요. 같은 지역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놀이터 공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주변에 뉴타운사업으로 공사하는 곳이 많아서 좀 위험하고 아이들이 놀 만한 곳이 부족했거든요.

임 저도 최영경 씨의 권유로 함께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사를 갔지만 예전에 같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웠고, 마을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함께하자고 하더라고요.

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인 놀이터에서 오랜 시간 봐 온 우리들은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시기는 금방 지나가는데 그 시기를 잘 보내고 싶은 공통의 욕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업을 제안했어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놀이터활동가들이 전래놀이, 놀이기방, 빅북 등을 가지고 와서 책도 읽어 주고 아이들과 놀아 줬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주하면서 오후 3시, 6시 이렇게 놀아 줬거든요, 1년 정도. 그 뒤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주 1회 진행하면서 장을 마련해 줬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시간을 맞춰서 꼬박꼬박 참여하기는 어려웠어요. 그 활동 지원이 끝나고 아이들이 아쉬워해서 장을 펼쳐야겠다고 생각한 게 계기가 됐어요.

2. 공모사업 이전의 공동체활동 경험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요?

임 4년 전쯤 마을공모사업으로 5세에서 7세 정도의 아이들과 동화구연모임을 해 본 경험이 있어요. 간식도 먹고 만들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동화구연동아리활동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

고 있어요.

김 2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놀리다가 서로를 알게 돼서 오래된 관계였지만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알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을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띠앗'이라는 프로그램 안의 강좌를 들었어요. 그리고 난 후 지금은 동화구연동아리활동도 하고 있어요.

최 예전에 큰아이가 배 속에 있을 때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일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는 활동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마포의 공동육아단체를 모니터링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내가 활동한 건 아니지만 그게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도심 안에 공동체를 꾸리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특별하게 와 닿았어요. 12년 전 얘긴데... 저는 독박육아를 했고, 경험이 없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가 다섯 살, 여섯 살 때 활동가 선생님이 와 놀아 준 게 나한테는 그때의 경험과 맞물리면서 이런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 같아요. 또 그 활동가들이 양천구에 살고 있어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데, 지역 안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마을의 자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저한테는 많은 영향을 미친 거 같아요.

3. 모임명인 '新사임당'은 어떻게 짓게 되었나요?

최 새로운 어머니상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 내가 제안했어요. 새로운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담았고요. 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초창기 멤버가 4명이었는데, 3명은 신정3동이었고 1명은 신월2동이었어요.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도 신월2동이었어요. 복지관을 기점으로 움직이다 보니 복지관은 신월2동, 꽃사슴놀이터는 신정3동인데, 여기에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다 오죠.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이름을 제안했는데 다 좋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4.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았나요? 또 그 당시의 어려움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최 김효순 언니랑 저는 둘째 나이가 똑같아요. 둘째가 7살인데, 배 속에 있을 때부터 같이 키운 셈이죠. 언니는 그때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저녁 늦은 시간에 항상 아이를 조금이라도 놀려 준다고 놀이터에 풀어 놓곤 했어요. 저도 그때쯤 아이를 많이 놀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클 때라서 놀이터에 자주 데리고 나갔고요.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임은아 언니도 아들만 셋인데 그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사는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간식도 엄청 많이 갖고 오고 떡볶이도 들통으로 해서 나눠 먹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같이할 수 있게 된 거죠.

김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다고 하고 막상 옆에서 도와준다고는 해도 다 바쁘고 일들이 많아서 만나는 걸 정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표들에게 일이 집중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5. 올해 진행한 사업 중 가장 의미 있거나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요? 또 모임의 대표제안자로서 현재 우리 모임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김 저는 지난번에 놀이터에서 했던 옷찾동3의 '컵타'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에게 익숙한 음악은 아니었지만 노래가 나오자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지' 하는 표정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재미있게 보더라고요. 컵타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도 유행이라 기본적인 관심이 있었던 거 같아요. 꽃사슴놀이터 안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어르신들도 아주 흥겹게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텃새도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편

하게 대해 줘요. 그날 공연은 아주 즐겁고 흐뭇했어요.

최 저희는 동네 아이들과 '에너지공동체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주도성과 자발성을 키우고 나눔을 통해 주변과의 관계를 쌓아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9월에 있었던 컵타 공연도 인상에 남고요. 우리 사업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성을 담보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걸 이미 다 느끼고 공감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꾸려 갈 것인지, 같이하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인지 하는 고민은 계속 있는 거 같아요.

김 작년에 이어 연결되는 사업이라서 작년에 느꼈던 어려움을 많이 반영하기는 했어요. 다들 너무 바쁘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대표제안자 4명이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옆에서 도와준다고는 해도 너무 힘들었어요. 즐겁게 하기보다는 일을 하기에 급급했던 거 같고, 서로 마음이 다르다 보니 갈등도 좀 생기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 3명과 적극적인 7명, 이렇게 10명에서 이어받아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어려움은 있어서 고민이에요.

6. 공동체사업에서는 주민 참여가 중요할 텐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이나 계획이 있나요?

최 저는 일상에서의 연결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상시에도 저희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가 연결을 이어 가는 거 같아요.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현수막도 걸고... 또 워낙 관계가 밀접하다 보니 복지관의 지원도 잘 이루어져요. 장소도 빌려주고.

김 저희가 복지관에서 다른 활동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를 복지관 직원으로 알 정도예요. 복지관에 행사를 알리는 게시물도 붙여 주고 복지사가 구두로 행사를 알려 주기도 해요. 또 워낙 여러 번 하다 보니 이제는 이웃들이 먼저 언제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웬만한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잘 알아봐 줘서 나갈 때 신경이 쓰이기도 해요.

7. 지원센터나 마을지원활동가 등 외부의 지원은 만족스러운가요? 또 아쉬운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 저희가 피드백한 거에 대해서 많이 경청해 주고 반영해 준 거 같아요. 월간일정이나 교육일정을 공유해 주고, 그때그때 어땠는지 물어봐 주거나 정산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차곡차곡... 올해는 정산교육도 흥미롭게 두 번 정도 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리가 우리 마을의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하는지 조금씩 알



수 있는 계기도 됐던 거 같아요.

8. 내년에도 지원센터의 공동체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나요? 또 사업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을 거 같아요. 평가와 개인적인 만족도도 다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얘기해 놓은 상태예요. 우리 안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마을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향이면 좋겠어요.

9. 내가 바라고 만들어 가고픈 마을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임 저는 마을지원사업 이전에도 통장 일을 하면서 앞장서서 일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앞장서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책 읽어 주기를 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걸 느낄 때 참 좋았거든요. 부족하지만 앞장서야 할 때 앞장서서 누구나 어우러지는 장을 만들고 싶어요.

김 한가하게 집에 있을 때면 놀이터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참 좋거든요. 회사 생활을 할 때는 마을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옛날 동료들이 뭐 하느라 그렇게 바쁘냐고 할 정도지만, 마을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대인관계도 넓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시끌벅적한 마을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최 마을의 구성원들이 각자 다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수동적인 교육 안에서 그런 의식이 없이 살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강해졌어요. 이전에는 무기력감을 느꼈다면 마을 안에서 뭔가를 해 보면서 일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서로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실현시키고 싶은 마을의 모습이에요. 많은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 아이들은 생각보다 존중받는 경험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명령과 지시를 받죠. 사랑을 받아 본 아이들이 사랑을 줄 수 있듯이 존중을 받아 본 아이들이야말로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거 같아요.



10. 공동체활동 경험으로 내가 바뀐 점이 있다면(내게 미친 가장 큰 영향한 가지) 무엇인가요?

최 3년 전에 청소년 교육을 다시 공부하면서 갈증이 생겼어요. 청소년 교육활동을 하면서 괴리감이 생겼거든요. 큰 곳을 변화시키려 다니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는 실천 영역이 없다는 거였죠. 저에게 마을사업은 제 삶의 실천 영역이고 변화의 공간이에요. 변화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몇 년 전부터 알던 아이가 지금 커서 다른 모습으로 잘 성장한다는 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내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한테 사실 많이 배워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생각 못했는데 아이들은 그 너머를 생각해요. 내 아이만 키웠다면 보지 못했을 거 같아요. 여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존재를 크게 보게 되었어요. 넓은 시각에서 사람들과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활동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뭔가 새로운 거를 해 보자 하는 도전의식이 생긴 게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예요.



달빛정원 같이 갈래?

- 단체명/모임명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 주요활동 1. 텃밭 가꾸기
 2. 주민 소통 공예활동
 3. 업사이클링
- 주 활동지역 신월3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후, 집에만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자신감과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텃밭 마을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처음 참여하는 회원들은 얼떨떨하고 어색해하기도 했지만 다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금세 친해졌다.

텃밭을 하면서 모종을 사서 심고 키우다 보니 커 가는 식물들과 모인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내 삶의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며 보람됐다.

2017년에 시작된 모임으로 벌써 2년째 이어 오고 있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와 좋은 파트너로 성장해 왔으며, 2019년도에 처음 참여한 회원들과 한쪽에 자리 잡은 텃밭에서 흙을 일구고 모종을 사서 심어 보는 활동을 해 보며 식물이 크는 재미와 동시에 식물이 죽거나 사라지는 아쉬움도 느꼈다. 텃밭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한마당축제, 다육이 그리기 등 주민 참여활동도 하며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닌 주민과의 소통 시간이었다.

작게만 키워 보던 식물들을 밖에서 다 함께 키우는 재미가 있었고, 텃밭을 매개체로 작물 외에 다육이 심기, 그리기, 다육이 업사이클링, 다육이 자수 등 다채로운 체험이 새로웠다. 식물들의 씨앗 수확 후엔 내년에는 무엇을 어떻게 심을지도 기대된다.

우리에게 많은 지지와 도움을 준 지원센터와 활동가들에게 감사하며 더욱 살기 좋은 양천구가 되길 바란다.



행복한 수작

- 단체명/모임명 행복한 수작
-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 주요활동 1.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열린 강좌
2. 마을축제에 참가해 창의성을 높여 주는 요요파우치 만들기
3.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예 배움터 조성
- 주 활동지역 신월4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초등학교 학부모 바느질 동아리활동이 종료된 이후 이를 아쉬워하던 몇몇 회원들이 동아리모임을 꾸준히 이어 가기를 원하던 차에, 마을공동체 소모임으로 확대해 보고자 우리마을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마을공동체활동을 하면서 내가 사는 마을 내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또 내 손으로 한땀 한땀 바느질해 가며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

아이들 시험기간에 엄마는 바느질하며 공부하는 자녀에게 잔소리 없이 밤을 같이 지켜 줄 수 있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기도 했다. 반면 바느질의 매력에 푹 빠져 집안일은 뒷전으로 내던져지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과 업사이클링 열린 강좌를 진행하고, 마을축제에 참가해 부스운영을 하면서 집안일만 하는 엄마들이 아닌 마을 내에서 공동체활동을 하는 멋진 엄마들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마을 내에서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활동 모습을 보면서 내년 '행복한 수작'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행복한 수작-중학생 아이들과 가족태슬, 패브릭안테슬, 모기기피제 만들어요.

기록자 차은경

일시 2019년 8월 8일(목) 10:00-12:00

장소 신월4동주민센터 4층 자치회관

참석자 회원 8명과 초대자 16명



8월 8일 오전, 신월4동주민센터 4층에서 행복한 수작의 오픈 강좌가 열렸다.

‘행복한 수작’은 학부모로 이루어진 공예 동아리로 시작, 손으로 직접 작품을 완성하는 성취감을 더 많은 지역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2019년 우리 마을지원사업에 선정된 2년 차 마을 모임이다.

이날은 주민을 위한 첫 번째 오픈 강좌로 방학을 맞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 태슬, 패브릭안테슬 그리고 모기 기피제를 만들었다.

가족 태슬은 가족을 3~5mm의 좁은 간격으로 재단하고 가위로 잘라서 끝에서부터 돌돌 말아가며 붙이

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일반 종이와는 달리 두께도 있고 질감도 다른 가족 원단을 곧게 자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집중과 끈기를 발휘해 잘 만들었다.

패브릭안테슬은 낚은 티를 실로 만들어 묶어서 완성한다. 어딘지 익숙한 이 티의 정체는?

혹시 초등학교 때 단체로 입었던 반 티? 저런, 빙고!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업사이클링 제품이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면 이렇게 놀이도구가 되기도 한다.

모기 기피제는 지금 이 여름에 필수 제품이다. 모기들이 싫어하는 천연향을 이용, 사람에게겐 무해하고 모기들은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단, 천연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쓰는 것을 권장



하고 얼굴에 분사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재단하고 오리고 묶고 붙이고... 내 손으로 만든 태슬은 가방에 매달아 예쁘게 장식하고, 모기 기피제는 야외에서도 요긴하게 쓰일 것 같다. 농담으로 집에 가져가면 엄마가 달라고 하지 않을까 말을 건네니, 네버... 본인들이 쓰겠다.

초등학생일 때는 재질대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니 말수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런 자리가 마련되자

친구의 엄마이기도 하고 엄마의 친구이기도 한 동네 아주머니들과 인사하고 눈을 맞춘다. 함께 모여 수공예 작업을 하는 동안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고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했다. 관심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책도 찾아보았다. 마을활동이 이래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이날 재능기부와 간식으로 아이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수작’ 팀에게 박수를 보낸다.



/마을 인터뷰/ 행복한 수작

일시: 2019년 11월 18일(월) 12:00

장소: 해누리타운 2층

참여: 김창숙

진행: 차은경



1.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녀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동아리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마침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있어서 신청했어요. 단순히 우리끼리만 모임을 즐기는 것보다 마을공동체활동에 참여해 영역을 넓혀 나가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2. 마을공동체사업명 '행복한 수작'은 어떻게 짓게 됐나요?

작년에 동아리모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완성품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 자체가 자기 만족감을 높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이 힘들 때도 있지만 결과물이 쌓이는 기쁨이 있지요. 그리고 엄마가 뭔가 집중하면 그만큼 아이들에게 쏟는 지나친 관심이 줄어 아이들과의 사이도 좋아진답니다. 아이들도 이번엔 엄마가 뭘 만드나 관심을 기울이면서 행복한 시간이었대요. 엄마들은 아이들이 좀 크면 뭔가 배울 기회를 갖고 싶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마을활동을 하면 멀리 나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가 수월하지요.

3.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이게 됐나요?

지금 이 마을사업은 10명이 같이하는데, 그 가운데 몇몇은 작년에 초등학교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 그들의 주변 지인들이 참여하며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4. 주민 참여는 어떻게 이끌어 내었나요? 또 어려움은 없었나요?

올해 진행한 사업 가운데 의미 있었던 행사는 여름방학 때 열린 강좌를 열어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 시간을 가졌던 일이에요. 중학교 학생들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지요. 방학이라도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대부분 회원의 아이들과 그 친구들이 모였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엄마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소통하는 추억이 됐답니다. 그때도 좋았고 마을공동체한마당 때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만들기 체험을 했던 것이 참 좋았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역할 분담이 잘됐습니다.

5. 마을활동의 어려움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모임의 가장 큰 과제는 책임감 문제예요. 대표제안자가 3명인데 그중에서도 제1대표가 더 많은 책임감을 지닐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어느 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1대 1은 아니었어요. 또 셋이 모두 모이기도 쉽지 않았고요.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한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할 때보다는 회원들이 많이 유입됐지만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마을 내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더 홍보가 돼서 커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6. 지원센터나 마을지원활동가들의 지원은 만족스러웠나요?

활동가와 고민을 많이 나누면서 소통하고 위로도 받았어요. 잘 몰라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몰라 요청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애쓰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어요.

7. 내년에도 마을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개인적으로 지금으로선 반반이에요. 제대표로 끌고 나가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집안 살림이나 아이들에게 좀 소홀해지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마음이 쓰인답니다. 개인적으로 잘 조율해 나가기가 버거운 부분이 있어 살짝 망설여지긴 해요. 하지만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을 생각하면 보람되고 뿌듯하답니다. 회원들이 계속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따라만 다니는 회원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역할분담이나 책임을 잘 나누고 싶고 홍보에도 신경을 써서 잘 운영을 해 보고 싶어요. 회원을 늘리고는 싶는데 많아지면 과연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고정 멤버를 두고 일회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8. 기대하는 마을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전에 성남의 논골마을을 소개하는 강의를 있었어요. 강의가 참 좋았고,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했지요. 우리끼리만 돈독한 것이 아니라 여러 활동가들이 연합해 활동하고, 그래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어요. 논골마을에서 관심 있게 봤던 것은 멤버들이 자기 영역을 좀 더 펼쳐 마을 강사가 되는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데 우리 마을 안에서 서로 배우고 익히면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부분에서 소외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고 멀리 움직이지 않고 우리 마을 내에서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얻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열심히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시야가 좀 넓어졌어요.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됐지요. 그동안 내가 가진 역량이 열이라면 두셋 정도만 발휘했는데 이제부터는 10을 가졌으면 10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겠고, 다른 이에게 좀 더 내세우고 보여 주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웃찾동3

(웃음으로 찾아가는 행복한 동행)

- 단체명/모임명 하하봉사단
-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 주요활동 1. 컵타를 이용한 공연
2. 공연으로 마을축제 참여
3. 동네 놀이터축제 참여
- 주 활동지역 양천구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우리 모임은 동네에서 함께 모여서 동네에 즐겁고 행복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논하다 함께 배우고 익혀서 나눌 수 있는 것을 하기로 선택했다.

누구나 쉽게 컵 도구를 활용해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고, 대상별 인지능력과 노래에 맞추어 신나는 활동을 했다.

동네 놀이터 잔치, 지역 마을행사, 요양원, 경로당, 어디에서든 작은 컵 하나로 바로 배우고 함께 놀이가 가능해서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했고 즐거움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노래를 익혀서 더욱 재미있고 함께할 수 있는 양천의 컵타로 마을공동체에 함께하겠다.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

■ 단체명/모임명 엄마야

■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 ### ■ 주요활동
1. 집 밖으로 한발 내딛기-소풍 도시락, 아기반찬 만들기, 동화구연, 물감촉감놀이 등 총 4회에 걸쳐 엄마들이 가볍고 쉽게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사귀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2.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총 3회 정도 열린 부모인성 강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마을로 나온 엄마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함
 3. 열린 마음으로 마을 속으로-엄마야 모임을 통해 사귀을 갖게 된 엄마들이 모여 연말파티 콘셉트로 사진전, 율동공연, 육아공감 상황극, 부모강연, 공감토크, 다과시간을 가지면서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짐

■ 주 활동지역 신정동, 신월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엄마야는 2016년 6월 결성돼 2017년 신월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했고, 2018년 자체 회비로 운영 중이다가 양천구 우리마을지원사업공모에 지원했다.

홀로 외롭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마을 엄마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소통하며 배우는 즐거움을 통해 마을에서 엄마와 아이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활동 중이다.

5월 엄마 강연에 주변 엄마의 초청으로 모임에 참석한 루아 엄마는 전날 고집불통인 5살 딸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행사에 참여하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닌 육아를 겪으면서 누구나 겪는 거고 자신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는 따뜻한 자리여서 참석하길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했다. 모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다 보니 행사를 해내기가 버거울 때도 많았는데, 이렇게 마음의 짐을 얻고 가는 엄마들이 있기에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도 너무 행복했다.

육아의 어려움을 겪으며 속앓이를 하고 있을 엄마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유도하고, 팀원들뿐만 아니라 마을 엄마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기회의 장을 마련하게 돼 너무 보람됐다.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인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모임 프로그램의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높아졌고, 외적으로

도 양천구 마을공동체라는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 모임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신뢰도도 향상돼 엄마들이 편하게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소풍 도시락 만들기

기록자 이경미

일시 2019년 9월 18일(수) 10:30-12:30

장소 해누리타운 2층 열린 유아방

참석자 박지영 외 어른 14명, 아이 6명



‘엄마야’는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는 사업명으로 모임을 꾸리고 있는 공동육아 모임이다. 이날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예쁜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는데, 수업을 진행해 줄 사람은 ‘엄마야’의 모임원인 박지영 씨다. 모임 장소에서는 미리 온 회원들이 각각의 접시에 꼼꼼하게 요리 재료를 나누고 쿠킹랩으로 싸서 한쪽에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와 함께 온 아이들은 유아방에 있는 장난감과 놀이기구를 가지고 편안히 놀고 있어서 엄마와 아이 모두 한결 여유로워 보였다. 이날 도시락 메뉴는 랩으로 말아 싰 후 칼로 자른 식빵, 문어 소시지, 메추리알 꼬꼬, 라이언 유부초밥 등이다. 미리 만들어 온 견본 도시락을 본 엄마들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걱정했지만, 선생님은 참을성만 있

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며 자신감을 북돋아 줬다.

각자 미니 도마를 비롯한 도구와 요리 재료가 준비된 상에 앉아서 선생님의 지시대로 작업을 시작했다. 먼저 식빵의 테두리를 자르고 밀대로 납작하게 민 다음 잼을 바르고 햄과 치즈를 얹었다. 랩으로 말아 형태를 잡고는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잠시 옆에 두고 다음 요리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된 메추리알에 칼집을 내고, 당근을 오려서 닭벼슬을 만든 다음 끼워 넣어 꼬꼬닭을 만들었다. 카레 물을 들인 메추리알은 병아리 모양을 내기 위해 검은깨로 눈만 끼워 넣었는데 그 정성이 대단했다.

다음에는 소시지 문어를 만들었다. 소시지의 밑부분

에 칼집을 내어 8개의 다리를 만든 후 뜨거운 물로 데쳐서 문어 모양을 내고 검은깨로 눈을 박아 넣었다. 미리 준비한 이쑤시개를 이용해 검은깨를 끼웠는데, 깨가 자꾸만 빠져서 대부분의 엄마들이 애를 먹었다. 마지막으로 만들 라이언 모양의 유부초밥은 도시락 메뉴 중 가장 어려운 메뉴다. 딱 보기에라도 만들기 힘들어 보였지만, 선생님의 설명이 워낙 꼼꼼해서 시키는 대로 따라 하다 보니 얼추 비슷한 모양이 됐다. 라이언의 입 주변을 표현할 치즈, 눈썹과 눈에 붙일 김, 볼에 칠할 케첩까지 갖가지 재료를 준비한 건 물론이고, 재료를 붙일 올리고당과 작은 원 모양으로 치즈를 찍어 낼 빨대까지 세심한 준비가 있었기에 막힘 없이 완성될 수 있었다.

엄마들은 사전에 공지한 대로 각자 준비한 도시락에 이날 요리한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았다. 도시락을 채우고 자리를 정리하면서 각자 소감을 말할 때 힘들었지만 기뻐할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니 저절로 흐뭇한 마음이 된다는 얘기가 많았다.

‘엄마야’는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서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함께해 온 모임이다. 그만큼 활동경험이 많아서인지 구성원 간의 팀워크도 매우 좋았고, 분명한 역할분담으로 프로그램을 척척 진행해 나갔다.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기꺼이 수업을 맡아 이끌어 주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애쓰는 사람도 있었다.

‘엄마야’는 네이버의 카페나 지역 맘카페 활동으로 새로운 모임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도 적극적이다. 또 모임을 마무리할 때는 소감을 나누며 다른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마을공동체의 큰 행사도 자연스럽게 알리는 등 그동안의 활동으로 축적된 역량을 보여 줬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육아의 어려움을 기꺼이 나누고,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



한마음 놀이마당

- 단체명/모임명 비빔밥
-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 주요활동 1. 세계 문화 체험
 - 2. 원예치료를 통한 인성 강연
 - 3. 세계 음식 체험
- 주 활동지역 양천구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다문화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서로 소통하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아이들도 이런 모습을 보며 틀림이 아닌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교류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보람된 시간이 됐다. 마을공동체한마당 축제 때 빅토리아와 아이들이 아시아 민속놀이를 하며 영어를 사용하여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글로벌 시대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런 기회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다양한 민족의 친구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 양천구 지역 주민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교류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싶었고 몽골 포토존과 몽골 문화 체험을 통해서 아시아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원예치료를 통해 문화를 넘어 소통의 기회를 만들었다. 세계 음식을 만들어 먹어 보고 홍보하면서 교류할 수 있었다. 다문화인들의 정서가 한국인의 정서와 다르기 때문에 모임을 자주 가지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어 이해가 부족하고 영어로 소통이 어려워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대화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인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나눔을 함께해요

- 단체명/모임명 나눔
-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 주요활동 1. 텃밭활동
 - 2. 장애 이해교육
 - 3. 놀이-체육활동
- 주 활동지역 신월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너무 제한적인 것이 많다는 것을 보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아이들과 감자고구마 캐기, 소풍 가기, 체육활동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공감하며 서로 도와주고 같이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흐뭇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살았는데, 이번 공동체사업을 통해 장애,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장애 아이들도 비장애 아이들처럼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들을 눈치 보지 않고 천천히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 또 엄마들도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통해 서로 경험을 공유해 어렵게 느껴지는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나눔이 얼마나 좋은 건지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모임들이 많아져서 경계 없이 누구나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 단체명/모임명 해피러스
-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 주요활동 1. 나비남 모임으로 중년 남성과 중창팀을 결성함
2. 지역의 소외된 이들에게 노래로 행복을 전함
3. 함께 소통, 교류해 지역 사회를 밝게 함
- 주 활동지역 양천구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한 해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지역에 소외된 1인 가구인 나비남들에게 행복을 같이 나누자는 취지로 실제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었다.

나비남인 1인 가족과 함께 지내며 노래 연습을 하면서 행복을 주는 시간이 된 것이 가장 좋았다.

이 모임을 함께하면서 내 속에서 나올 수 없고 자신감도 가지지 못했을 텐데 멤버들 간의 연습 과정을 통해 '나는 정말 잘못 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남성 중창팀 '도만 아는 중창단'이 탄생됐고, 노래를 하는 동안 즐겁게 연습하면서 나의 부족함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게 됐다. 또 나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을 배려하며 더욱 가까운 친분을 쌓을 수가 있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나를 위한 한마디도 처음에는 들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너무도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게 됐다. 또 연습 후 집으로 돌아가면 나의 이런 모습을 반성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찼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속닥발표회

기록자 차은경

일시 2019년 9월 27일(금) 19:30-21:30

장소 신정1동 페이펄 자율쉼터

참석자 회원 27명



9월 27일 금요일 저녁, 신정1동의 문화공간 페이펄 자율쉼터에서 합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월1동의 해피러스 중창팀의 이야기가 있는 음악 발표회 현장인데 해피러스는 동네 작은 모임에서 시작된 중년 여성 중창팀으로 이번에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라는 이름으로 2019 우리마을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그리고 이번 마을사업을 통해 남편들과 지인인 1인 가구 독거남들을 영입, 혼성 중창단으로 활동하며 노래로 서로 연대하면서 인생 후반을 좀 더 풍성하게 보내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도'도 모르는 남자들이 노래를

시작해 이제는 '도'만 안다며 겸허하게 노래 부르는 이들은 발표회를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하던 연습을 매일 맹훈련해 왔다고 한다.

이날의 공연은 김인태 씨의 독창곡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서'로 시작했다. 음정은 불안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박수갈채를 받았고, 남성 중창단의 '오빠 생각'이 이어졌다. 예전에 곧잘 불렀던 노래를 듣고 있자니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시간 여행을 하는 듯 코끝이 찡해지며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서울 가신 오빠'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노래뿐 아니라 송토크도 있었는데 박현주 씨가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게이름도 몰랐지만 외워서 한다는 일념으로 합창을 시작해 이렇게 발표회까지 참여하게 된 소회며, 합창단활동을 통해 좀 더 자유로워져서 좋다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고백했다. 혼성 중창단의 '만화영화 주제가 메들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 '아기공룡 둘리, 은하철도 999, 마징가 제트' 등 귀에 익은 노래를 들으니 마음은 동심으로 돌아가서 따라 부르는 이들도 곳곳에 보였다.

1부가 노래와 함께한 발표회였다면 2부는 '함께라서 행복해'라는 주제의 강연이 준비됐다. 국제 마인드 교

육원의 강성곤 강사가 먼저 명절날 귀성 차량으로 꽉 막힌 도로와 뺨 뚫려 시원하게 달리는 도로 사진을 보여 줬다.

사람도 도로처럼 어떤 이는 꽉 막혀 있고, 어떤 이는 시원하게 소통하며 지내고 있다며 소통하지 않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위험한지 역설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낼 수 있을까? 강사는 자기 생각을 너무 믿지 말라고 조언했다.

'자기 과신에 빠져 내 생각,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고립되고, 그러다 보면 비정상적인 사고의 세계에 갇혀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면 타인의 이야기에 경청하게 되고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지니 혼자보다는 함께이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내용을 재미있고 공감되게 진행했다.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관객과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다. 신월동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확장하다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었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자녀와 갈등할 때 엄마도 처음이라 서투르다는 말로 이해를 구했다는 경험을 들려줬다.

남성들의 경우 생활 기반이 직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성들에 비해 마을 내에서 관계 맺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마을활동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마을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 마을활동이 모든 세대에게 정말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날 발표회는 10월 5일 파리공원에서 열리는 마을공동체한마당에서 열릴 발표회의 전초전, 한 주일 정도 더 연습해 파리공원에 올려 퍼질 멋진 합창을 그려 본다.

/마을 인터뷰/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일시: 2019년 11월 16일(토) 14:00-15:00

장소: 기쁜 우리 양천교회 2층 소회의실

참여: 황계진

진행: 이경미



1.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런 거 한번 해 봐”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듣고 나서도 ‘나는 공동체 일 같은 거 할 일이 없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신월1동에 있는 ‘50 스타트센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면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공연에 초대하러 우연히 들렀다가 일하고 있던 주임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니 혼자 살면서 숨어서 안 나오는데 어떻게 밖으로 이끌어 낼까 굉장히 고민스러워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중년이 넘어가면 대부분 혼자 있어도 활동적으로 잘 살아가는데 남자들은 숨는 편이라고 해요. ‘혼자 사는 남자들에게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웠죠. 여성 중창단 ‘해피러스’가 초대를 받아서 강연하는 곳에서 노래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이끌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센터에 자주 갔고, “마을공동체사업에 이 ‘나비남’을 가지고 지원을 해 봐라.” 해서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공동체사업에 관심이 있던 친구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해서 하게 됐죠.

2. 공모사업 이전의 공동체활동 경험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나요?

공모사업 이전에는 우리끼리 좋아서 연습하던 ‘해피러스’라는 4인조 여성 중창단 활동을 3년 정도 했어요. 노래가 좋아서 그냥 모여서 여성 중창단을 해 보자 그랬죠. 또 제가 워낙 세미나나 강연 같은 걸 듣는 걸 좋아했는데, 가 보면 ‘저런 데는 강연만 하지 말고 노래 하나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노래

하나 하면 딱딱한 분위기도 풀리고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었죠. 아는 강사가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한다기에 “그런 데는 노래가 있어야 돼.” 했더니 “그러면 노래 한번 해 볼래” 했어요. 거기서 노래를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2년 정도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정신없이 매일 불러 다녔어요. 나는 양천실버대학에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여기에 다니는 친구도 있어서 주 1회 정도, 기쁜 소식 양천교회에 모여서 연습하고 그랬죠. 지금도 우리 나비남들과 주 1회 정도는 꾸준히 만나서 연습하고 있어요.

3.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라는 사업명은 어떻게 짓게 됐나요?

이 사람들은 숨어서 잘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기가 많이 죽어 있고 소외되었다는 생각에 잘 활동들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펴게 할 수 있는 이름이 없을까 하다가 우리 ‘해피러스’끼리 지은 이름이에요. ‘날개를 활짝 펴서 자유롭게 한 번 날자.’ 그런 생각으로 지었죠. 요즘에는 1인 가족이 너무 많잖아요. 중년 여성들이나 청년들은 대부분 잘 살아가지만, 사업에 실패해서 이혼까지 하고 혼자 사는 남자들을 보면 안됐더라고요. 한때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을 일구고 가정의 기둥으로 살았을 텐데 안타까웠어요. 우리 팀의 독거남들이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는 독거남이 없나 살펴보게 됐고, 한번 활짝 기를 펴게 해 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남성 중창단 이름인 ‘도만 아는 중창단’은 ‘도만 아는 바리톤’이라는 노래에서 따온, 내가 만든 이름이에요. 원래 활동하던 ‘해피러스’와는 달리 남편과 주변 지인들로 구성된 6명의 남성 중창단이고, 남녀 10명이 혼성 중창단으로 활동할 때는 ‘해피 플러스’라는 이름을 써요.

4.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았나요? 그 당시의 어려움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우리끼리 했을 때는 노래가 너무 높으면 낮게 하고 화음을 넣는 정도로 바꿔 했지만 누구를 가르쳐 보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도 다들 그냥 한번 해 보자고 찬성해 줘서 고마웠어요. ‘도만 아는 중창단’은 남편들 하고 아는 사람, 해피러스가 아는 사람들 하고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나비남 사업’이라서 나비남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을지원활동가가 혼성 중창팀을 만들어서 일반인이나 나비남을 초청해서 보여 줘도 ‘나비남 사업’이라고 귀뜸을 해 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회원을 모았는데, 그중 두 명이 나비남이고, 그들이 이 모임을 제일 좋아해요. 오히려 어려움은 나한테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구나 남자들이잖아요. 여자들끼리 하다가 남자들이랑 같이 하려니까... 그런데 다행히 회원 남편이 2명 있어요. 남편들이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하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재미있어 하니까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었던 거 같아요.

5. 올해 진행한 사업 중 가장 의미 있거나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또 모임의 대표제안자로서 현재 우리 모임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난번에 페이퍼 문구에서 ‘속닥발표회’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할 프로그램을 짜다가 노래하고 강연 듣고 하는 것 말고 우리 팀은 우리 활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프로그램 중에 나비남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마을사업을 같이하면서 어땠는지 ‘소감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더 먼저는 센터에서 ‘열린 마을강좌’를 할 때 회원들에게 모임을 하면서 가장 기뻐던 일을 물어보니까 모임을 하는 자체가 너무 좋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노래를 하면서 노래는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6명 전부 다. 속닥발표회에서 체험발표를 할 때 ‘도만 아는 중창단’에서 노래를 하면서 음치라고 생각하고 표현은 못해도 너무 창피했는데, 다른 사람은 못하고 틀려도 한 번 웃고 끝나 버리더라고요. 자기는 노래를 못해서 가졌던 창피한 마음이 한참 갔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마음을 빨리빨리 바꿀 수 있었어요. 자기가 이 모임이 아니었으면 이 마음을 가질 수 없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들이 됐다고 소감을 발표하는데 ‘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변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실버대학에서 ‘힐링 콘서트’를 하고 나서 같이 밥을 먹었을 때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공연 잘하고 왜 그래요?” 하니까 “내일부터 살아갈 일이 막막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그 순간이 그 사람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런 걸 몰랐던 거죠. 연습하러 나오라고 그러면 늦은 시간에도 너무 잘 나와요. 시작 시간은 있어도 끝나는 시간은 없었죠. 다행히 실버대학 5층에는 아무도 없어서, 어느 때부터가는 거기서 마음껏 연습을 하는데 지난번 양천구 마을공동체한마당 행사를 준비할 때 연습이 안 돼서 새벽 한 시 반까지 매일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불평 한 마디 없이 해 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따라와 주니 너무 감사했죠. 우리 모임의 과제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와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원이 충원될 수 있게 알리는 홍보도 많이 하고 싶어요.

6. 공동체사업에서는 주민 참여가 중요할 텐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이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늘 어디에서 행사 있으니까 와.”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홍보방법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중창팀이잖아요. 다른 팀들은 서로 모여서 뭘 만들고 꽃 심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한 걸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보여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SNS 활용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공연을 누가 봐 주지 않아도 우리가 변해 가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7. 지원센터나 마을지원활동가 등 외부의 지원은 만족스러웠나요? 또 아쉬운 점이나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요?

처음 해 보는 거라서 아쉽다거나 보완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지원센터에서나 활동가들이 내가 필요한 부분은 잘 도와줬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많아서 간식비가 많이 필요했거든요. 처음에는 카드를 받아 놓고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비를 털어서 간식을 샀어요. 퇴근하고 오느라 밥을 못 먹고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좀 지나서 카드를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잘못 쓰고 있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고쳐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1년 해 보니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하고 있을 때 무조건 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잘해 줬고, 어쨌든 주어진 한도 내에서 써야 되는 거라서 맞춰서 썼죠. 또 궁금해하는 것도 잘 이끌어 줘서 아직까지 크게 부족한 점은 못 느꼈어요.

8. 내년에도 지원센터의 공동체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또 사업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고 싶기는 한데 두려움도 있어요. “아니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나비남 사업을 이걸로 끝내는 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계속하기를 원하거든요. 회원들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다른 일도 같이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회원들을 생각한다면 이걸로 다시 사업계획을 세우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설사 사업선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중창팀은 계속할 거예요. 그런데 노래만 하기보다는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을 더하고 싶은데,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음악회나 음악영화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9. 내가 바라고 만들어 가고픈 마을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을자치아카데미에서 성남 논골마을의 윤수진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한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 요즘은 다 문을 닫고 사는데, 문을 활짝 열고 산다는 그 동네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정말 저렇게 사는 동네가 있나 싶었지만, 60, 70년대에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들 문 열어 놓고, 마을에 잔치 있으면 왔다갔다 하면서 도와주곤 했는데, 요즘엔 너무 삭막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로가

인사하면서 지내는 마을이 되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만 가져도 좋을 거 같아요.

10. 공동체 활동 경험으로 내가 바뀐 점이 있다면(내게 미친 가장 큰 영향 한 가지) 무엇인가요?

개인적인 사고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고, 마인드 강의를 듣다 보니 보여지는 모습으로 남을 판단하던 나에서 저런 상황이면 나도 저럴 수밖에 없겠다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또 대표제안자로 활동하다 보니 골고루 다 살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리더의 역할을 하다 보니 나는 음치지만 노래를 함께할 때는 재미있게 잘하고 있고, 공연기획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대요. 노래를 못하는 내가 노래하는 자리에 항상 리더로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또 자격지심도 많고 자존심도 세서 남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던 내가 리더로 나선다는 것도 참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예요.



자연과 마을에서 별난 걸 다하는 별별마을학교

- 단체명/모임명 별별마을학교
-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 주요활동 1. 텃밭놀이-지양산 주말농장에서 작물 기르고 수확 후 밥상공동체 활동
 - 2. 동네놀이-어린이기자단활동, 마을축제 참여 등
 - 3. 가족놀이-가족소통 워크숍
- 주 활동지역 신정1동, 신정7동, 신정4동, 목2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2019년 별별마을학교에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참여했다.

새로운 가족들과 마을공동체 기본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가치와 방향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매주 마을과 텃밭에서 아이들의 밝은 모습과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져 행복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행복한 마을공동체로 한걸음 더 성장한 것 같아 보람됐다.

매주 금요일 동네놀이는 별별마을학교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와 주변을 차례대로 탐방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고 우리 마을을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사는 마을 곳곳을 함께 살펴보며 마을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안전하고 친근한 동네로 인식했다.

매주 토요일 텃밭놀이는 지양산 텃밭에서 모종을 심고, 작물을 키우며 수확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환경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활동이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직접 수확한 텃밭 농작물로 차린 공동밥상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체험했다.

향후 별별마을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로서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도전하며, 어른들은 이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마을 안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찾고, 나눔을 실천하며 자연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자연과 마을에서 별난 걸 다하는 별별마을학교-텃밭 수확

기록자 채형원

일시 2019년 11월 16일(토) 11:00-12:00

장소 신정주말농장

참석자 20여 명(대표제안자 이지영 가족 외 6가족)



2019년 11월 16일, 어제 비가 와서 오늘 텃밭 수확을 할지 말지 결정을 미루다가 밤늦게 하기로 했다. 아침에도 안개가 끼고 습도는 높지만 다행히 비는 그쳤다. 지양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 신정텃밭은 3년 전부터 운영을 시작해 지금은 8가족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도 가로세로 약 5m 정도의 텃밭을 부모와 아이들이 힘을 합쳐 무와 배추를 심고 가꾼 자연 놀이터이자 배움터로 마을활동의 모범이 되고 있다.

1시경 한 가족 두 가족, 신정텃밭에 모습을 나타냈다. 7가족이 나오기로 했기에 많이 모일 때까지 아이들은 텃밭을 뛰어다니며 놀고, 어머니는 전화 연락을 하며 준비물과 도구를 챙겼다. 5가족이 모이자 우선 무 뽑기를 하기로 했다. 흙을 파

헤치고 이렇게 뽑는다고 설명을 했지만, 아이들은 이리저리 흔들며 힘으로 뽑아 버렸다. 이상한 모양을 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크고 먹음직스럽게 자란 무들이었다.

아이들은 무를 뽑는 재미에 신이 나서 여기저기서 여러 개를 뽑았다. 그래도 늦게 올 가족을 생각해 두 개는 남겨 두고... 커다랗고 탐스러운 무는 쉽게 모습을 보여 주지는 않았다.

이리저리 흔들다가 힘껏 이영차 뽑아내곤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도구도 몇 개 없는데 땅이 아직은 비에 젖어 있어 손으로만 해도 뽑혀 나와서 다행이었다. 한 손에는 커다란 무를 들고, 다른 쪽엔 열무같이 조그만 무를 들고 이런 것도 있냐는 듯 "이것 보세요." 하며 의아해하는 아이도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파이팅을 외치고 옆에 있는 배추밭으로 갔다. 배추는 보기만 해도 크고 탐스러워 쉽게 아이들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밀등을 자르는 칼도 부족해 서로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힘으로 배추 하나를 뽑아 들었다. 물기 젖은 흙과 함께 커다란 배추가 뽑혀 나오자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배추를 붙잡고 흔들며 씨름을 했다.

배추는 커서 잡기도 힘들지만 무처럼 쉽게 뽑혀 나오지도 않았다. 겨우 뽑아 내기도 했지만 엄마들이 칼을 들고 다니며 밀등을 잘라 주곤 했다.

무도 열대여섯 개가 수확됐지만 배추는 양도 더 많고 부피도 커서 한 더미가 되었다. 엄마들이 걸절이용 잎사귀들은 뜯어 버리고 알배추를 만들기도 했다.

뒤늦게 왔지만 남겨 놓은 무를 뽑아 든 아이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한 해 고생한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파종한 면적은 별로 넓지 않았지만 무와 배추를 수

확하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양에 운반이 걱정됐다. 어제 내린 비로 길도 좋지 않아 밀차로 주차장까지 가기도 어렵고 해서 여기서 각자 나누어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다.

하나씩 들고 가려던 아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지자 이산 저산 뛰어다니며 놀러 나가고 엄마들이 무청을 잘라 내고 배추 이파리를 다듬고 분주해졌다. 무청을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잘 말려서 먹겠다고 챙기는 사람도 있었다.

그동안 고생한 가족과 친지들에게 나눠 줄 생각을 하며 무와 배추를 골고루 봉지에 담았다.

수확이 끝난 밭이 주변의 아직 가을걷이를 못한 곳에 비해 황해졌지만, 한 계절 모두가 땀 흘리며 고생한 보람을 거두어 가며 올 겨울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뿌듯해졌다.

점심시간이 되어 준비해 온 음식과 밭에서 방금 수확한 무와 배추를 맛있게 먹자고 하며 밭을 내려갔다. 내년에도 만나기를 기약하며...



/마을 인터뷰/

자연과 마을에서 별난 걸 다하는 별별마을학교

일시: 2019년 11월 19일(화) 16:30-17:30

장소: 목동서로 쿠스치노 커피숍

참여: 이지영

진행: 채형원



1. 마을공동체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전에 동키통키(동네가 키우고 소통하며 키운다)라는 공동육아를 3년 동안 했습니다. 아이가 5살 때부터 쪽 이어 오다가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별별마을학교를 소개시켜 줘서 시작된 거예요. 별별마을학교는 우리마을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작년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했어요. 그때 내가 참가는 안 했지만 바로 초창기 멤버인 거예요. 그때 별별마을학교를 만든 사람이 지금 센터장님이예요.

2. 제안사업명을 어떻게 짓게 됐나요?

왜 별별마을학교가 되었냐면 우리 모임 이름을 뭘로 지을까? 초창기 멤버 멘토 샘들이 상의하다가 박 센터장님이 종이에다 '☆☆' 뭐라고 할까 하다가 별별 있으니까 그럼 별별마을학교로 하자고 해 이름이 정해졌다고 해요. 별별이 별난 걸 다하는 별별마을학교가 된 거죠. 별별마을학교는 참 재밌는 게 위치가 어떤 한 정된 게 아니예요. 너무 신기한 게 학교가 다 다른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학교도 다르고 학년도 다 다른 아이들이 모이는 거지요. 목2동에서도 오고 신정1동, 신정7동, 신정4동에도... 근데 모이는 곳은 신정동에서, 페이퍼 문구에서 모이자 해서 모이는 거예요.

3. 맨 처음 별별마을학교 인원은 몇 명이었나요?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목동에 사교육이 너무나 심하잖아요. 사교육이 아닌 엄마, 아빠가 멘토가 되어 동네

를 알아 가고 마을 안에서 자유롭게 키워 보자는 취지에서 마을학교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걸 주축으로 애정을 가지고 마을학교를 정착시킨 사람이 박 센터장님이요, 이런 취지에서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엄마들이 모인 거죠.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어떤 규율이나 이런 거 없이, 자유롭게 한번 해 보자 해서 모였고, 지금은 예전에 공동육아 했던 친구들이나 지금 아이 학교에서 내가 이런 걸 한다는 걸 관심 있게 본 엄마들이 온다던가 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학교가... 그리고 가을 마을공동체마당 부스운영하며 캠페인과 홍보할 때 관심 있는 사람이 오거나 지인 소개로도 참여했어요. 지금은 8가족이 모이니까 한 20명이 좀 넘죠.

3년 전 시작했을 때는요?

그때도 10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서 빠지는 친구도 있고 이사나 개인사로 못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시콜콜어린이기자단이라고 동네를 정말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커피숍에 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거든요. 기자단이라고 해서 관심 있어 아이들을 보냈는데, 저희가 전문적으로 기사를 시키거나 기사를 쓰게 하지 않으니까 아 이곳이 아니다 해서 빠진 아이들도 있고... 정말 자유롭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어떤 규율대로 하지 않거든요. 빠지는 친구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새 친구들이 채워져 한두 번만 오면 금방 친해지고 마을학교를 좋아해 잘 적응하고 있어요.

더 늘릴 생각은요?

공동육아도 해 봤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건 되게 번영된 것 같지만 내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8가족이 서로를 깊이 알아 가며 끈끈한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별별마을학교는 우리들만의 것은 아니니까. 근데 10가구

마을 인터뷰

마을 인터뷰

정도 되면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텃밭이 한정되어 있어서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텃밭도 하지만 매주 금요일 모여서 활동을 하거든요. 지금도 아이들이 10명이 넘는데 더 많아지고 그러면 활동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아이들 하나하나의 개성과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한 모임의 구성원은 10명 전후가 좋은 거 같아요. 더 많아지면 또 다른 모임을 만들고 별별마을학교를 지역별로 확장해 나가고 싶은 생각이예요.

4. 마을학교 운영은 처음인가요? 애로점은 없나요?

작년부터 애로점은 많죠...

만나는 공간은 임대 운영하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신정1동에 박 센터장님이 본인의 공간을 오픈해 줬어요. 그렇게 거점형공간으로 2년을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거점형공간이 없어졌지요. 그때는 너무 좋았죠. 거점형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저희가 필요한 것 다 놓을 수 있고, 그곳에서의 추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아쉬움이 많지요. 지금은 페이퍼ل 문구. 거기가 열린 공간이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모였던 곳이어서 일단 거기서 모이긴 해요. 그래도 우리 공간이 있었다가 없어지니까 사실은 좀 많이 불편하죠. 거기 가면 그곳에 우리 공간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였어요. 지금은 매주 모임할 때 장소는 어디로 갈까? 어디를 예약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5. 지원센터나 마을활동가의 도움은 만족스러웠나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박진갑 선생님이 여기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센터장님으로 가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내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도 받죠. 감사한 일이지요.

오래전부터 마을활동을 했기 때문에, 센터로 바뀌면서 마을활동가들도 그렇고 너무나 활동을 잘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예전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저도 그때 새싹단계부터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했으니까요. 근데 올해 센터에서 하는 거 보고, 마을활동가들도 예전에 선생님들에 비해서 일도 많아졌지만 또 활동영역들이 넓어져 센터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6. 이전의 공동체활동은 어떻게 해 왔나요?

그때는 아이가 5살 병설유치원에 다녔는데 12시 반 일찍 하원을 하면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들 같이 가요. 그때 한 엄마가 우리 아이들 매일 이렇게 놀리니까 엄마들이랑 같이 놀게 해 보자 하고 공동육아를 제안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세 엄마가 자기 집을 오픈해 아이들을 한 7, 8명 데리고 와서 종이접기, 영어 노래수업 등을 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 했는데, 애들이 너무 재미있어 했어요. 어느 순간 아이들하고 놀아 주는 건 좋은데, 집을 오픈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마을에서 도와주는 데가 있다는 걸 듣고 마을 문을 두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런 지원도 안 받고 먼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새싹단계에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한번 해 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복지관 공간을 빌려서 매주 금요일에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엄마표놀이를 이어 나갔어요. 공동으로 하게 되면 즐겁고 재미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를 하다 보면 이게 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힘들어 있어요.



7. 그럼 공동체가 어떤 형태로 가면 좋을까요? 이상적인 마을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원을 가거나 맞벌이 부모 아이들은 말길 데가 마땅치 않아서 학원투어를 하는데, 마을에서 어머니 아빠가 멘토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죠.

공간 확보가 된다면 얼마든지 와서 케어하고, 학원, 학교가 아닌 자기를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 그런 것 그렇게 가는 것이 목표였죠.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려면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란 부분이 정말 큰 부분인데 이것 우리가 임대할 수도 없고... 그다음은 학원이나 공부에 올인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지만, 또 의외로 아이들을 자유롭게 놀리는 엄마들도 간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도 별별마을학교에 모이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런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정말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끝까지 기다려 주고 끝까지 노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뭔가 한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모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홍보도 홍보지만 공간이나 그걸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죠.



교육도 하고 마을활동가 같은 인원 지원도 필요한가요?

마을지원활동가들의 역량이, 하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활동가들을 더 많이 뽑아야죠.

그전과는 달리 마을활동가들이 하는 역할들을 또 많이 키워 줘서 엄청 좋아지고 체계가 잡혀져 간다는 게 눈에 보여요. 마을지원센터에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하다가 그만두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전문적이고 프라이드도 있고. 센터에서 책임을 지어 주면서 활동가들의 프라이드를 높여 주고 역량을 높여 주는 느낌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뭔가 잘 구축이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8. 내년에도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할 계획이 있나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아카데미, 마을공동체한마당 축제 참여 등 지원을 받으며 마을공동체를 이어 나가야지요.

제가 동키퉁키 했을 때나 지금이나 너무 서류 작업이나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 어느 순간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마을기록활동가가 있는 것처럼 따로 마을지원활동가 중에서 몇 사람이 그런 행정처리를 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도 힘든데 나중에 행정처리까지 해야 하니 개인적으로 시간 소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정산워크숍은 어땠나요?

이번에는 안 갔는데 중간워크숍 갔을 때는 도움이 되었죠. 무조건 중간에 한 번은 중간정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별별마을학교 대표로서 어려운 점, 힘든 일은 없나요?

예전에 했던 것과 비교를 하게 되면, 공동육아 했을 때보다는 지금은 힘들지 않은 게, 별별마을학교는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있고 함께 회의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어서 일을 많이 한다거나 대표제안자 3명만 일을 한 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요. 올해 처음 2학기에 온 사람들은 여기 적응해야 되잖아요. 6개월 또는 1년, 같이 적응할 기간을 둔 후로는 그들도 똑같이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은 8명 중에서 3명이 신입이에요. 나머지 5명은 모두 별별마을학교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힘들지 않아요.

앞으로 별별마을학교 운영계획은요?

처음에는 토요일만 했고, 그다음엔 금요일, 토요일 열었잖아요. 사실 조금 더해서 수요일, 월요일도 모여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여길 들어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미있어 하니깐요.

그리고 엄마들은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그냥 멘토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고, 아이들

하나하나의 개성을 인정하며 아이들 얘기를 다 들어 주지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자유를 느낍니다.

내년의 운영은 함께하는 멘토 샘들과 회의를 통해서 어떤 규칙, 규격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런 운영이 될 거 같아요.

10. 개인적으로 공동체생활을 하며 바뀐 점이 있다면요?

예전에는 아이를 낳고 가족 중심의 힘든 육아를 했다면, 공동육아 때부터 지금까지 마을 단위로 생활하게 된 거 같아요. 마을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아이의 의사와는 반대로 남이 세운 기준을 쫓아갔을 거예요.

마을활동을 하면서 같은 생각을 하는 엄마들에게 힘을 얻어 아이를 키울 수 있었고, 아이도 혼자지만 전혀 혼자인 것 같지 않게 위아래 위계도 알고 안정감을 갖게 되었어요. 바뀐 점이라기보다 공동체와 같이 아이가 그렇게 성장했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아이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죠. 공동육아는 같은 나이 또래인데 여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뭐가 될까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예요. 어린아이는 윗사람에게 배우고, 위 애들은 아래 아이들을 이끌어 주고 리더십을 배워요. 서로 같이 어울려서 전 학년이 있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마을활동 할 때 상처도 많이 받고 누군가에 상처도 줄 수 있고 깨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꼭 본인의 탓은 아니니 다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생각이 들고, 너무 그런 거에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년 장애여성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단체명/모임명 깨어 있는 장애여성(깨여성)
-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 주요활동 1. 중년의 장애여성들이 모여서 인권 감수성을 높임-열린인권교육, 장애여성인권교육
2. 마을 안에서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공유하고, 누림-비누만들기, 식물원 나들이, 수다 떨기
3. 함께 살아가는 마을살이를 해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활동-유서 쓰기, 스토리텔링, 마을공동체 축제 참여
- 주 활동지역 양천구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장애인의 고령화로 중년 및 노년에 접어들기 시작한 장애여성들이 모여 서로의 환경과 건강을 염려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고민을 나눴다.

함께 서로의 삶도 이야기하고, 재능도 나누며 마을 안에서 함께하는 미래의 삶도 교류했다. 비누 만들기, 식물원 탐방, 인권교육, 유서 써 보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스토리텔링과 공동체축제도 함께 참여했다.

비누 만들기로 깔깔거리며 재능을 나누고, 한아름 비누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가며 즐거워했다. 유서 쓰기에 는 의외로 긍정적이며, 죽음에 대해 무겁지 않게 받아들이는 감성들이 있었다. 자연 안에서 함께 나누는 식사와 교감이 마음을 풍부하게 해 힐링 타임이 되기도 했다.

장애인으로서는 인권 감수성 향상의 기회가 됐던 교육은 보람됐고, 스토리텔링 과정으로 장애로 인한 삶의 조각들을 서로 보듬어 주기도 했다.



양천모임, 나눔 바느질 이야기



■ 단체명/모임명 핸디언스

■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 주요활동 1. 빈둥지증후군, 경력단절 중년 여성들이 바느질을 연결고리로 생활용품과 가방 만들기를 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또한 자기계발을 통해 중, 노년기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꿈을 키우며 사회적기업을 만들 준비하기
- 2. 도서관 이용자들, 지역 주민들과 간단한 생활용품 제작활동을 함께함으로써 다양한 공동체문화를 만들고 타모임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마을공동체 사업공간으로 거점화하기
- 3. 신정1동 마을축제, 마을공동체한마당 등 행사와 축제 시 부영이인형 만들기 부스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수익금 등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하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기
- 4. 어린이집을 방문해 함께 인형 만들기를 하면서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활동 실천하기

■ 주 활동지역 신정1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2018년 신정1동 그린나래 도서관 이용자 중 인형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앞새인형(푸르름과 시원함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인형을 만드는 모임)'이라는 이웃만들기사업을 하던 중 활동의 지속성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회원들의 간절한 소망이 모여 2019년에는 우리마을지원사업인 '양천모임, 나눔 바느질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다.

기존 회원들의 입소문 덕분에 자연스레 신규 회원을 유치해 빈둥지증후군, 경력단절이었던 중년 여성들이 바느질을 연결고리로 친목을 다져 나가며 친환경 생활소품과 가방 만들기를 통해 적성에 맞는 자기 일을 찾는 계기가 됐다.

또한, 지역주민들 간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통로를 찾게 되었다. 바느질 모임을 통해 지역 주민과 연대감을 쌓고자 신정1동 마을축제 및 마을공동체한마당과 각종 행사에 쓸 부영이인형 500여 개를 사업 초(5월-9월)까 지 하나하나 재단하고 마름, 바느질, 눈 그리고 오리기, 패키지 포장 등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모여 틈틈이 작업함으로써 모든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그중 신정1동 마을축제 때 부영이인형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해 수익금 101,000원은 불우이웃에 기부했다.)

활동하던 중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회원 모두의 의견일치로 더욱 돈독히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고, 향후 중·노년을 대비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친구와 이웃을 만들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자 한다.



/마을 인터뷰/ 양천모임, 나눔 바느질 이야기

일시: 2019년 11월 9일(토) 11:00

장소: 신정1동 그린나래도서관

참여: 정귀임 대표제안자

진행: 차은경



1.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동네에서 바느질을 함께하면서 자녀들 이야기도 하고 남편 흥도 보고 자랑도 하면서 지내 왔는데, 이런 마을 모임을 지원해 주는 마을사업이 있다고 해서 재료비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2.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사업명이 '양천모임, 나눔 바느질 이야기'인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양천모임, 나눔과 바느질은 말 그대로예요. 양천에 사는 여성들이 삶을 나누며 바느질을 한다, 서로 만든 것을 공유하면서 친목을 다진다는 뜻이죠. 재료비를 마을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쓴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라고 마을사업에 대해 홍보를 하게 된답니다. 모임명은 '핸디언스'인데,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낸다는 뜻이지요.

3. 마을사업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았나요?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면서 모임이 시작됐고, 지난해에 이웃만들기사업을 하게 되면서 회원이 늘어났어요.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8명 정도이고,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3, 4명 정도 됩니다. 몇 번 빠지면 미안해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을사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참여 의사를 묻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미 만들어진 모임에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

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엔 서먹서먹하고 전문적으로 바느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서로 돕지 않으면 만들기가 어렵지요. 그렇게 서로 도와 가면서 만들다 보니 친해진 거예요. 만들다 보면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처지는 사람도 있는데 서로 공유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것이 의사소통이 되어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 친해졌어요. 재료 사러 갈 때도 같이 갑니다. 같이 고르는 안목이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만든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주변에서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어디에서 배웠느냐 물어오고, 우리끼리 서로 서로 도와가며 한다고 하면 많이 놀라며 관심을 기울인답니다.

4.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 참여가 관건인데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주민 참여를 위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도서관 어린이들에게 미리 공지해서 부엉이체험을 주로 했어요. 어린이집을 방문하기도 했고, 10월 양천구 마을공동체한마당에서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 부엉이가 작아도 손이 많이 갑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부엉이인형처럼 조그만 것을 만드니 아주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천을 재단하고 오리고 눈알이나 링 같은 소품들을 고르는 밀작업을 해서 아이들이 하나씩 만들 수 있게 다 포장을 해야 해요. 올해는 500개가 넘게 만들었어요.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은 40-50개 정도라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만들었어요.

5. 지원센터나 마을활동가 등 외부의 지원은 만족스럽나요?

지금으로선 부족함이 없이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신청했을 때 심사위원들의 바느질에 대한 인식이 아쉬웠어요. 재료가 얼마 안 든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지원비를 200만 원 받았는데, 사실 재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특히 가방 같은 경우에는 천보다는 부재료가 비싸요. 가죽 끈이라든가, 금속 부재료 같은 것들이. 심사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 재료를 쓸 때 엄청 신경이 쓰인답니다. 알뜰하게 쓰려고 애썼지요. 지원센터는 우리를 지원해 주려고 많이 애씁니다. 한마당 잔치 때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될 거 같았어요. 이번에 마을공동체한마당 현수막을 만들 때 모임에서 그 행사 지원도 했지요. 바느질을 해서 밤새 만들었어요.

6. 개인적으로 바라는 공동체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알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마을공동체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업을 한다는 건 더욱 모르고요. 사업이라고 하니 좀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도 같아요. 가방 만드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학원에서 배우거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줄 알고 있더라구요. 우리끼리 마을공동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게 뭐냐고 궁금하게 여기며 물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에만 몰두하는데 마을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좀 알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파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은 있지만 교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을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에서 서로 어울려 살면 좋겠어요.

7. 내년에도 마을공동체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나요?

할 수 있다면 규모를 키워서 해 보고 싶어요. 지금 주변에 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서 규모가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더 다른 재료를 가지고 해 보고 싶고, 버리는 것들을 활용한 재활용활동을 해 보고도 싶어요. 사실 자꾸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한 회원이 가방을 버리려고 보니까 거기서 쓸 만한 부자재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챙겨 두었다고 했어요. 올해 목표는 회원 한 사람당 가방 3개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목표 달성을 했고 남은 천으로 지갑이나 일회용품 컵 홀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8. 공모사업 이전에 공동체활동 경험은 있었나요?

공동체활동은 없었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 동네에서 오랫동안 운동모임에 참여했어요.

9. 모임의 대표로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한다면요?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회원들과 함께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재료로 뭘 해야 할지도 논의해야 하는데, 내년 사업연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회원들과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설령 공모사업에 안 되도 자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는 있어요. 올해 사업은 종료돼 재료를 더 쓸 수는 없지만 우리끼리 버려지는 천을 활용해 만들어 가기로 했어요. 회원들이 다 의견을 내어 같이 공유하면서 이어 나가려고 해요. 여태까지는 대표제안자들이 지원비로 시장조사도 하고 재료도 사고 같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지금부터는 회원들이 의견을 내어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모임을 이끌어 가면서 어려움이라면 들락날락하는 회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몇 번 빠지면 미안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너무 앞서 나가고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어 회원들과 불협화음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다른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했지요. 그래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활동을 안 하기로 정리했어요.



10. 공동체활동이 내게 끼친 영향이 있다면요?

어느 모임에서나 총무 역할을 해 왔어요. 리더가 될 생각은 없었는데 해 보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협조해 줍니다. 누구 한 사람이 드러나게 앞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됩니다. 누구나 다 대표가 될 수 있고 어느 한 사람이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 기댈 수 있는 모임이기 때문이지요.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면서 주민자치회나 마을 모임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생기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조금씩 알아 가는 상황입니다. 기회가 생기면 주민자치나 공동체 관련 모임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앞으로 공동체활동이 뿌리를 내리겠구나 하는 생각에 일찍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야구

- 단체명/모임명 대디야구단(신은대디)
-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 주요활동 1. 아이들에게 야구 가르쳐 주기
2.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하기
- 주 활동지역 신정3동 안양천 야구장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신정이펜하우스에 사는 사람들 중 함께 야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야구단을 만들었다. 다행히도 그 중에는 다른 곳에서 사회인 야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초반에 쉽사리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그렇게 아빠들끼리 모여 야구를 하다 보니 야구 연습 또는 경기를 진행한 뒤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 먹고, 집에서 욕을 먹고, 아이들은 덩달아 아빠를 왕따시키던 중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 보자!”라는 의견에 너도나도 찬성했다. 이전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들끼리도 서로 알게 되고, 이제는 멀리 사는 가족보다도 훨씬 친밀한 사이가 되어 떨레야 떨 수 없는 사이로 발전했다.

물론 야구가 좀 위험한 운동이다 보니 주로 아빠들끼리 하고는 있지만, 1년에 몇 번씩은 아이들과 함께 캐치볼도 하고, 아빠들 야구 응원도 하고, 교외로 나가 시설 좋은 야구장에서 어린이용 소프트볼로 함께 경기도 해 봤다. 그래서 예전보다 자녀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고, 아빠가 하는 취미생활에 아이들이 관심도 가지게 되어 너무 좋다.

우리들의 바람이 있다면 10년 후 아이들이 성장해 함께 야구팀을 만들어 멋진 경기를 하는 것이다.



드린학습자 워킹그룹

- 단체명/모임명 맘미아
-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 주요활동
 1. 북 세어링-책을 통해 지식을 확대하고 생각을 공유, 현실적 고민상담, 자녀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2. 힘내라, 엄마-부모교육을 통해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제시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변화를 제시
 3. 홈 커밍데이-지역 주민과 맘미아를 응원해 준 사람들을 초대해 그동안의 활동과 성장과정을 알리고 서로를 격려
- 주 활동지역 신정4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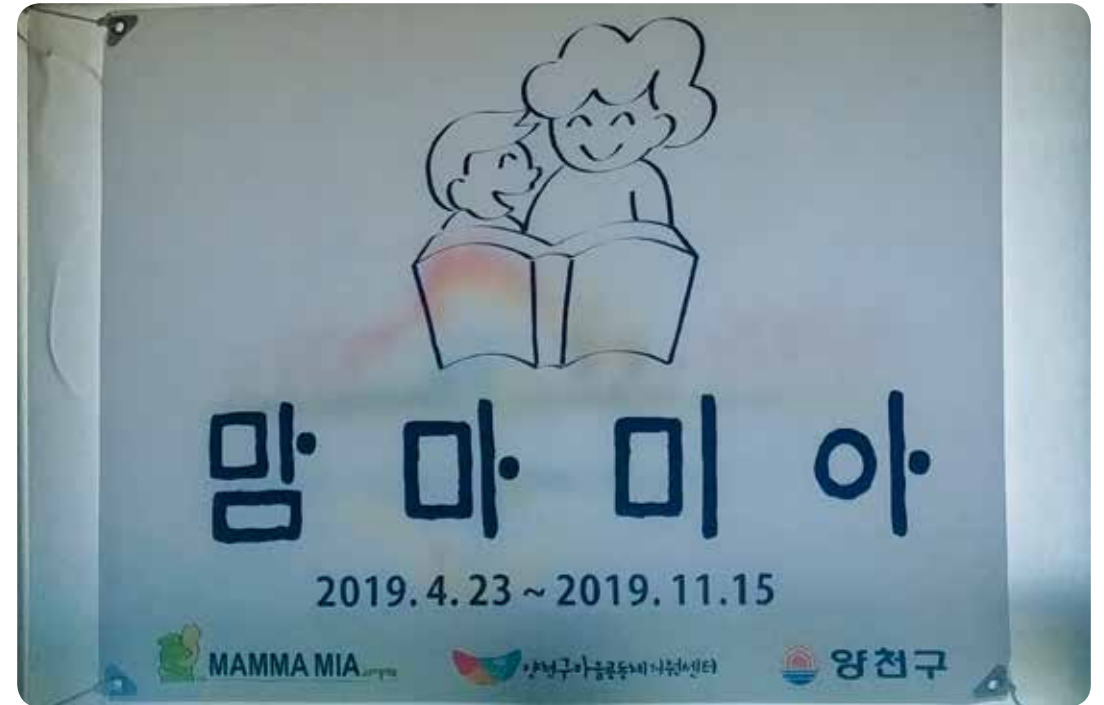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1년도에 시작한 부모교육 '나를 찾는 맘미아'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녀와의 관계개선과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법 등을 교육받으며 만남을 시작했다.

북 세어링과 육아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양육에 관한 고민과 고통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특별한 육아공동체를 만들어 왔다.

심리상담사와 같은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듣고 상담하며 상황에 맞는 개별코칭을 받아 부모 실천역량을 향상했다.

기존에 진행해 오던 맘미아의 방향성이 다양해졌고 '힘내라, 엄마'를 통해 기존의 활동에서 확장해 지역 사회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이 이 사업 진행 중에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다.(공청회 등 의견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우리들의 경험치를 두었다.)

양천구 외의 지역에서도 우리 사례를 보고 비슷한 자조 모임이 생겨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 또한 이 사업의 성과이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느린학습자 워킹그룹-회복탄력성 북 세어링

기록자 이경미

일시 2019년 8월 22일(목) 10:00-12:00

장소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달빛교실

참석자 김혜숙 대표 외 5명

느린학습자 워킹그룹 '맘마미야'는 2011년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작한 부모교육 '나를 찾는 맘마미야'에서 시작됐다.

2016년에 프로그램이 끝난 후 경계성 자녀, ADHD 자녀 등 많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이끌어 왔으며, 2019년에는 양천구 마을공동체통합공모사업 중 '우리마을지원사업'에 선정돼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회복탄력성 북 세어링'이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골라 읽으면서 아이들과 스스로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위로받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윤우상 씨가 지은 《엄마 심리 수업》이라는 책을 골랐는데, 독서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이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하고 읽어 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모임을 진행했다.

차례대로 범위 안에 있는 책 내용 중 공감을 느낀 구절이나 깨달음을 얻은 구절,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경험들을 얘기하면 그룹원들이 자기 의견이나 경험을 보탬으로써 밀도 있는 이야기들을 나눴다.

구성원의 바뀜은 있었지만 오랜 시간 모임을 이끌어 온 팀답게 깊이 있는 내용이 오고갔고, 솔직한 조언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또 필요하다면 연관된 '연구결과'와 '심리검사지'도 능숙하게 활용하는 모습에서 그간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얼마나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 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엄마들이 이 책 1부에 등장하는 '엄마의 색안경'이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나는 아이들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기다려 줬는지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또 책에 나오는 엄마들의 유형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엄마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내 욕심이나 양육방식이 아이에게 미쳤을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다.

책 내용을 이야기하는 중간중간 연관되는 생활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는데 대부분 아이가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이 훨씬 커진다는 사실에 공감을 표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친구들과의 관계, 모둠활동 분배, 체육시간이나 놀이시간 참여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럴 때 엄마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했다.

이때 선배 엄마가 전해 주는 조언은 큰 힘과 위로가 됐다. 이미 이런 시기를 지나왔지만 그 시기 내가 놓쳤던 부분과 지금 다시 생각해 볼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조언을 들으며 가슴 깊이 새기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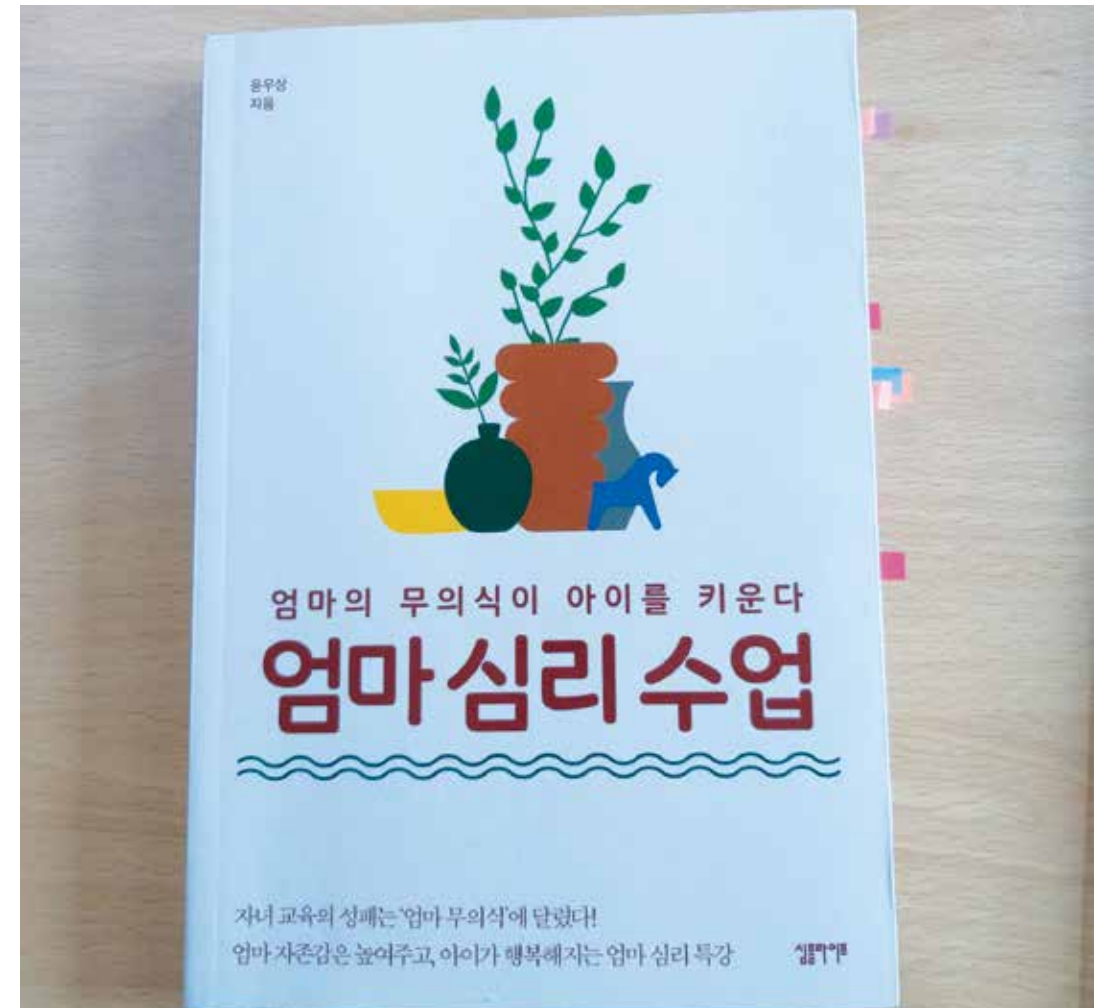
또 공동양육자인 아빠들이 아이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책을 읽다가 필요한 부분을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니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초등학교 입학 후 어려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심리상담에 참여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맘마미야'는 북 세어링 이전에도 수차례의 부모교육, 개인적인 심리상담과 개별코칭 등을 받아 오면서 많은 경험과 역량을 쌓아 왔다. 그런 만큼 지역 안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도와 함께하고픈 마음으로 '열린 강좌'를 주관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맘마미야'는 앞으로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계성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이웃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맘마미야'의 구성원들은 이 모임이 자녀를 이해하고 나를 바꿔 함께 성장하는 모임으로 발전해 가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 길 위에서 양천의 마을공동체가 함께 걸으며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본다.



/마을 인터뷰/ 느린학습자 워킹그룹

일시: 2019년 9월 26일(목) 10:00-12:00

장소: 신정종합사회복지관 4층 별빛교실

참여: 길혜숙, 노형숙(이하 길, 노로 표기)

진행: 이경미



1.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길 2011년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맘마미아'라는 부모교육 강의를 했는데, 참여하다 보니 너무 좋았어요. 2016년 자조 모임을 만들었는데, 서로 마음이 맞고 자녀와의 갈등이나 자녀교육에 있어서 힘든 점을 나눴어요. 또 북 세어링을 통해서 책을 정해서 함께 읽으면서 공감하고 피드백을 주면서 매주 만났어요.

노 자조 모임을 해 오다가 복지사를 통해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 듣게 됐어요.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도 알고요. 저희가 자조 모임이다 보니까 지원이 없어서 어려웠어요. 복지관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기는 했지만 부족해서 저희가 듣고 싶은 강의나 유익한 강의를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좀더 깊이 있게 접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지원하게 됐어요.

2. 공모사업 이전의 공동체활동 경험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나요?

길 '맘마미아'라는 부모교육은 복지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건데, 9-12회 정도의 강의를 매주 한 번씩 3개월 정도의 프로젝트로 진행하던 거예요.

노 그러다가 부모교육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인 2016년부터 자조 모임의 형태로 매주 모였어요.

길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의 맘마미아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은 해피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요. 이어서 하는 거지만 대상자도 조금 바뀐 거죠. 맘마미아 활동에 이어서 자조 모임을 하다가 공동체사업으로 연결하게 된 거죠.

3. 모임의 이름인 맘마미아는 어떻게 짓게 됐나요?

노 그동안 해오던 자조 모임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맘마미아라고 정했어요.

길 부제가 '나를 찾아 떠나는'인데, 의미가 있잖아요. 나를 좀더 알고 싶어서 그대로 따오게 됐어요.

노 맘마미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조 모임이니깐 그대로 따른 거죠. 부제가 '나를 찾아 떠나는'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엄마들의 마음을 다독이자는 취지였어요. 아이들의 육아로 힘든 엄마들이 많아서 이런 활동을 통해 마음이 많이 다독여지고 지금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쪽으로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 갔죠.

4.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았나요? 또 그 당시의 어려움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길 그동안 맘마미아 활동으로 모인 멤버들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강의를 같이 듣던 사람들도 있지만, 새로 온 사람들도 있는데 복지관에서 중간 역할을 해 줬어요. 수업하는 친구들의 엄마들에게 이런 모임이 있으니 들어 보는 게 어떨겠냐고 하면 항상 좋다고 했죠. 연결 연결해서 온 사람도 있고, 다녔는데 하다 보니 너무 좋다고 데려온 사람도 있고...

노 처음 온 사람이 복지관에서 얘기해 왔는데, 와서 들어 보니 너무 좋고 그래서 같이 활동하던 사람이 온 경우도 있고...

5. 올해 진행한 사업 중 가장 의미 있거나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요? 또 모임의 대표제안자로서 현재 모임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노 ‘힘내라, 엄마!’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수동적으로 제공되는 강의를 찾아가서 들은 게 아니라 마을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직접 강사도 섭외하고 원하는 강의도 듣고, 심도 있게 개별적인 강의도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매우 좋았어요.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강의가 이런 건데 이런 강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직접 모시고 와서 들었던 게 좋았어요. 열린 마을강좌나 북 세어링과는 다르게 자부담까지 넣어서 7회에 걸쳐 길게 해서 원하는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었어요.

남은 사업 중 의미 있는 게 ‘홈 커밍데이’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부모 위주였다면, 자녀들에게 공금했던 점과 자녀들을 위한 것들을 많이 접했는데 마지막에 자녀들을 다 모아서 아이들과 놀고 축제를 벌이면서 같이 놀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6. 공동체 사업에서는 주민 참여가 중요할 텐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이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길 북 세어링 형태로 모임을 진행할 때는 제한적이잖아요? 너무 인원이 많아지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공감도 해 주고 피드백도 줘야 되는데, 두 시간 반 내지는 세 시간으로는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으니 똑같은 형태로 해 보라고 권하기도 하는데, 여러 명이 모여야 되니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 그리고 저희 사업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러 오거나 이런 모임이 좋으니까 다른 구에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야지 하고 벤치마킹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면 저희는 모든 자료를 다 보여 주니까 알음알음으로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사업을 시작하면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확장이 된 거죠. 처음에 맘마미아를 시작했던 인원 말고, 새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큰 수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기여는 아니지만 또 저희가 양천구에서 하는 의제발굴 같은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설명을 하거나 해서 채택이 된 적도 있었어요. 모임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도 저희의 힘이 실려서 활동들이 확장되어 가는 것도 활동이 넓어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양천구나 복지관 어디에서 하는 행사에 가서 설명을 함으로써 힘을 실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7. 지원센터나 마을지원활동가 등 외부의 지원은 만족스럽나요? 또 아쉬운 점이나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요?

노 처음에는 설명을 듣고 형식에 맞춰 사업제안서를 넣었지만, 제안서대로만 사업을 하기는 어려웠던 거 같아요. 서류도 다시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좀더 융통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을사업에 다과비, 강사비 등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사업의 특성상 레크리에이션 강사 한 번 부르면 될 만한 사업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강의를 많이 듣고 개인 코칭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강의료로 책정된 금액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다과비는 줄여도 되는데 정해진 금액을 써야 해서, 필요한 지출은 사비를 내서 하고 있어요. 물론 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금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길 또 처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꼼꼼하게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막상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지역을 담당해야 해서 바쁜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처음에는 좀 더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8. 내년에도 지원센터의 공동체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나요? 또 사업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지 못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예요. 어쨌든 복 세어링은 계속할 생각이예요. 남은 시간 동안 같이 얘기해서 결정해야죠.

9. 내가 바라고 만들어 가고픈 마을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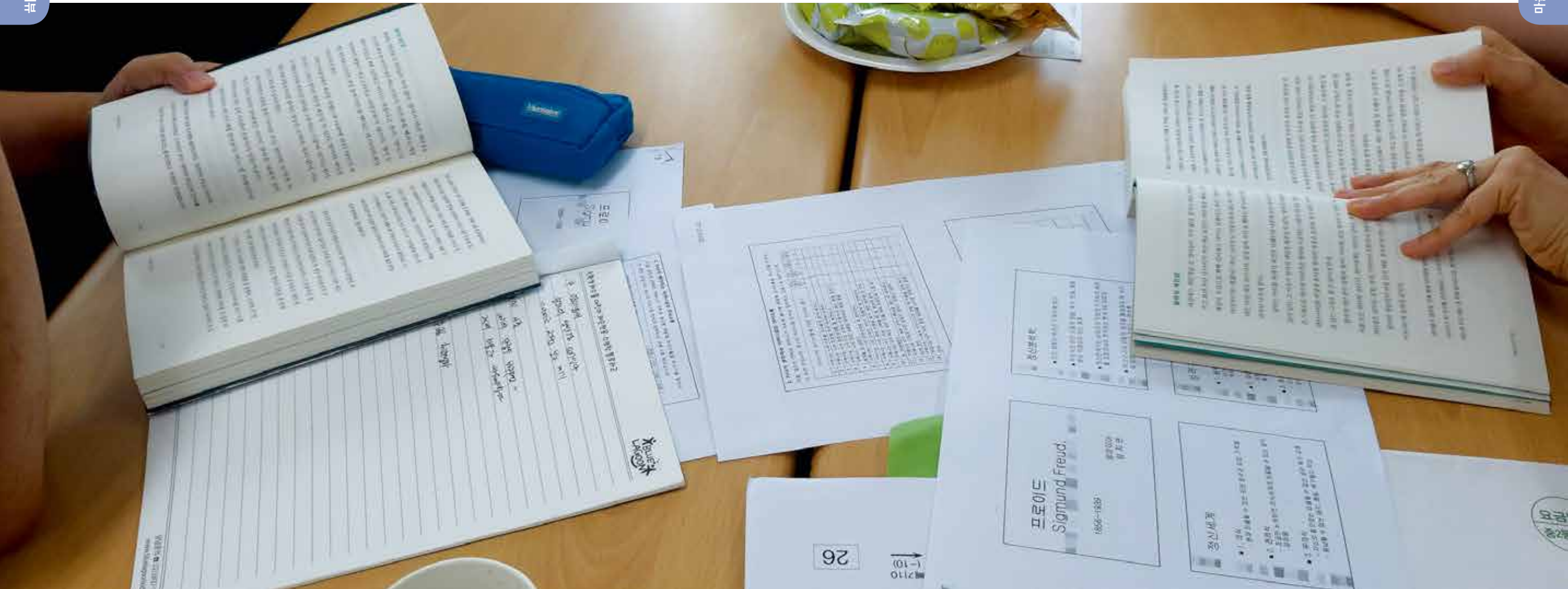
길 저희 사업이 워낙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서로 간에 닫혀 있는 현실이고 집에만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복지관을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홍보가 잘된다면 더 많이 함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노 집에서 혼자만 머리 싸매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와서 경험하면서 다름도 알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 걸 여러 사람과 같이 알아 갔으면 좋겠어요.

10. 공동체활동 경험으로 내가 바뀐 점이 있다면(내게 미친 가장 큰 영향 한 가지) 무엇인가요?

노 항상 개인으로만 있다가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집단으로 영역이 확대되면서 집단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소속감도 커지고, 잡다한 일을 처리하면서 나름 재미도 있었어요. 안 하던 일도 해 보니까 흥미도 있었고, 사업이 마무리돼 가니까 보람도 느껴지고, 모임도 뭔가 더 확장된 느낌도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됐어요.

길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서 좋았고, '나를 찾아가는 맘마미야'라는 모임 이름처럼 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니까 남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웃 할아버지께서 잘 쓰러지시는데,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게 됐어요. 이런 모임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해동지]

해맞이마을은 통장들이 지킨다

- 단체명/모임명 [해동모] 해맞이마을 통장 모임
- 공모사업 유형 마을길라잡이
- 주요활동 1. 마을 안내 및 전입 세대 환영
 - 2. 함께하는 영양반찬 만들기
 - 3. 문화가 흐르는 해맞이마을
- 주 활동지역 신월7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이번 사업을 진행하며 같이 일하는 통장님들과 화합도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사업을 통해서도 즐기고 주민들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함께하는 영양반찬 만들기는 통장님들과 반찬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갈비탕, 장조림 등 영양반찬을 만들고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는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전입자 환영회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모임 시간과 장소 정하기 등 힘든 점도 있었다. 하지만 환영회에 모인 전입자들이 즐거워하고 사업을 진행한 통장들과도 어울려 하나가 되어 즐거웠다.

문화행사를 통해서도 사업을 진행한 통장들과 주민들이 함께 공통취미를 발견하고 더 깊이 사귀게 돼 뜻깊었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해동지]해맞이마을은 통장들이 지킨다-마을교육

기록자 이경미

일시 2019년 11월 6일(수) 15:00-16:00

장소 신월7동주민센터

참석자 마을사업지기 22명



11월 6일 수요일 오후, 신월7동의 통장들이 주민센터에 모여 마을공동체교육을 받았다. 오전에는 새로 이사 온 전입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살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간단한 소식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총 4회 차로 계획한 마을사업 중 세 번째 시간이었다. 1, 2회 차에는 장조림과 갈비탕을 만들어서 통 내에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전달했고, 마지막 4회 차는 그동안 마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통장들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은 마을교육에 앞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상대방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로의 얼굴을 그려 보는 시간을 가졌다. 종이에서 손을 떼지 않고 한 번에

얼굴을 그리며 서로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웃음꽃이 피어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하는 강사의 질문이 있었다. 10통 통장인 강순금 씨는 몸의 힘듦보다는 머리의 비움이 좋고 새로운 경험으로 호기심이 충족되며 서울 이장이 됐다고 좋아하는 어머니의 자부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2통 통장인 박은숙 씨는 "누군가 하겠지." 하며 미루기보다 내가 먼저 돕고자 나섰다"고 한다. 내가 나서니 마을이 안녕해지고 이웃들과의 만남으로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낀다고 했다.



다음으로 마을공동체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어떤 성장과정을 거치는지를 중심으로 강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마을공동체사업은 공동육아, 마을카페, 마을생협, 마을기업, 마을미디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마을사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지역 사회와 국가가 세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게 통장들의 생각이었는데, 법적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을 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살펴 온 경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대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강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법은 되돌이켜 적용해 봐도 여전히 세 모녀의 어려움은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과정에서 마을 안에서의 의미 있는 관계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청년실업, 학교폭력, 이기주의와 편견, 고령화 시대의 외로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튼튼히 쌓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 차원에서는 '찾아가는 동사무소'와 같은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 마을 안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튼튼히 쌓아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을공동체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전적인 의미로 도시에서의 마을이란 걸어서 10분 내지는 15분 안의 생활 단위로 '동'보다는 작은 단위이며 '마살'이 어원이라고 한다. 시골에서는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일과 놀이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시에서의 마을은 시골동네와는 달리 나와 관심사가 통하고 잘 맞는 사람들과 노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웃만들기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마을사업으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사업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날 수업은 마을 안에서 운동이나 취미, 나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만남을 지원해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함께 생각해 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우리가 마을 해결사

마을해결책/주민모임연합사업/모의주민자치회

마을해결책

가즈아! 2019 양천 피플퍼스트대회/다문화와 함께하는 당당모임

주민모임연합사업

함께살자냥

모의주민자치회

신월4동 모의주민자치회/함께 만들어 가요~ 행복한 우리 마을



가즈아! 2019 양천 피플퍼스트대회

- 단체명/모임명 우리들의 모임
- 공모사업 유형 마을해결책
- 주요활동 1. 발달장애인 서포터교육
 2. 조직위 모임
 3. 양천 피플퍼스트 야외 실천활동
 4. 조직위 워크숍
 5. 양천 피플퍼스트대회
- 주 활동지역 양천구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발달장애에 대해 모르고 있어 본의 아니게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장애인 스스로 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더 좋은 인식 개선은 없을 것이며 당사자들이 움직일 때 효과성은 극대화될 것이다.

우리들의 모임에서는 양천지역에서 피플퍼스트 활동을 통해 먼저 발달장애인들을 조력할 수 있는 서포터를 양성하고 자신들뿐 아니라 마을 주민에게 발달장애를 알릴 수 있도록 야외 실천활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을 해 양천구 내 발달장애인 옹호조직(발달장애인운동) 발족과 활성화를 하는 계기가 됐고, 발달장애인 리더를 발굴 및 양성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서포터 조직을 만들어 내는 데에 기여했다.

발달장애인 하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주민들과 걷기 모임을 하며 공공시설을 이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 외부활동과 사람과 대면하는 두려움을 줄임으로써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게 했다.

양천 피플퍼스트대회에서 '취업'을 주제로 발표를 해 발달장애인들도 주민들과 똑같은 취업난에 따른 구직단념, 취업과정에서 겪는 차별, 임금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리고,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면해 있는 사회문제를 상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가즈아! 2019 양천 피플퍼스트대회-양천 피플퍼스트대회

기록자 차은경

일시 2019년 10월 2일(수) 14:00-17:00

장소 목동 방송회관 2층 회견장

참석자 총 130명 이상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10월 2일 오후,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2층 회견장에서 제2회 양천 피플퍼스트대회가 열렸다.

‘가즈아! 2019 양천 피플퍼스트대회(이하 피플퍼스트)’는 올해 마을의제 실현사업으로 선정돼 장애인 문제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풀어 가고 있는데, 이날 행사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함께 자리를 해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피플퍼스트는 1974년 미국의 한 당사자가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t.(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라는 말에서 시작돼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를 찾는 운동으로 확대돼 갔다.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 활동이 시작됐으며 양천구는 2018년 제1회 양천 피플퍼스트 대회를 개최했고, 올해 제2회를 맞이했다.

대회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피플퍼스트 대회의 준비과정 경과보고가 이어졌고, 4명의 연사가 ‘직업’으로 주제 발표를 가졌다.



조용태 (우리들의 모임): 취업에 대한 나의 희망

일을 하고 싶지만 취업하기가 어렵다. 공공근로도 해 보고 아파트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꽃을 심는 일도 했지만 지속적이지 못했다. 4년간 간병해 드렸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 혼자 살게 될 것이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그래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립을 꿈꾸고 있다. 연극과 미술을 배우고 있는데 장애인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피플퍼스트를 통해 인권에 대해 많이 배웠다.

김유성(우리들의 모임): 난 자립생활센터 소장이 되고 싶어요

나의 희망은 무지개자립생활센터를 만들어 소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직원으로 뽑고 직원복지가 최고인 센터를 만들고 싶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싶고 비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싶다. 장애인들이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도 주선하는 등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소장님이 되는 것이 꿈이다.

최장혁(우리들의 모임): 내 꿈은 바리스타

하고 싶은 직업은 도서관 사서와 바리스타다. 책을 좋아하고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바리스타교육은 2016년부터 받았는데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카페모카를 만들 수 있지만 아직 자격증을 따지 못했다. 다음에는 반드시 면접에 성공해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

송재민(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년 후의 나의 모습

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해 봤지만 가장 해 보고 싶은 일은 동료상담가다. 지금은 동료상담 서브리더로 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더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10년 후에는 센터에서 활동하는 훌륭한 동료상담가가 되어 동료들 친구처럼 도와주고 싶다.

주제 발표에 이어 현장에서 접수한 ‘3분 스피치’ 시간을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생각, 비장애인 활동가의 바람, 앞으로의 다짐을 발표하는 등 자유롭게 진행됐다. 스피치 대신 노래 솜씨를 뽐내는 주민도 있었다. 이후 발달장애인의 권리침해와 학대 방지를 위한 양천 피플퍼스트 권리선언문을 낭독하고 한 목소리로 복창하면서 1부를 마쳤다.

휴식과 간식의 시간을 가진 뒤에는 2부 행사로 문화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다. 먼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골프존파스텔 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해 흥겨운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다. 2명씩 짝지어 손잡기 게임도 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엔 맞잡은 손으로 그동안 지내왔던 정도 새삼 느꼈고, 눈을 마주칠 때는 어색하면서도 서로에게 감동이 고스란히 전달됐다.

“거북선 10번 읽은 후 질문 들어갑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거북선!”. “이런,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죠~”. “루돌프 10번 읽고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니는 것은?”, “루돌프...”. “아니죠, 썰매가 맞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진행자의 재치 넘치는 진행에 모두 깔깔거리며 웃는 시간을 보냈다.

이어서 국기 알아맞히기 퀴즈, 얼굴 일부만 보고서 인물 알아맞히기, 영화 포스터, 만화영화 주제가, 드라마 OST, K-POP 등 난이도가 상당한 퀴즈들도 거침없이 맞춰 집중도가 높은 발달장애자들의 면모를 여지없이 발휘했다.

레크리에이션 행사의 마지막은 마음을 공닥공닥 뚫게 만드는 행운권 추첨의 시간. 한 장씩 행운권 번호가 발표될 때마다 행사장은 한숨과 환호가 오가는 흥분의 도가니가 됐고, 객석에선 자기 번호를 부르며 행운권 추첨자에게 어필하는 모습도 보였다. 행운권 추첨도 모두 끝나고 기념품을 하나씩 품에 안고 헤어지는 시간,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날 기약을 하며 피플퍼스트대회는 막을 내렸다.

양천구에는 17,000여 명의 신체장애인과 2,0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살고 있다.

여태까지의 장애인복지가 자립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재활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한다. 장애는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장애를 장애로 인정하고 대체할 수 있는 장비와 IT 기술을 활용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외출활동에 제약이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피플퍼스트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바로 세우면서 서로 연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기를 바란다.

다문화와 함께하는 당당모임

- 단체명/모임명 친구가 좋아
- 공모사업 유형 마을해결책
- 주요활동 1. 그림 그리기
 2. 요리하기
 3. 공예하기
 4. 심리나눔
 5. 공원놀이
- 주 활동지역 목4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서로 잘 모르고 인사만 하던 이웃과 아이 엄마들이 한 공방의 도자기 색칠하는 미술 선생님의 이웃만들기로 시작해서 2년 차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했고, 2019년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했다. 작년은 그림 그리기만 했는데, 올해는 음식 만들기, 마음 나누기 그리고 양금 플라워, 쿠킹, 천연비누 등 여러 가지를 함께 배우고 만드는 활동을 통해 서로 왕래하는 사이, 서로 고민거리를 나누는 사이,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돕는 사이로 발전했다. 실제 사례로 다문화엄마들이 그전에는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친근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타지에서 가사와 육아에만 얽매어 있어 집-시장-집만 왕래하다가 자신이 편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기면서 밖으로 더 나가게 됐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밝아지고 삶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누군가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생각하며 만들어 가는 것이란 것도 깨달았다. 이웃을 알고 시간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보람됐고, 주변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됐다. 엄마들이 서로가 가진 다양한 재능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주부의 자신감이 상승했다.

모임을 통해 다문화엄마들이 한국엄마들과 교류하면서 조금이라도 타지에서 외로움을 달래고 육아, 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한국생활이 더 즐거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서 뿌듯했다. 국적과 상관없이 같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는 유대감이 높아졌고 이웃과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한국말이 서툴러도 이야기를 들어 주고 소통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타인이 아닌 나를 비롯한 우리가 마을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느꼈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다문화와 함께하는 당당모임-그릇 페인팅

기록자 이경미

일시 2019년 7월 24일(수) 10:00-12:00

장소 애플당당 스튜디오

참석자 강동희 외 12명



‘다문화와 함께하는 당당모임’은 2019 마을공동체통합공모사업 중 마을해결책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모임은 2018년 ‘다문화와 함께하는 그림 모임’이라는 이웃만들기사업 팀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만난 3명의 엄마(재중동포 박동매, 일본인 기와, 이현진)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다가 외국인 친구들과 주변 이웃들이 함께하면서 모임이 커졌다.

특히 ‘들樂날樂’ 공간으로 선정된 ‘애플당당 스튜디오’는 아이들과 엄마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마을공간이 됨으로써 모임이 활성화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이날은 소스 그릇에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

는 수업이 진행됐다. 여러 차례의 만남이 있어서인지 서로 익숙하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모임을 시작했다. 미리 도안을 구상해 오거나 스튜디오에 마련된 도안을 참고해 준비된 소스 그릇에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했다.

한동안은 각자의 그림에 집중하느라 조용했지만 여유가 생기자 주변을 둘러보면서 생각을 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회원에게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고, 솜씨를 보태 주기도 하면서 수업이 진행됐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대부분이어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는 엄마들이 많았다. 각자 솜씨를 발휘해 각각각색의 소스

그릇이 멋지게 완성돼 갔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메구미 씨는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싶어 참석했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아이의 학교생활까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다문화가정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모두에게는 보람된 일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지만 비교적 긴 시간을 두고 만남을 이어 가다 보니 이제는 친정 같은 마음이 들어서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하는 사이가 됐다.

어느덧 모두의 그릇이 다양하게 완성됐다.

이 그릇들은 유약을 덧발라서 스튜디오 한켠의 작은

가마에서 구울 예정이다.

작업을 하는 중간중간 다음 모임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고 싶은지 의견을 내기도 하면서 이날 모임이 서서히 마무리됐다.

비가 간간이 내리는 무더운 날씨에도 반가운 얼굴들과 한자리에 모였던 ‘다문화와 함께하는 당당모임’ 팀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즐기고, 누리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이들의 바람을 응원하며, 올해 계획한 대로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서 아빠들과 자녀들까지 한자리에 모이기를 바라본다.



/마을 인터뷰/ 다문화와 함께하는 당당모임

일시: 2019년 11월 25일(월) 14:00-15:00

장소: 목4동 애플당당 스튜디오

참여: 람키 쉰니(LAM KI SANNY)

진행: 이경미



1.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정목초등학교에서 학교도서관 명예사서로 봉사하면서 엄마들한테 중국어 수업을 했어요. 그 엄마들 중에 몇 명이 여기서(애플당당 스튜디오) 활동하고 있었는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같이하게 됐어요. 2018년부터 2년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엄마들이 재능기부해서 주민모임연합사업으로 '쓰리고'라는 걸 아이들 학교에서 했는데, 엄마들이 가르쳐 줘서 한복 치마저고리도 만들고 뜨개질도 했어요. 타로만 이 스튜디오에서 하고 나머지는 학교 안에서 했죠. 그러다가 여기에 오게 되고 이웃만들기 모임인 '다문화와 함께하는 그림 모임'이라는 공동체 모임도 하게 됐어요.

2. 공모사업 이전의 공동체활동 경험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나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초등학교 엄마들하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쓰리고'라는 모임을 했어요. 홍콩에서 왔지만 중국표준어도 할 수 있어서 엄마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이웃만들기사업으로 '다문화와 함께하는 그림모임'에 참여했고, 올해는 마을해결책사업인 '다문화와 함께하는 당당모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난번 정산모임에 대표로 나가서 발표했는데, 내가 서툴러서 '내 말을 다 이해했나?' 하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신경 써서 들어 줘서 좋았어요.

3. '다문화와 함께하는 당당모임'이라는 사업명은 어떻게 짓게 됐나요?

작년에는 '다문화와 함께하는 그림모임'이었는데, 다 같이 의논해서 '다문화와 함께하는 당당모임'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애플당당 스튜디오 이름에서 따오기도 했고,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뜻도 담았 습니다.

4.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았나요? 또 그 당시의 어려움이나 에피소드가 있나요?

2018년에 학부모모임을 하던 엄마들도 있었고, 레이카같이 제가 아는 친구를 데려온 경우도 있어요. 또 근처에서 초밥집 하는 친구도 데려오고... 이렇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초대해서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지금은 전부 25명 정도인데, 꾸준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10여 명 정도 있어요. 작년에는 서로 어색한데 말도 잘 못해서 고개 숙이고 그림만 그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집에 가서 음식도 해 먹을 정도로 친해졌어요. 모임이 끝나도 집에 안 가고 서로 수도도 떨고 힘든 것도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레이카가 "나에게 마을은 시장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좋아요."라고 하면서 다음에도 하자고 그래요.

5. 올해 진행한 사업 중 가장 의미 있거나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요? 또 지금 모임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일 하나 진행하려면 예산도 세워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의견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배울 수 있구나 하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고 싶어요. 비누도 만들고 여기서 샌드위치도 만들고 버너 가져다가 '마라탕'도 만들었어요. '마라탕'을 집에 가져갔더니 아이들이 "엄마도 이런 거 먹어?" 그러면서 신기해했어요. 모임을 하면서 엄마들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네."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해요. 기와 씨 같은 경우는 엑셀 프로그램을 아주 잘 하는데, 나도 배우고 싶기도 해요.

6. 공동체사업에서는 주민 참여가 중요할 텐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이나 계획이 있나요?

정목놀이터에서 타일로 만드는 벽화를 애들이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뭘 하네.' 하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7. 지원센터나 마을자원활동가 등 외부의 지원은 만족스럽나요? 또 아쉬운 점이나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요?

없어요.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받는 거는 괜찮아요. 대표제안자이지만 혼자서 다한 게 아니고 다 같이 도와줘서 오히려 미안했어요. 내가 뭘 구매하면 휴대폰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많았고, 모임에 필요한 물건이 오면 여기로 가져오고 그랬어요.

8. 내년에도 지원센터의 공동체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나요? 또 사업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내년에도 하고 싶어요. 내년에는 프랑스 자수도 더 하고 싶고 한국의 '난타공연' 같은 전통문화공연 같은 것도 보고 싶어요. 우리가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 여행도 하고 싶은데, 전통적인 마을 같은 곳에 여행도 가고 싶어요.



9. 내가 바라고 만들어 가고픈 마을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센터나 카페처럼 같이 모일 수 있는 마을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쉬워요. 주민센터도 이용하려면 쉽지 않고... 실버복지센터 같은 데도 층마다 교실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간이 있으면 하고 바라죠.

10. 공동체활동 경험으로 내가 바뀐 점이 있다면(내게 미친 가장 큰 영향 한 가지) 무엇인가요?

이 동네에 산 지 7-8년 정도 됐는데, 활동하면서 밝아졌어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올해는 대표로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애들이 좋아해요. "엄마가 이런 것도 하네?" 하면서 신기해했어요. 또 젊은 엄마들이 하는 걸 보면서 배우는 것도 좋아요.

함께살자냥

- 단체명/모임명 양동이와 들레들레
- 공모사업 유형 주민모임연합사업
- 주요활동 1. 동네고양이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캠페인
 2. 동네고양이 집중 TNR
 3. 주민들과 동네고양이 겨울 집, 급식소를 만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펫티켓교육, 캣뉴스 만들기 활동
- 주 활동지역 양천구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길고양이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런 길고양이를 지역에서 보이지 않게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길고양이는 싫어하는 사람에겐 혐오의 대상이며 이웃들과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들과 좋아하는 주민들과의 생각의 차이를 좁혀 보고 싶었으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고 존중하는 문화를 공유하고 싶었다.

‘함께살자냥’은 마을축제와 중고등학교 동아리에서 동네고양이 인식개선과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지역은 집중 TNR을 시행해 소음과 번식문제를 해결하고, 길고양이를 매개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며, 동네 주민이 함께 보호해야 할 공존의 대상임을 알렸다.

고양이 돌봄 주민들에게는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문제 발생 시 이웃과 다투는 것보다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알려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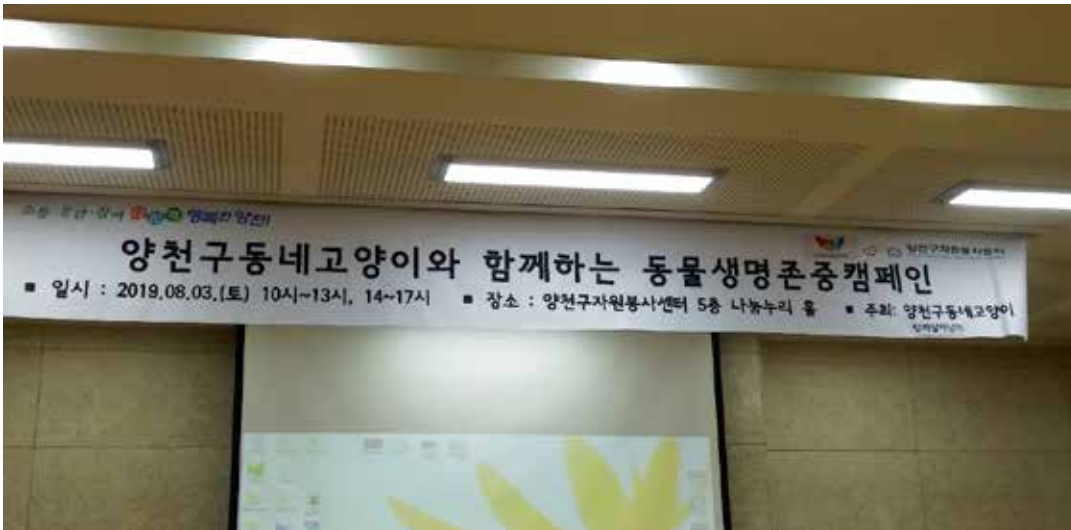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면 인식개선 캠페인 중 글을 읽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글을 읽어 주고 설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다. 어르신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웃으며 갔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당장 효과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언젠가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을을 기록하다

- 행사명** 함께살자냥-반려견 펫티켓교육
- 기록자** 차은경
- 일시** 2019년 8월 3일(토) 10:00-12:00
- 장소**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5층 대강당
- 참석자** 함께살자냥 회원 4명, 청소년 20명



8월 3일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5층에서 '함께살자냥'이 주최한 반려견 펫티켓교육이 있었다.

'함께살자냥'은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주민모임연합사업에 선정된 모임으로 길고양이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 간의 분쟁과 갈등을 소통과 관계 맺기로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방학을 맞아 관내 중고생 20여 명이 반려견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펫티켓교육을 받았으며 강의를 맡은 김병석 대표(소통공감 반려견 아카데미)는 이날 아주 특별한 친구 양리와 함께 강의를 진행했다. 양리는 유기견의 상처를 가진 반려견으로, 대표님과

의 인연을 맺어 강의를 돕는 조교로 성장했으며 치료도우미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고 한다. 이날도 강의 중간중간에 양리를 시범 사례의 도우미로 불러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강의는 반려동물의 현황, 유기견 이야기로 시작하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알아 두어야 할 반려견의 습성, 반려견을 키울 때 지켜야 할 규칙과 매너에 대해 상세히 알려 주었다.

꼭 지켜야 할 것은 이름표 달기, 리드 줄 채우기, 배변 정리이다.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도 알아 두어야 할 에티켓이다. 일상에서 자주 반려동물을 접



하기 때문이다. 비반려인의 기본적인 펫티켓은 보호자의 허락 없이 반려견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키우는 동물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해 준다면 동물은 결코 먼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된다.

강의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다 버리는 유기문제도 거론되었는데, 1년 중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가 바로 요즘, 휴가철이라고 한다. 가족이라고 하면서 키우다가 슬그머니 휴양지에 버리고 오는 몰지각하고 무책임한 반려인들이 너무 많은데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서 반려동물을 들일 때는 신중히, 키울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길 바란다.

치료도우미 양리의 활약이 컸는지, 나름 커다란 반려견인 양리를 두려움 없이 안아 보기도 하고, 이름을 불러 쓰다듬는 학생들도 여럿 있었다.

이날 강좌를 통해 반려동물의 실태와 습성, 펫티켓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니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인해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도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마을 안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며 반려인과 비반려인도 서로 배려하기를 '함께살자냥' 팀과 기대해 본다.



신월4동 모의주민자치회

- 단체명/모임명 신월4동 주민자치위원회
- 공모사업 유형 모의주민자치회
- 주요활동
 1. 팀빌딩을 통해 주민자치회에 대비한 소통과 공감, 친목도모
 2. 추석 명절 송편을 만들어 취약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갖음
 3.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장바구니 사용으로 환경 지키기 캠페인'을 통해 마을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음
- 주 활동지역 신월4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2021년 시행되는 주민자치회에 대비해 주민자치위원 8명과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8명, 마을주민 2명 총 18명으로 구성된 모의주민자치회 사업에 참여했다. 같은 공동체공간에서 마을 일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만, 그동안은 서로 협업을 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번 모의주민자치회를 결성하며 주민자치 위원부터 각 직능단체위원들, 마을 주민, 학부모회위원까지 다양한 소속의 주민들이 함께하며 '잘 융화될 수 있을까?' 걱정된 부분이 있었지만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 서로 배려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줬다.

앞으로 시행될 주민자치회에 대비해 가장 힘들다고 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단합된 힘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자치위원에게 거리감을 갖고 함께하기 어려울 거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과 직능단체, 마을주민이 함께하며 마을에 필요한 일들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갖게 됐다.

바쁜 시간을 내서 함께 탐방을 가고, 강좌를 듣고, 마을 일에 참여하며 '우리'라는 공동체를 결성할 수 있었다. 가장 큰 결실은 '우리'가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한발 먼저 내딛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된 것이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신월4동 모의주민자치회-의제발굴 워크숍 및 팀빌딩

기록자 이경미

일시 2019년 8월 29일(목) 10:00-12:00

장소 신월4동주민센터 지하강당

참석자 박기웅 모의주민자치위원장 외 11명



8월 29일 오전, 비가 쏟아지는 곳은 날씨에도 신월4동주민센터 지하강당에는 신월4동의 주민자치회를 준비하는 여러 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이날은 '신월4동 모의주민자치회 의제발굴 워크숍 및 팀빌딩'이 있는 날로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단과 위원들이 모여 그간의 사업을 정리해 보고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신월4동 모의주민자치회는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모의주민자치회'에 선정되어 2021년 전면 시행될 주민자치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주민들과 함께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한재분 씨는 신월4동 모의주민자치회에서 회계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월4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재분 씨의 진행에 따라 '주민팀'과 '자치팀'으로 나뉜 두 팀은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몸을 풀었다.

먼저 신체 게임인 윷놀이와 투호 던지기 게임을 했다. 차례대로 윷과 투호를 던지며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었는데, 게임 내내 승패와 상관없이 즐거운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사이좋게 무승부를 거두었다.

다음에는 A4용지 한 장과 종이컵을 이용한 컵쌓기 게임이 이어졌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시도해

보면서 최대한 많은 수의 컵을 쌓아 올리는 게임이다.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쌓아 올린 컵이 무너지기를 여러 번 반복한 끝에 주민팀이 승리를 거두었다. 학생들이 MT에서 주로 하는 게임이었는데, 연륜을 발휘한 주민팀은 20개를 거뜬히 쌓아올려 진행자를 놀라게 했다.

이어진 것은 보드를 이용한 탁구공 튕기기로, 보드에 매달린 줄을 잡고 그 위에 탁구공을 튕기는 게임이다. 한재분 씨의 설명에 따르면 보드는 마을을, 보드에 매달린 줄은 각 직능단체·주민자치회위원·마을활동가 등을, 탁구공은 마을 주민을 상징한다고 한다. 앞으로 신월4동의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 '모의주민자치회'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자는 뜻을 담은 게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을 했는데, 상대방이 맞출 동물 이름을 적어 사회자에게 전달하면 각 팀 중 한 사람에게만 보여 주고, 이를 본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차례대로 동작을 통해 설명하는 게임이다.

동물의 특징을 동작으로 전달하기는 쉽지 않아서 바닥에 누워서까지 설명했지만 자치팀이 유일하게 한 문제를 맞힌 채 끝이 났다.

진행을 맡았던 한재분 씨는 모든 게임이 끝나고 팀빌딩 자리를 정리하면서 "행운의 네 잎 클로버를 찾기보다 행복의 세 잎 클로버를 가꿔 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게임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자 봉사활동의 중심인 부녀회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바쁜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위원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식탁은 풍성한 만큼 화목함이 가

득했다.

신월4동의 마을 일꾼들은 오랫동안 마을활동을 하면서 손발을 맞춰 온 만큼 서로의 관계도 돈독하고 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다.

현 주민자치조직의 위원장이자 모의주민자치회의 위원장인 박기웅 씨는 기존의 주민자치 위원들과 현재 모의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조화를 이뤄 나가기 위해 활동 시 항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이전까지의 분위기를 바꿔 고쳐야 할 점은 과감하고 쳐 나가면서도, 기존 위원들과의 화합을 늘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주민자치회의 본보기를 보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면서 송편 만들기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는 자치위원들과 부녀회 회원들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마을을 위해 애쓰는 신월4동이 앞으로 보여 줄 모습을 기대해 본다.



함께 만들어 가요~ 행복한 우리 마을

- 단체명/모임명 목동13단지 모의주민자치회
- 공모사업 유형 모의주민자치회
- 주요활동 1. 우리마을 GOGO 파티
 2. 버스킹 버스킹
 3. 으라차차 건강지킴이 주부9단
- 주 활동지역 신정6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지나치게 이웃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주민들을 'GOGO 파티' 행사에 초대해 젊은 층, 노년에서 유아까지 함께 걸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나 일부 어르신들의 직진 본능으로 너무나 앞서가는 바람에 잔뜩 기대하고 참여한 몇몇 유아들이 보물찾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속상해하는 어린이들을 달래 보고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소꿉놀이, 보물찾기를 했는데 숨겨진 보물을 찾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우리도 함께 밝게 웃을 수 있었다.

세분화된 사업으로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는 힘들었지만, 다양한 계층과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단절된 아파트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좋았으며, 무관심한 주민들이 여러 행사를 통해 함께 어울리면서 정을 나누는 아파트로 가는 작은 기쁨이 마련됐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확대해 주민들과 마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을을 만든다

생생마을터/골목아고라/들樂날樂

생생마을터

손바닥 도서관/우리 동네 빛내라/나눔텃밭/어린이학교

골목아고라

목3동 골목반상회/함께 만드는 우리 골목/주민이 참여하는 예술문화 골목

들樂날樂

거기서 만나용!



손바닥 도서관

- 단체명/모임명 목2동 주민자치회
- 공모사업 유형 생생마을터
- 주요활동 1. 책으로 놀자
2. 책으로 만나자
3. 책으로 즐기자
- 주 활동지역 목2동 및 용왕산숲속활력소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목2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7월 1일부터 용왕산에 위치한 용왕산숲속활력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목동권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민들이 직접 기부한 책, 장난감, 인형 등으로 조성됐다. 그리고 9월부터는 양천구 마을공동체사업 손바닥 도서관으로 책을 매개로 놀고, 만나고, 즐기는 활동을 진행했다.

손바닥 도서관에서는 관내의 다양한 직능단체와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동화구연, 몸놀이, 숲놀이, 다육이 심기, 요리 활동 등이 진행됐다. 또한, 구립 목2동 어린이집, 아음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지역의 많은 어린이가 어른들의 안전한 지도 아래 용왕산을 찾아와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용왕산을 한 번 방문한 어린이 친구들은 이후에 형제자매, 부모님과 함께 다시 용왕산을 찾아 주었고, 어린이들이 직접 물건과 책을 판매하는 꼬마 벼룩시장을 진행했을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추억을 쌓기도 했다.

그리고 부모님이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책놀이도 했다. 함께 책을 읽고 떡볶이도 만들어 먹고, 가을에 관한 책을 읽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용왕산을 산책하기도 했다. 또 멀리 나가지 않아도 숲속활력소에 모여 앉아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감상하며 갓 튀겨 낸 팝콘을 나누어 먹기도 했다.

용왕산숲속활력소는 이제 책을 찾아 방문하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많아졌다. 단순히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한 주민들이 다시 용왕산을 찾아와 진짜 주민들의 사랑방이 돼 가고 있다. 또 목2동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고, 산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2020년에도 다양한 문화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왕산숲속활력소 파이팅! 손바닥 도서관 파이팅!



마을을 기록하다

- 행사명** 손바닥 도서관-책놀이 프로그램
- 기록자** 이경미
- 일시** 2019년 9월 29일(일) 14:00-17:00
- 장소** 용왕산숲속활력소
- 참석자** 마을활동지기, 마을 주민 9명, 어린이 19명



9월 29일 일요일 오후, 여유로운 마음으로 용왕산의 숲속활력소를 찾은 마을 주민 가족과 어린이들이 있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의 '용왕산숲속활력소'는 강서수도사업소의 배수지 관사가 있던 곳에 새롭게 생겨난 주민공간으로, 지난 8월 27일 문을 열었다.

이곳 용왕산숲속활력소에서는 손바닥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하반기 통합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목2동은 주민자치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용왕산숲속활력소를 목2동 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책과 물품들을 이용해 손바닥 도서관을 꾸미고, 유아부터 어린이들까지 편안하

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사랑방도 만들었다. 주민들은 아직까지 정리를 다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책을 기부했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되는 공간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2명씩 교대로 지키고 있다.

지금은 목2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차츰차츰 주변 지역까지 알려져 용왕산에 오는 많은 이웃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은 손바닥 도서관에서 '책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 물고기》

라는 그림책을 읽어 주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 가지 독후활동을 하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용왕산에 놀러왔다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아이들까지 제법 북적북적 자리가 채워지고 목2동 주민인 유부덕 씨가 책 읽기를 시작했다.

책 내용에 빠져서 열심히 귀 기울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늘 흐뭇한데, 그래서인지 뒤에서 지켜보는 부모들의 표정이 참 좋아 보였다.

그림책을 다 읽고 나서는 미리 와서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하고 있던 강사들이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먼저 여자아이들에게는 무지개 물고기 그림이 들어 있는 에코백을 나눠 주고, 천에 색을 입힐 수 있는 패브릭 펜을 줬다. 아이들은 각자 무지개 물고기가 살고

있는 바닷속 모습을 상상하면서 마음에 드는 색으로 예쁘게 색칠하기 시작했다.

남자아이들에게는 연필꽃이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나눠 줬는데, 견본대로 만들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장식을 이용해서 각자의 개성을 뽐냈다. 작품들을 완성할 때쯤 밖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열심히 에코백과 연필꽃이를 만든 아이들에게 직접 팝콘을 튀겨 줘서 즐거움을 더했고, 함께 준비한 달콤한 꿀도 나눠 줬다.

완성품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일요일 오후 가족이 함께 산을 올라 잠깐의 여유를 즐기고 돌아가는 모습도 좋아 보였다. 용왕산숲속활력소 안의 손바닥 도서관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기를 기대하며, 숲속의 옹달샘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우리 동네 빛내라

- 단체명/모임명 매직
- 공모사업 유형 생생마을터
- 주요활동 1. 공터가 되고 우범지대가 된 어린이공원의 클린 캠페인
2. 우리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전래놀이하기
3. 공원 꾸미기 활동
- 주 활동지역 신월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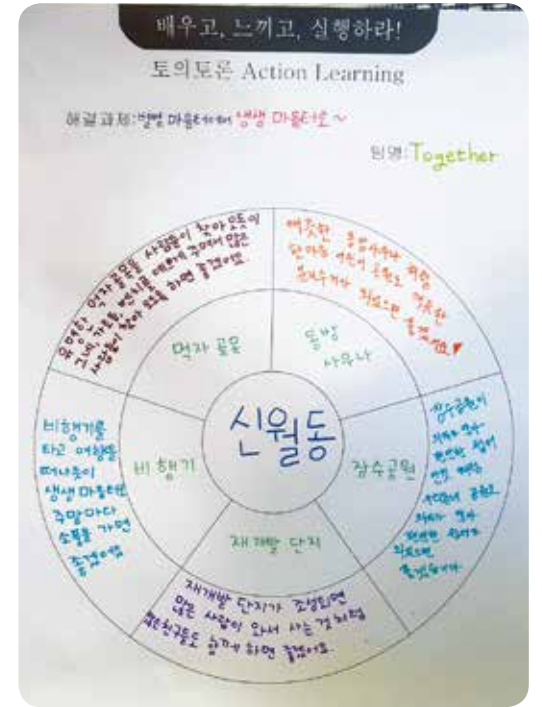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마을에 오래전부터 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됐던 곳이 빈터가 되고 잡풀이 우거져 밤이면 우범지대가 됐다. 공간활용이 되지 않아 안타까웠는데, 마을공동체사업과 취지가 맞아 시작했다.

쓰레기장이 돼 가는 공원의 쓰레기를 줍는 클린 캠페인을 시작으로 깨끗해진 곳에 우리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어 여러 전래놀이도 하고 누구나 쉬고 놀고 가는 곳으로 만들고자 예쁘게 꾸미는 활동을 했다.

너무 많은 잡풀과 쓰레기로 지저분한 공원이라 모기가 너무 많아 첫 회에 갑자기 모기향을 피우며 시작을 했는데, 잡풀 베는 것을 양천구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면 해 줄지 고민됐다. 그런데 2회 차에 잡풀을 누군가가 다 베어 줘서 다들 감동했다.

연속 8주를 하면서 아이들이 클린 캠페인을 너무나 좋아하고 참여자 모두 적극적이라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 됐다. 이 빈터가 아이들이 항상 찾아와 즐기고 놀다 가고 어른들도 쉬어 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우리 동네 빛내라-7080 추억의 그때 그 놀이

기록자 채형원

일시 2019년 11월 09일(토) 10:30-12:00

장소 신월2동 한아름 어린이공원

참석자 회원, 어린이 등 40여 명



2019년 11월 9일, 초겨울 날씨가 조금은 쌀쌀한 아침 10시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있는 한아름 어린이 공원에서 몇몇 엄마들이 놀이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감춰 놓고 있었다.

궁금해 다가가 보니 보물찾기를 위해 보물이 적힌 종이를 숨기고 있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 동네 빛내라'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7080 추억의 그때 그 놀이' 행사가 있기 때문이었다.

아직은 한적한 놀이터에 엄마들이 붙여 놓은 포스터와 팻말들이 3, 40년 전 옛날을 생각하게 하는 분위기였다.

조금은 추운 날이라서 아침부터 아이들이 나올까 생

각했지만,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엄마들은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과 추억의 놀이를 시작했다. 이름하여 '추억의 7080 게임'.

공기놀이, 비석치기, 종이 인형 오리기, 딱지 게임 등 아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놀이지만 담당 엄마들과 함께 배워 가며 열심히 놀이를 했다. 왜냐하면 놀이 임무를 성공하면 학용품이나 간식 등 선물을 받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놀이터 한쪽에서는 여자아이들이 모여 앉아 종이인형을 오리고 있고, 옆에서는 엄마가 공기놀이를 가르치고 있었다. 놀이기구가 별로 없었던 지난 시절에는 모두가 작은 돌멩이로 공기놀이를 많이 했는데, 요

즘 아이들은 방법을 가르쳐 줘도 던져서 잡기가 쉽지 않다. 노력은 하지만 성공하는 아이를 결국 보지는 못했다.

남자아이들이 주로 하는 놀이에는 비석치기가 있다. 보통 아이들이 발등, 어깨로 돌을 날라 비석 맞히기를 했지만, 머리로 무릎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놀이로 한두 번 해 본 듯하지만 놀이를 모르는 아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활동적인 놀이라 아이들의 반응은 좋았다. 한쪽에서 미리 연습도 해 보고, 다시 도전.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종이 딱지 뒤집기놀이는 인기가 좋았다.

손바닥으로 쳐서 넘기기, 입으로 '피' 하며 바람으로 뒤집기, 멀리 날리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 주고 아이들이 따라서 하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하기 쉬운 것은 아니었다. 보고 있던 엄마가 답답한 마음에 시범을 보였다. 주르르 넘어가는 종이 딱지들을 보며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다. 아이들 대부분이 딱지를 넘기지 못했지만 그중에 잘하는 아이 한둘이 오늘의 딱지를 모두 따서 가져갔다.

각각의 놀이를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부모들과

함께하는 보물찾기와 아이들 모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했다. 나뭇잎 아래도 뒤져 보고, 바람개비 사이사이도 살펴보고 같이 온 부모들도 옛 추억을 떠올리며 구석구석 보물을 찾으러 다녔다.

뭔가가 적힌 종이쪽지를 발견하고 좋아하며 뛰어가는 아이, 종이를 펼쳐 보이며 찾았다고 자랑하는 아이, 보물찾기 선물을 받아 들고 엄마에게 보여 주며 기뻐하는 아이... 즐거운 시간이었다. 보물을 못 찾아서 선물을 받지 못한 아이에게, 2개를 찾은 아이와 엄마가 종이쪽지 하나를 건네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모두 하나가 되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마무리 시간으로 다들 모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기 전, 올해 '우리 동네 빛내라'의 놀이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 아이들의 개근상 시상식이 있었다. 상을 받고 좋아서 놀이터를 뛰어다니는 아이의 모습이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즐거움과 단합의 시간으로 쌀쌀한 듯한 1시간 반이 아쉬움을 남긴 채 금세 지나갔다. 모두 단체 사진을 찍으며 올해 마지막 야외활동을 기념하고, 훗날 따뜻한 실내 놀이터에서 만날 것을 기약했다.



/마을 인터뷰/ 우리 동네 빛나라

일시: 2019년 11월 23일(토) 10:00-11:00

장소: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참여: 정해란

진행: 채형원



1. 마을공동체활동을 한 지 얼마나 됐나요?

우수동아리사업도 일종의 마을공동체사업하고 똑같아요. 양천구청 우수동아리사업이라고 지원해 준 건데, 그게 2015년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활동하다가 마을공동체사업을 주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쯤은 해야겠다 했어요. 마침 동네에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기구도 없어지고, 이 아까운 땅을 활용할 방법을 못 찾다가 마을공동체사업에 올라온 생생마을터를 자세히 읽어 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이거 밖에 없다 생각을 해서 지원했는데 마침 딱 잘 맞았던 거 같아요. 매일 지나다니면서 아쉬워했고, 늘 아이들이 놀 수 있는데 왜 이곳을 방치를 해 놔왔까 하는 생각에 항상 안타까워했거든요.

2. '우리 동네 빛나라'라고 사업명을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에 생생마을터를 봤을 때는 꼭 놀이터뿐만 아니라 안 좋은 공간, 구석진 공간을 구석구석 빛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놀이터만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쓰레기 놔둔 공간을 구석구석 빛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빛나라를 여러 개 썼어요. 구석구석 사진 찍어서 이 사업도, 저 사업도 한다고 그랬는데, 놀이터에서만 하는 걸로 충분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3. 지금까지의 공동체활동 경험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대학생일 때(93년) 영등포 YMCA에서 스포츠 자원봉사활동을 했어요. 체육수업도 들어가고, 스키캠프나 체육에 관련된 인성캠프나 예절캠프에서 강사로 지냈어요. 그때부터 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거였어요. 여러 대학교의 서클 식으로 모집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런 봉사활동도 하더라고요. 같이 결합해서... 그래서 그때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전까진 공부했죠, 학생이니까.

본격적으로 한 것은요?

우수동아리사업. 그거는 2015년?

2015년 우수동아리에서는 무얼 했나요?

인성 강연하고, 인성 레크리에이션을 해 함께 연합하는 그런 게임, 아니면 도전하는 게임, 사고력을 키우는 게임 등을 개발했어요. 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올바른 마인드 8대 인성덕목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심어 줬어요.

지금은요?

구연동화도 하고, 북스타트 사업을 해요. 도서관에서 갓난 애기들부터 초중고 학생들까지. 어제도 오류고에 가서 양성평등교육 하고 왔는데, 초중고 그다음에 성인 주부들까지 강연은 전반적으로 다 나가는 편이고요. 구연동화도 계속하고 있어요. 서울시장애인청소년센터에 1월부터 수업도 다닐 계획이고요. 장애인 등급을 가진 아이들에게 끌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맘에는요. 을지로 3간에 여기서 가면 1시간 넘게 걸려요. 안 하려고 하는데도, 내 애들도

어려 케어 해야 되는데... 저녁 6시거든요.

근데 은근 그런 수업이 매력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고 마음이 넘 좋은 거죠. 강의를 듣고서 너무 감사해하고 좋아하니까 사람의 정을 느끼겠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와 밝은내지원센터에서도 매주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4. '우리 동네 빛내라' 사업은 동네 사람들과 했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우수동아리사업 같이했던 사람들과 구연동화 같이했던 멤버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같이 했던 사람들이니까 마음 맞추기가 쉬워요.

그럼 지금 '우리동네 빛내라' 사업의 참여자들은요?

대표책임자는 원래 4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에 회계까지 말이에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인원이 없었어요.

한 번씩 오다 보니까, 너무 준비할 게 많은데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씩하나씩 도와주더라고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요.



5. 인원이 많아지고 행사를 이끌어 가려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인원이 부족한 게 좀 문제였죠. 만약 선생님들이 일이 있어서 못 오면, 순서대로 나갔어요. 게임을.

원래 파트별로 4게임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건데, 2명의 선생님만 왔을 때는 둘이서 한 게임씩 천천히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도와줘요. 보조를 같이하며.

또 강사비는 재능기부로 충당하고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는 재료비와 간식비로 썼어요.

6. 내년에도 이어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손 댄다는 건 아쉬워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놀이터를 아이들이 항상 와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점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실내장소를 구하는 게 힘들어요. 복지관과 우리가 특별하게 연계된 게 없다 보니까 실내장소를 구하는 게 저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우리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놀이터 꾸미는 것은 센터나 기관 이렇게 힘 있는 곳과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전문놀이터 디자이너가 투입이 되고, 기관이 나서서 하는 거예요. 지원이 많고 디자이너가 아이들 의견을 반영해서 직접 디자인을 같이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디자인을... 힘이 될 만한 그런 연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신월2동 담당의원님들이나 지원해 줄 사람들과 연계가 되면 좀 더 힘이 될 거 같아요.

동네 사람들과 마찰은 없었나요?

처음에 놀이터 조사를 했을 때 그곳을 방치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옆에 아파트가 붙어 있는데, 놀이터에서 애들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민원이 들어갔고, 여름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나와서 노니까 이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잡풀도 큰 고민사였어요. 이걸 녹지과에 전화해서 도움 요청하려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베기 힘들어요. 그리고 위험한 철조망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철조망을 떼고 가운데 있는 구조물도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시와 구와 연계해서 처리를 해 나가면 좋겠어요.

7. 바라는 마을공동체상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공동체 안에서 내 꿈도 이룰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 내가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마음에 갖고 있다면' 공동체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 퍼즐처럼 같이 맞춰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8.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마을공동체사업 하는 사람들만 딱 모여서 하기보다는, 서로 다르지만 이질적인 것이 융합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해요.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학문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낸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픽사도 그 중앙홀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오갈 때 거기서 소통을 하면서 창의성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도 직종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나눔텃밭

- 단체명/모임명 텃밭사랑
- 공모사업 유형 생생마을터
- 주요활동 1. 나눔텃밭 가꾸기
2. 김장나눔
- 주 활동지역 신정6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주민센터 내 자연학습장 공간을 생생마을터로 확장 구성해 채소류 등을 함께 가꾸고, 자연학습장 및 나눔의 장으로 만들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시작했다.

자연학습장 조성에 직접 참여해 마을공동체 인식을 확산하고, 도심 속 여유 공간을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체험교육을 해 식물들의 성장과정 등을 직접 체험하는 마을터가 됐다. 수확된 배추, 무 등 가을작물을 활용해 직접 김장을 담가서 홀몸 어르신, 어르신사랑방 등의 취약계층에 나누는 나눔실천으로 마을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게 됐다.

어린이집 아이들과 주민이 도심 속에서 텃밭을 체험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어린이학교

- 단체명/모임명 하늘숲어린이학교
- 공모사업 유형 생생마을터
- 주요활동 1. 우리 마을 사생대회
2. 꼬마체육대회
3. 어린이영화제 & 시장놀이
- 주 활동지역 신정6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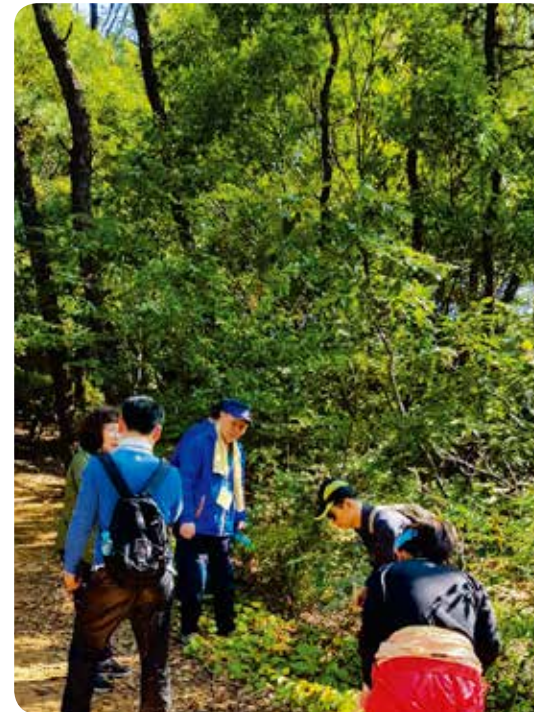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집 앞 골목에 나가면 친구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었던 예전과 다르게 요즘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 맞벌이 부모 혹은 조기교육으로 대부분의 친구들이 유치원 종일반에 있거나 하원 후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우관계를 위한 어린이 마을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작하게 됐다.

13단지 두리공원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 그림 그리기, 동네체육대회, 어린이영화제 & 시장놀이'라는 3번의 축제를 열었다.

3번의 축제에 참석한 어머니들은 이러한 행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지속적으로 개최해 달라는 요청도 많았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지원자도 있었다. 주위의 많은 어머니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그걸 소통할 곳이 없었다는 점을 공감할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형태에서 소통의 장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마을을 기록하다

- 행사명** 어린이학교-마을파티 '친구야 함께 놀자'
- 기록자** 차은경
- 일시** 2019년 9월 27일(금) 16:30-18:00
- 장소** 신정6동 목동 13단지 두리공원
- 참석자** 총 65명(어른 30명, 어린이 35명)



9월 27일 금요일 오후, 목동아파트 1301동 옆 두리공원에서 어린이학교-마을파티 '친구야 함께 놀자' 행사가 진행됐다. 하늘숲어린이학교는 2019년 하반기 공모사업, 생생마을터지원사업에 선정된 활동으로 자녀를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엄마들의 공동육아모임이다.

2년 전 아기학교에서 인연을 맺은 후 육아성향이 맞는 엄마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아이들이 함께 모여 놀이도 하고, 견학도 다니고, 여행까지 다녀왔다고 한다.

이날 행사는 해누리타운과 마을 곳곳에 전단지를 붙여 홍보를 해 사전 신청을 받았고, 현장 접수도 했는데, 시작 전부터 모여들어 분위기가 떠들썩하니 파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공원에 돛자리를 넓게 깔아 놓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림 그리기로 파티가 시작됐다. 그림의 주제는 우리 마을 그리기였는데, 미취학 어린이들인지라 주제와 상관없이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자유 그림 시간이 됐다. 몇몇 어린이들은 아파트로 마을 풍경을 그려 내기도 했다.

그림을 다 그린 후에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명씩 손을 들고 앞에 나와 이름과 그림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할까 봐 살짝 걱정했던 것과 달리 서로 하겠다고 손을 드는 통에 발표시간이 아주 길어지기도 했다.

발표를 마친 후에 간식 뷔페로 자리를 옮겨 간식을 가져갈 수 있게 한 동선 짜기의 효과였던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짧게라도 발표를 해 보는 것이 자신감과 성취감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간식 뷔페도 자기 간식을 자기가 담는 경험을 하면서 마음껏 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배려해 품목 당 하나씩 담게 도와주었다.

이어진 순서는 파티의 백미, 보물찾기였다. 이날 보물찾기의 규칙은 여러 장 찾아도 내 것은 하나, 나머지는 못 찾은 어린이에게 사이좋게 나누기였다. 보물 종이는 연령을 고려, 포스트잇을 공원 여기저기 눈에 확 띄는 곳곳에 붙여 놓았다. 시작 소리와 함께 어린이들은 공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신나게 보물을 찾았고, 여러 개를 찾은 어린이는 못 찾아서 시무룩한 어린이에게 나누었다.

보물 종이 개수가 모자라 즉석에서 만들어 배포하는 센스도 발휘했다.

보물은 종이에 적힌 번호가 불리면 보물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하나씩 들고 갔다. 간단한 장난감이나 만들기 재료, 과자 정도였지만 어린이들은 활짝 웃으며 무척 행복해했다.

어린이들과 함께했던 엄마들에게 소감을 물었더니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서 좋았다고 했다. 또한 동네에서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기회가 없는데 이

런 시간이 있어서 반가웠다며 자주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마을 곳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어도 아이들 보기가 힘들다고 한다. 놀이터에 가면 친구들이 있어야 재미가 있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는데, 함께 놀 친구가 보이질 않으니 놀이터를 더더욱 찾게 되질 않는다. 이날도 비어 있는 놀이터였기에 행사 진행이 가능했다.

오랜만에 왁자지껄 시끄러운 아이들 소리가 놀이터는 반갑지 않았을까? 마을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어울려 친구를 만나고 친구가 되는 데 '어린이학교'의 활동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3동 골목반상회

- 단체명/모임명 목3동 주민자치회 아동청소년청년분과
- 공모사업 유형 골목아고라
- 주요활동 1. 골목밥상
2. 환경미화
- 주 활동지역 목3동(318-163번지 소망슈퍼 옆 골목)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2019년도 주민자치회가 출범되면서 마을의제 및 골목문제에 대해 관심 있는 16명의 주민이 모여 분과 구성을 하게 됐다. 현재 목3동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목동 318-163번지 사이에 소망슈퍼 옆 쓰레기,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들끼리 다툼, 환경미화원들과 다툼이 심해졌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목반상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골목 안에서 주민들이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아동청소년청년분과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홍보해 골목반상회에 참여를 시키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의제들을 하나씩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시작했다.

주민들의 참여로 동주민센터에서 밤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홍보 기계를 설치해 쓰레기의식교육이 됐다. 국화 및 편백나무를 같이 심고 환경미화를 통해 의식 개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미화원들의 의식 개선이 되어 조금 더 업무(정리)를 잘하게 됐다. 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기획해 마을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해 줬다.



함께 만드는 우리 골목

- 단체명/모임명 리틀 포레스트
- 공모사업 유형 우리마을지원사업
- 주요활동 1. 매월 1회 골목밥상을 통해 서로 알아 가는 시간 만들기
 2. 페인트 벽화로 우중충했던 골목 빌라 주차장 변화시키기
 3. 화단 만들기과 나무 심기로 골목의 불법주차 근절과 푸른 골목 가꾸기
 4. 골목의 재능기부자들이 모여 게릴라콘서트로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연주회 열기
- 주 활동지역 신월2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건너편 동네로 이사 간 지 2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오니 변하지 않은 골목들의 모습과 우중충한 느낌에 골목 아고라를 알게 됐다. 또 양천 마을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됐다. 짧은 시간들 속에서 주민의 힘으로 벽화, 화단, 콘서트 등의 계획을 실행하고 이루어 낸 것이 보람됐다. 모르는 골목 주민들과 골목 운영회, 골목반상회 등 잦은 만남을 통해 골목들이 하나씩하나씩 바뀌어 가는 모습에 행복을 느꼈다. 향후에는 현 주소지의 골목사업이 아닌, 좀 더 많은 참여자를 발굴하고 이끌어 내어 많은 주민들이 양천 마을공동체의 협력으로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마을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계획하고 싶다. ^^



마을을 기록하다

- 행사명** 함께 만드는 우리 골목-깨끗한 골목 만들기
- 기록자** 차은경
- 일시** 2019년 11월 3일(일) 14:00-16:00
- 장소** 신월2동(중앙로51가길 17)
- 참석자** 주민 1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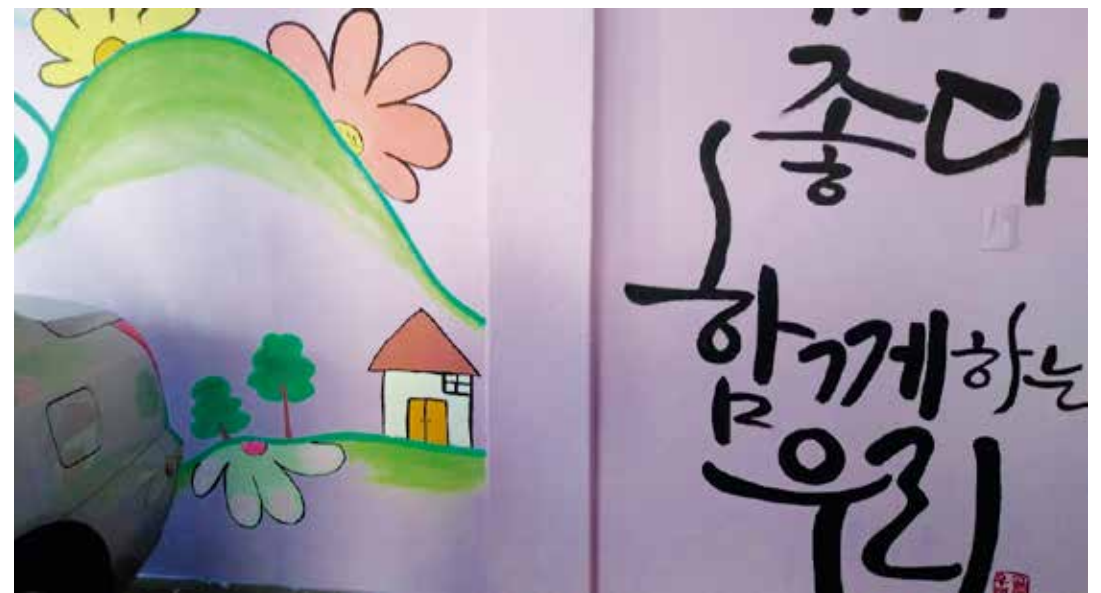
11월 3일 일요일, 신월2동의 '함께 만드는 우리 골목' 팀이 깨끗한 골목을 만들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함께 만드는 우리 골목' 팀은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골목아고라에 선정되어 신월2동 골목을 거점으로 사람 냄새 가득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더러워진 현관 입구와 주차장에 새 옷 입히기였다. 모두 네 동으로 이루어진 빌라 중에서 한 동에 새 옷을 입히는 행사였는데,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한 동의 변화가 나머지 세 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을 기대하며 진행했다.

수성 페인트를 이용, 먼저 흰색으로 기존의 도색을 감추는 작업을 한 뒤에 연보라색으로 덧칠을 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바닥에 꼼꼼하게 신문지를 깔아 도색 작업 중 페인트가 떨어져 얼룩이 생기는 것을 방지했다. 작은 붓으로 모서리를 미리 칠해 두면 롤러 붓으로 시원하게 밀어 도색을 했으며 아이들도 붓을 들고 한 몫을 담당했다. 이날 연보라색으로 바탕색이 칠해지면 이틀 후 그림을 그려 줄 자원봉사자가 와서 기본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벽화를 그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휴일이라 아버들의 참여가 높았는데, 한 달 전부터 이날을 위해 시간을 비워 둘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일하는 곳에 먹거리가 빠질소냐, 어묵탕과 부침개, 고구마, 삶은 달걀 등 푸짐한 새참도 마련했다. 일차적으로 흰색 도색을 마친 뒤 마를 시간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두런두런 새참 타임을 즐기기도 했다. 새참을 먹은 뒤에는 해가 지기 전에 마치기 위해 부지런히 붓질을 계속해 예쁜 연보라색 주차장으로 완성했다. 이제 며칠 후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궁금하다.

무채색인 골목, 시간이 흐르며 낡고 더러워지는 골목안의 풍경들에 변화를 주고 싶어도 쉽지 않은 일이기 대부분 체념하게 됐다. 하지만 골목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 함께 힘을 모아 머릿속 상상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번 마을 골목행사 때는 저 연보라 담벼락에 알록달록한 아이들의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어떤 그림들이 그려질지 기대된다.



/마을 인터뷰/ 함께 만드는 우리 골목

일시: 2019년 10월 14일(월) 17:00-18:00

장소: 신정네거리역 이데아커피숍

참여: 최정아

진행: 채형원



마을 인터뷰

마을 인터뷰

1. 마을공동체 활동을 한 지 얼마나 됐나요?

저희가 아이들로 인해 만난 학부모들끼리 취미나 자조 모임을 가지면서 봉사활동으로 시작된 모임이 거의 7년 정도 이어지면서, 우리 아이를 위해 시작했던 것들이 조금씩 크게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소외된 어르신들이나 복지 사각지대로 눈이 돌려졌어요. 또 그때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과 각자 맡은 자리에서 협업을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발전이 된 거 같아요.

2. 올해 골목마을공동체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는 사람들끼리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 보자는 생각을 하다가 골목아고라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골목밥상까지 의견이 나왔어요. 지금은 다들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모르는 주민들을 모아서 마을밥상을 한번 해 보자고 시작했는데 좀 잘된 케이스 같아요.

3. 참여자를 모집할 때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골목에 나온 어머니들이나 놀이터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무작정 맨투맨 작전으로 다가가서 이것저것 묻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경계하거나 또 의외로 쉽게 마음을 내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쁜 사람 같지 않으니깐 우리 한번 해 볼까?' 하고 내가 물어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 했다고 해요.

4. 주민 참여자는 어떻게 모집했나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서나 자료, 제안서 썼던 것들을 진솔하게 보여 주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시킨 후 조금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한둘 있을 때 같이할 수 있도록 했어요.

5. 바람직한 마을공동체상은 어떤 것일까요?

예전에 언론매체에서 성미산 마을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그 성미산 마을을 동경하는 마음이 싹터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기도 했고, 또 언젠가는 최근에 같이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각자의 집을 정리해서 함께 집을 지어 같이 사는 걸 보면서 그게 정말 많이 부러웠어요. 같이 공동체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랑은 정말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정말 같은 건물에서 같이 살면서 나쁜 점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거기도 육아를 매개로 같이 시작된 공동체인데, 이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소통하면서 되게 보기 좋은 모습이 된 것 같아요. 나는 봉사활동 하거나 마을사업 하는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것만큼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일이 많은데, 다 무급이니까 유급봉사라는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본에는 그런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나라도 우선 예전에 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봉사를 하거나 마을공동체생활을 같이하면서 이 사람들이 반찬값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작년부터 들더라고요. 이게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6. 애로점이나 센터나 활동가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요?

주부들이라 보니까 행정에 있어서 잘 모를 때나 서류 쓸 때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눠서 못할 때 애로점이 있어요. 또한 규정에 없으니까 예산으로 쓸 수가 없어 개인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힘들지요.

모르는 게 있을 때는 활동가들한테 SOS를 청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간에 친해지고, 신뢰라는 게 쌓이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업하기 전에 한번 교육하는 거 외에 다른 교육이 없다 보니 교육을 디테일하게 시켜줬음 해요.



7. 내년에도 마을공동체사업을 계속할 의향은 있나요?

네.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년에도 할 거죠? 이렇게 먼저 말해 주기 때문에 계속할 겁니다.

8. 모임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모임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과정 속에서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 속에 불만들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모여서 같이 뭘 하면 좋는데 이뤄 내는 과정에서 의견충돌도 있고 다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공동체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나은 모습의 마을공동체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중립 입장에서 A와 B의 입장을 정리해서 풀어 주면 또 이해들을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결론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는 거 같아요.

9. 마을공동체활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들 즐거워할 때나 '우리 정말 잘했다.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 이런 말을 할 때 되게 뿌듯하죠. 활동을 하면서 참을성이 많이 생겼고요. 대인관계에서, 그러면서 상대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성향으로 바뀐 거 같아요.

그다음에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가끔 혼자 자기 전에 상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즐거운 상상? 현실적이지 않은 즐거운 상상을 하는 모습을 가끔 발견할 때가 있어요.

10.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공동체활동이 많은 사람들 앞에 열려 있었으면 좋겠고, 또 더 많은 교육이나 홍보, 정보가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 혼자만의 역할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마을공동체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음 좋겠어요.

주민이 참여하는 예술문화 골목

- 단체명/모임명 뭉치꽃
- 공모사업 유형 골목아고라
- 주요활동 1. 열린골목 기억전 5부(주민 소장전, 골목아고라 기록전, 신정동주민 전시)
 2. 해태 놀이터-주민과 함께하는 깃발전, 골목밥상 차림
 3. 작업실두방-오픈스튜디오, 보태니컬 아트 강의
 4. 전봇대 돼지그림 작업
 5. 목동아트문화센터 전시장 공연
- 주 활동지역 신정1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침체된 골목에 작업실을 둔 3명의 작가가 인간미 넘치고 활기찬 동네로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재능을 뭉쳤다. 골목아고라 사업 홍보를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고, 골목밥상을 위해 주민들 참여를 유도했다. 파리공원에서 홍보를 위해 원데이클래스, 오픈스튜디오, 깃발전 등을 했다. 한국전력에 공문을 보내고, 전봇대 돼지그림 추진 작업을 했다. 이후 신정1동주민센터와 협의를 통해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고 골목길이 밝아지게 됐다. 깃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주변 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을 수거하며, 사진 찍고 디자인 작업 후 현수막에 인쇄 후 전시하기도 했다.

또 목동아트문화센터에서 열린골목 기억전을 개최, 어둡고 칙칙한 골목을 밝게 만들 수 있었다. 문턱을 낮춘 전시장에 주민들이 들락날락하기도 했다.

주민 소장전은 깊숙이 넣어 둔 물건들을 끄집어 내어 전시해 주민들과 상호 공감 및 소통을 유도했다. 기록전은 골목아고라사업 진행 기간 동안 진행과 에피소드 등을 기록해 남길 수 있었다.

공동체공간을 만들고 함께하는 일정들이 시작과 달리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인간미 있는 삶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 3명의 작가가 함께하며 정신적 재산을 덩으로 얻고, 특히 깃발전은 주민들과 함께 일상에서 기쁨을 느꼈다.



마을을 기록하다

행사명 주민이 참여하는 예술문화 골목-골목반상회

기록자 차은경

일시 2019년 8월 6일(화) 20:00-22:00

장소 신정1동 목동아트센터

참석자 골목반상회원 등 9명



8월 6일 화요일 저녁, '주민이 참여하는 예술문화 골목' 팀의 두 번째 골목반상회가 열렸다.

'주민이 참여하는 예술문화 골목' 팀은 신정1동의 주민들과 상인들이 예술과 문화가 느껴지는 골목, 사람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리로 만들고 싶은 바람으로 2019년 골목아고라사업에 지원, 선정됐다.

이날 참석자는 대표 제안자 3인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참한 회원들은 남편과 아내를 대신 참석하게 할 만큼 반상회에 관심과 애정을 듬뿍 보여 주기도 했다.

먼저 무더위에 서로의 건강을 묻는 안부 인사로 시작해 골목행사 캐릭터로 예정된 '돼지'의 일러스트를 공개했다.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전봇대를 활용하

려고 하는데, 이는 한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터라, 사용 목적과 기간, 설치 가능한 전봇대 개수 등 한전 측과 조율 중이라는 소식을 내놨다.

이날 반상회 주요 의제는 월말에 있을 '음식 나누기' 행사였다. 음식나누기는 사람들을 골목에 모이게 하고 골목아고라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동참자를 넓혀가기 위한 행사이다.

예정 날짜는 8월 31일 토요일 오후 5시, 음식은 부침개와 수박, 생수로 결정했다. 또한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는 결의하에 일이 좀 늘어도 인근 교회의 그릇을 빌려 쓰기로 했다.

반상회원인 인근 교회 목사님이 불참하며 대신 참석

한 사모님의 제안 덕분이었다. 휴대용 가스렌지와 프라이팬, 뒤집개 등 필요한 물품을 서로 나누기로 했고, 행사 역할 분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여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여 '1+2' 행사로 반상회원 1명당 2명 이상의 초대자를 데려오기로 했다.

이후 행사장으로 결정한 해태 놀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골목행사 이름을 '돼지'가 아니라 '해태'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오면서 이 골목에서 40년을 넘게 산 이종문 님한테 해태 놀이터의 유래도 들을 수 있었다.

유래인즉슨 해태제과에서 기증했기 때문에 해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동네의 산증인 이종문 님의 구수한 입담에 빠져든 반상회원들은 즉석에서 이종문 님을 회장님으로 추대, 골목사업의 한 획을 그

었다. 이 외에도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활동으로 무엇을 시도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고받다가 골목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 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다. 마침 신정1동에 담벼락 벽화도 있으니 특화해도 좋을 것 같고 반상회원 가운데 미술을 전공하거나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무언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애쓰기보다 시간 여유를 갖고 조금씩 그려보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를 했다. 아침저녁 어딘가로 향했다가 돌아오며 그저 통행로로만 쓰이던 골목이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골목처럼 이웃끼리 안부를 묻고 생활과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골목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골목아고라 팀이 그 바람을 이뤄 갈 것을 기대한다.



거기서 만나요!

- 단체명/모임명 우리모두
- 공모사업 유형 들樂날樂
- 주요활동 1. 주민모임공간 확대
 2. 재미있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통의 즐거움 갖기
 3. 지역축제 연계와 마을사랑방
- 주 활동지역 목4동

우리들의 마을공동체 이야기

공간을 거점으로 동네 마을주민모임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웃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행복한 1년이였다.

많은 프로그램과 모임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자신감을 키워 주었고, 학원에 지친 아이들은 마을공간을 통해 잠시 쉴 수 있었다. 한달 한달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기쁨이 생겼고, 지역축제나 마을행사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언제나 부담 없이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생활영역에 엄청난 작용을 하는 것 같다.

마을공간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주민 모임이 많아졌고 지역행사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서로가 얼굴을 마주치고 함께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다. 서울의 다른 지역이나 인천, 경기지역에서도 소문이 나서 공동체공간을 운영하고 싶어 배우러 오는 사람들까지 많아졌다. 요즘 우리 마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우리 마을 그리기 시간에 애플당당 스튜디오를 가장 먼저 그린다고 한다. 언제나 편안하고 오고 싶은 공간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마음을 느리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공간 안에서 느끼면서, 나 스스로가 직접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마을에서 만들어 나갔다.

내년에는 더 성장하는 주체로서의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꿈꿔 본다.



마을을 기록하다

- 행사명** 거기서 만나용!-글쓰기 강좌
- 기록자** 이경미
- 일시** 2019년 8월 28일(수) 10:00-12:00
- 장소** 목4동 애플당당 스튜디오
- 참석자** 강동희 외 9명



8월 29일, 양천구 마을공동체의 소중한 문화공간인 애플당당 스튜디오에서 '글쓰기 강좌'가 진행됐다. 초대된 외부강사 박은지 씨는 성북구 동네 책방 '부비프' 대표로, 거주지는 목동이다. 2년 전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배우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고, 신문기자와 어린이 독서모임 지도강사를 거쳐, 지금은 좋아하는 책과 함께 지내며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한 뒤, '글쓰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고, 수업에서 기대하는 점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틈틈이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글쓰기는 어렵고 쉽게 접근하기 힘들어서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 박은지 강사는 어떤 사람을 작가라고 할 수 있는지, 작가가 되려면 '출판경험'이 꼭 필요한지 묻고, 요즘은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일상과 생각이 글로 발표되고 책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해 주었다. '나의 소중한 일상'이나 '내가 바라는 삶'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글과 그림이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 출판기획자들의 눈에 띄어서 출판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한다.

강사가 미리 준비해 온 여러 권의 책을 보면서, 대단한 걸 쓰지 않아도 그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긴다면 울림을 주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이옥남 할머니가 쓴 30여 년간의 일기를 엮어 만든 책, 《아흔일곱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일부분을 읽어 줄 때는 강사의 표현처럼 '마음이 찌르르' 하는 경험을 함께했다.

예쁜 글씨를 쓰고 싶어서 30년간 글씨 연습 삼아 써 온 일기는 할머니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 주는 좋은 친구였고, 글을 듣는 우리는 할머니의 그 마음을 고

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글쓰기는 자신 안의 어두운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를 종이에 옮김으로써 마음속의 무언가가 정리되고 치유받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런데도 우리가 글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대단한 이야기나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은지 강사는 비교적 손쉽게 글쓰기에 도전하는 방법으로 나의 이야기를 써 볼 것을 제안하고, 먼저 나에게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주었다. 이어서 12칸으로 나누어진 종이를 각자에게 나누어 주고, 거기에 나를 표현하는 12개의 문장을 쓰도록 했다. 12개의 문장 중 더 중요한 6문장을 선택하고 다시 2문장으로, 1문장으로 줄이는 과정을 거치고 나니 하나의 문장만 남았다.

'나의 모습 중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에 대해 돌아가면서 발표할 때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더 없이 진지했다.

"나의 목표는 자유와 행복", "질풍노도 35세 아줌마", "나는 나를 잘 모르겠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 주어질 것에 감사" 등 각자의 처지와 생각은 다 달랐지만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이

해하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마지막 남은 한 문장으로 '나에 대한 짧은 글'을 써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강사의 소소한 팁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쓰고, 오감으로 느껴지던 분위기를 떠올리며 쓰고, 문장은 짧게 쓰고, 한 번에 쉬지 않고 연필을 움직여 쪽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문장을 앞에 두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써 내려가는 모습은 각자의 모습만큼 다 달라서, 거침없이 쓱쓱 써 내려가는 회원이 있는 반면,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회원도 있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10여 분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글쓰기 시간이 끝이 났다.

마지막으로 각자 쓴 글을 돌아가면서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나온 자신의 시간과 현재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싶은 나의 모습을 담은 글을 읽으면서 차분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글쓰기가 가깝게 느껴진 하루였고, 나에게 대해서 차분하게 정리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마을 인터뷰/ 거기서 만나용!

일시: 2019년 10월 14일(월) 17:00-19:00

장소: 목4동 애플당당 스튜디오

참여: 이현진

진행: 이경미



1.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성북구, 노원구, 성동구 이런 데 살 때부터 공동체 사업을 하는 걸 보기도 하고 우연한 기회에 수업을 하기도 하면서 마을에서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호의가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 동네에 이사를 오게 됐고요. 목4동에 이사 온 지 3년 정도 됐는데, 이 동네로 이사 온 이유도 어릴 때 살던 동네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사 오면서 아들의 초등학교 근처에 작업실을 마련하면 안정적인 것 같아서 작업실을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아이들, 엄마들이 드나들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아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아들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엄마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외국인 엄마들이 있는 관계로 '다문화와 함께하는 그림모임'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드나들며 여러 모임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간사업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제안하기도 하면서 2019년 마을공동체공모사업이 시작됐을 때 딱 맞아떨어져서 공간사업으로 확장이 됐죠.

2. 공모사업 이전의 공동체활동 경험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나요?

좀전에 얘기한 것처럼 작년에 아들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엄마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한 엄마는 일본 사람, 한 엄마는 중국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주민센터의 이웃만들기사업을 보고 우리도 이런 걸 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다문화와 함께하는 그림모임'을 했어요. 작년에 먼저 이웃만들기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데, 공간이 있다 보니까 다른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는 걸 보면서 수업이 없을 때 공방을 쓰라고 했죠. 여기를 이용하는 팀들이 많아지면서 올해 공간사업 공모가 시작될 때 주변의 추천도 있었고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죠. 지금은 마을해결책모임으로 '다문화와 함께하는 당당모임', 이웃만들기모임인 '엄마 놀아 줘'도 여기서 하고 있고. 지역에 있다 보니 축제 같은 행사를 같이하기도 하면서 실버복지문화센터 등 지역 이랑 연계도 되는 거죠.

3. 사업명인 '거기서 만나용!'은 어떻게 지었나요?

거기라는 단어는 그만의 느낌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 하면 누구나 떠오르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방에 드나드는 걸 부담스러워했어요. 그 경계를 허무는 게 나한테는 첫 과제였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불편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게 중요했어요.

4.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았나요? 또 그 당시의 어려움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리던 수강생이자 동네 주민, 다른 한 사람은 아이 학교 학부모면서 작년 주민모임 대표, 나 이렇게 있어요. 주민모임을 해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임을 더 활성화시키기를 원했어요. 그 사람은 작년에 '쓰리고'라는 모임을 했는데, 정목초등학교 엄마들이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손뜨개

도 하고 언어수업도 하고 그럴 때 저희 공방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운영 경험이 있고, 나는 공간이 있고 해서 같이하게 됐어요. 어려웠던 점은 처음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였어요. 취지를 설명해 줘도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힘든 거 아냐? 번거로운 거 아냐? 봉사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 올해 진행한 사업 중 가장 의미 있거나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또 모임의 대표제안자로서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걸 서로가 알았을 때 진한 감동을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만 외롭다는 느낌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살더라고요. 애들 키울 때는 바쁘고 힘들지만 나는 없어지고... 결국 사람은 남들에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삶의 에너지가 나는구나.' 하는 걸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서로 친해지면서 에너지도 더 받은 거 같아요. 또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고 서로 친해지기는 했는데, 다음 과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열리는 거겠죠. 나만이 아니고 내가 좋은 것을 서로 공유하고 넓히면 마을 전체가 더 행복해지겠죠.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옆의 사람, 마을이 같이 성장해서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과제로 느껴져요.



6. 공동체사업에서는 주민 참여가 중요할 텐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나 계획이 있나요?

처음에는 참 막막하긴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전단지 붙여야 되나, 단독방에 뿌려야 되나... 모든 방법을 다 쓴 거 같아요. 공간사업이 공동체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인데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 욕심이고, 욕심을 버려야 마음이 더 넓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는 것도 소중하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오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자 하니까 누구나 '거기서 만나용' 팀은 그냥 만나면 서로 웃게 되는 팀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같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주인이 되는 거 같아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서로 칭찬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니 무슨 운동처럼 분위기가 확산돼요. 여기 오면 나가기 싫고 사람을 좋게 생각하게 되니까 자꾸 칭찬을 하게 된대요. 이런 얘기를 해 줄 때 저도 기쁘고 감동이에요.

7. 지원센터나 마을지원활동가 등 외부의 지원은 만족스럽나요? 또 아쉬운 점이나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을지원활동가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산이나 그런 걸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처음 대표를 맡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응원이나 긍정의 에너지를 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작년 네트워크 파티를 할 때 저희가 상을 받았거든요, '무력무력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마을지원활동가가 올 때마다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고 그랬는데, 그런 게 큰 힘이 됐던 거 같아요. 작년의 경우를 돌이켜 보면 사람한테 받는 에너지가 중요했어요.

8. 내년에도 지원센터의 공동체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나요? 또 사업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을벽화나 이번 축제를 하다 보니까 안에서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밖에서 보여 주는 것도 좋을 듯해요. 예쁘게 마을 꾸미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골목아고라사업도 해 보고 싶어요. '행복한 마을스케치 모임'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마을을 미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벽화체험이나 체험부스 같은 것도 골목에서 해 보고 싶어요. 근데 공간사업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같이 콜라보도 하고 도와 주기도 하고...

9. 내가 바라고 만들어 가고픈 마을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누가 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림도 그리고 늘 마을 아이들도 보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는 지금이 좋아요. 소박하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소박한 데서 행복을 느끼는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서로 안부 물어보고 아프면 챙겨 주고 먹을 거 나눠 먹고 하는 소소한 행복이 마을에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사소한 거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 같아요. 여기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거든요. 3년 정도 되니까 학교 과제로 지역조사 하러 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동네 아이들은 들어와서 책가방 던져 놓고 책 읽고 사탕 먹고 그러는데, 가끔 아이들의 숙제를 봐 주기도 해요.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좋아요.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데, 동네를 만드는 건 사람들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10. 공동체활동으로 내가 바뀐 점이 있다면(내게 미친 가장 큰 영향 한 가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분명했어요. 일하는 시간 외에는 혼자 커피숍 가고 스트레스 풀고... 그런데 올해 3월 14일 여기에 불이 났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싹 타 버려서 정신없이 멍하고 있었는데, 애들 학교 가면 엄마들이 고무장갑 끼고 와서 다 복구해 줬거든요. 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 주

기도 했는데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제 삶을 돌아보게 됐고, 반성도 많이 했지만 사람들의 소중함도 느끼는 계기였어요. 삶이 소중해지고 감사함이 많아졌어요. 힘든 게 없어지고 스트레스도 없어졌죠. 공동체 활동이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느껴져요. 일과 놀이에 대한 경계도 없어지고 사람에 대한 경계도 없어졌어요. 사람은 모두 똑같고 모든 사람 안에는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 모든 게 공동체활동을 통해 얻게 된 거예요.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의 이모저모

기록: 마을통신원



공모사업? 그냥 하자!

마을을 즐겁게, 자치를 새롭게

교류와 협력을 넘어 실천으로-선진지 탐방

점은 선으로, 선은 면으로

주민과 함께 마을 속으로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설명회

공모사업? 그냥 하자!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설명회

이웃만들기 제안자 참여심사

중간정산 워크숍-정산, 어렵지 않아요!

“함께라서 행복해요”

마을과 자치, 모두가 함께하는 양천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통합설명회가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열렸습니다. 작년 11월 새롭게 출범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마을지원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올해의 활동과 마을사업을 계획하고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200여 명의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마을공동체와 공모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2017년에 시작된 ‘목동들아 파리로 가자’ 기타동아리의 축하공연이 있었고 마을사업을 진행했던 3개팀이 무대로 나와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함께함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올해 확장될 활동계획 등 듣는 동안 빠져들게 되는 경험담을 나누어 주어 마을활동의 재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순서로 공모사업 세부사업별 설명과 보조금시스템 및 집행기준, 자세한 추진일정 등을 안내했습니다. 총 6가지로 진행되는 2019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으며 센터장님의 정성스런 답변 또한 이어졌습니다.

한편 행사장 밖에서도 마을지원활동가들이 시간관계상 추가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자세한 상담으로 채워 주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 복도에 마련된 마을사업 맛보기코너와 사진전 또한 좋은 호응을 일으켰으며, 2월에 열리는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안내를 끝으로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웃만들기 제안자 참여심사

5월 15일(수)-17일(금) 3일에 걸쳐 이웃만들기 제안자 참여심사가 있었습니다. 제안자 참여심사는 제안자들에게 심사를 공개해 공정한 심사를 하는 목적과 더불어 마을에 사는 이웃들이 서로의 활동을 소개하고 알아보는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지는 의미도 크다 할 것입니다. 해누리타운 5층 나눔실에서 진행된 이번 심사는 목동권, 신월권, 신정권으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총 41개팀이 참여했습니다.

독서모임, 실버오케스트라, 음식나누기, 옥상텃밭, 스마트폰을 통한 세대공감 등 다양한 의제를 매개로 행복한 마을만들기에 함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로 돌아와 어르신들을 위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해 보겠다는 88년생 청년에서부터 손뜨개로 가로수에 겨울옷을 입혀 주겠다는 41년생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마을에 대한 애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사는 마을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겠다는 제안자들을 보며 진정한 마을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모두 파이팅~!!



중간정산 워크숍 -정산, 어렵지 않아요!

8월 19일(월) 오전 해누리타운 2층 아트홀에서 '중간정산 워크숍-정산, 어렵지 않아요!'가 있었습니다. '중간정산 워크숍-정산, 어렵지 않아요!'는 사업지기들이 마을사업의 진행 과정을 점검해 보고, 함께하는 이웃지기들을 좀더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양천구 마을공동체의 참일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에코양천'을 캐치프레이즈로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개인 컵을 준비해 오는 것으로 함께했습니다.

먼저 센터장님께서 인사말과 중간정산의 의미와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부에서는 '다름을 알면 이해가 보인다'는 주제로, 간단한 MBTI 검사를 통해 서로의 성격유형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성격을 알아본 후, 같은 유형의 성격별로 모둠을 나눠 여행 계획을 세워 보는 게임을 하고 발표했는데, 성격유형별로 각기 다른 계획이 나와 다름에 대한 이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 구성원의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 더 풍요로워지는 지혜를 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을사업자들이 워크숍에 열중하는 시간, 함께 온 아이들은 아트홀에 마련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강사의 돌
봄 아래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재미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중간정산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중간정산 골든벨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산은 까다롭고 어렵다는 우리의 편견을 깨는 시간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문제 형식에 담아 '골든벨' 퀴즈를
풀어 가면서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제된 17문제를 모두 맞힌 퀴즈의 왕에게는 멋진 왕관을 선물하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정산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조금 번거로운 일일 뿐'이라는 말처럼 미루지 않고 조목조목 정리해 나가다 보면,
양천구 마을공동체 안의 모임별 성과도 차곡차곡 쌓여 갈 것입니다.

이날의 워크숍은 한 해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뿌리는 마을사업의 씨앗들이 잘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해 보고, 함께 활동하는 서로에 대해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마을을 즐겁게, 자치를 새롭게

마을아카데미

마을·자치아카데미



마을아카데미

1강: 마을공동체의 이해

6월 5일(수) 해누리타운 나눔실에서 [마을아카데미:기본] 강의가 있었습니다. 2019년 마을아카데미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마을사업지기와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의 시작 전부터 서로 인사 나누며 안부를 전하는 마을 주민들로 강의장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모둠별로 진행된 소개 시간엔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단어 카드에서 선택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공감, 이해, 배려, 예의 등 다양한 가치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도전'을 선택한 88년생 장한샘 청년활동가가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에서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왜 마을공동체인가?에 대한 강의에서는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더불어 마을공동체와 자치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했는데, 개개인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 마을공동체활동이 곧 자치라는 말에 마을에서 하는 우리의 작은 활동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의의 열기를 잠시 식히기 위한 휴식시간에 이어 진행된 2부의 강의 주제는 '마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사의 활동과 성장 스토리를 중심으로 생생하게 살아 있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모두가 퐁당 빠져들었습니다.

참석한 주민들의 후기 중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을아카데미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마을이라는 공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 준 계기가 되었고, 나의 작은 나눔과 관계 형성이 우리 마을에 큰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강: 사례로 알아보는 마을공동체

6월 11일(화) 오전, 해누리타운 나눔실에서 2019 마을아카데미 2강:사례로 알아보는 마을공동체 강의가 있었습니다.

똑똑도서관 김승수 관장이 지난 10여 년간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즐겁게 실천하고 있는 소소하고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로 40여 명의 참석자들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중했습니다.

재미있고 행복한 마을살이를 위해 김승수 관장이 알려 주는 첫 번째 꿀팁은 '지금! 바로 실천하기!'입니다. 나눔, 소통, 사랑, 연대, 협동 등을 실천하고 행동할 때 나와 나의 이웃, 나아가서 내가 사는 마을이 밝아지고 행복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을에서 열일하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다른 팁은 '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을활동을 하는 목적은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진지하게 연신 집중하는 모습들입니다.

살맛 나는 양천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여러분~행복한 마을살이 함께해요~.



3강: 마을활동의 의미와 가치발견 워크숍

6월 18일(화) 오전 나눔실에서 마을아카데미 3강:마을활동의 의미와 가치발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열활동하는 우리... 시간과 품을 내어 하는 활동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 소개에 이어 마을공동체는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며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 후, 정책으로써의 마을공동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진화과정,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노트에 필기하고 사진에 담으며 강의에 열중하는 모습들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소소하게 하는 공동체모임이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과 구조 속에서 보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공적인 활동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자치아카데미

1강: 마을에서 자치하기

10월 11일(금) 오전 해누리타운 5층 나눔실에서 2019 양천구 마을자치아카데미 1강이 있었습니다.

자치분권 시대, 마을에서 어떻게 자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똑똑도서관 김승수 관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하는 척 아닌 함께하는 마을에서 자치하기’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의에서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행동을 통해서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했는데, 이웃과 주변에 대한 관심과 작은 실천들이 쌓여 살기 좋은 마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실현되고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되는 자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진지하게, 때론 웃음으로 두 시간의 강의를 마무리했는데,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결과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든 과정에 의미를 두며, 주민의 행복을 말하기 이전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구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마을공동체활동과 주민자치활동은 결국 즐겁고 행복한 마을살이를 위한 것이며,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강: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10월 18일(금) 저녁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미디어랩실에서 '마을자치아카데미 2강: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있었습니다.

이번 마을자치아카데미는 마을공동체활동을 하는 활동가와 주민자치위원,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시대, 자치의 무대인 마을에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논골마을 윤수진 주민자치위원장과 신월4동 모의주민자치회 한재분 샘이 패널로 참석하고 관악 마을활동가 여용옥 샘의 사회로 타운홀미팅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여용옥 샘과 한재분 샘의 소개가 있었는데, 마을공동체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달라도 마을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애정과 관심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논골마을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윤수진 위원장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고향마을 논골로 돌아와 마을을 만들고 마을사람들과의 관계망을 통해 마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단체와 주민이 계획하고 참여하는 논골마을축제가 논골마을의 민주적 의사결정의 꽃으로 피어났다는 이야기는 주민자치의 과정에 대한 방향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질의와 응답으로 이어진 타운홀 미팅, 좀 더 가까이에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활동과 주민자치활동을 한 후, 나의 변화에 대한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인에서 마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두 패널의 대답에 참석자 모두 공감했습니다. 소설 속에서 보듯 모든 주인공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는 어려움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마을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에는 노고를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활동을 즐겁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팁을 알려 주었는데, 함께할 친구를 곁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손잡고 갈 동료 있다면 아무리 힘든 길도 즐겁게 걸어갈 수 있겠지요?

진지하게, 때론 웃음으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면서 함께 발견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가치는 '마을의 주인공 되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서로 힘을 주는 시간을 가지며 마을자치아카데미 2강을 마무리했습니다.

논골마을 윤수진 위원장이 마을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3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을을 살피고 돌아보는 발품, 서로를 쓰다듬는 손품, 안아주고 감싸주는 마음품이랍니다.

마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덕목, '3품'을 마음에 새기며 모두 파이팅!!



3강: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10월 22일(화) 저녁 신정1동 페이퍼 자유킴터에서 <마을자치아카데미 3강: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있었습니다.

지난 18일(금)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 마을사업지기와 주민자치위원 등 4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안산 감골주민협의회 이영임 대표와 '자연과 마을에서 별난 걸 다하는 별별마을학교' 팀의 대표제안자 이지영 샘이 패널로 참여하고 여용옥 샘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영임 대표가 감골주민협회가 구성된 과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와 모임들이 협의회로 묶일 수 있었던 것은 주민협회가 나아갈 방향과 위상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실천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을공동체활동이나 주민자치의 본질 또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관계망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쳤습니다.

이어진 타운홀 미팅시간, 마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을활동을 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는 성찰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지역의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한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지금, 현재 마을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한 고민을 더욱 깊이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최영경 샘의 후기처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며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양천구 마을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하며 파이팅~



4강: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10월 25일(금) 오전 신월2동의 스카이그라운드에서 '마을자치 아카데미 4강: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18일(금)과 22일(화)에 이어 여용옥 샘이 사회를 맡고 안산 감골주민협의회 이영임 대표와 '함께 만드는 우리 골목'의 최정아 샘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신월지역에서 열일하는 마을사업지기와 주민자치위원, 동자치지원관 등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활동과 주민자치'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주제로 10여 년이 넘는 다양한 마을활동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의 길을 열고 있는 감골주민협의회 이영임 대표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마을활동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회 활동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함께하다 보니 마을이 중요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성과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 가면서, 여러 가지 마을 의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공동체활동이나 주민자치는 나의 삶 속에서 함께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나누고 마을활동이 나아가야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이어서 최정아 샘의 소개 시간, 자신을 소개하는 사진과 글을 통해 마을활동으로 단단해진 현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무는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서로를 지켜 주기 때문'이라는 말에서 '함께'의 가치를 깊게 이해하고 공감하게 됐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의 시간, 마을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 '나는 마을 활동가인가?' 라는 질문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을활동을 통해 마을을 바꾸고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5강: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10월 29일(화) 오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교육장에서 '마을·자치아카데미 5강: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있었습니다.

이번 마을·자치아카데미는 마을공동체활동을 하는 활동가와 주민자치위원,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시대, 자치의 무대인 마을에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지난 2강에 이어 논골마을 윤수진 주민자치위원장이 주강사로 논골마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도시화에 밀려 논골에 정착한 주민들이 관계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마을을 만들어 온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마을 사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루어 낸 논골마을회의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공동체공간지기 이현진 샘의 마을살이 이야기에 이어 자연스럽게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패널도 관객도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 하나되는 공감으로 교육장의 분위기가 훈훈해졌습니다.

10월 11일(금)부터 총 5강으로 진행된 '마을·자치아카데미'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활동가와 주민자치위원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주민들이 참여했는데,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마을민주주의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교류와 협력을 넘어 실천으로 -선진지 탐방

대전시 유성구 품앗이마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꿈마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서울시 성동구 새활용플라자

순천시(민관합동)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성남시 논골마을



“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대전시 유성구
품앗이마을**
5월 29일 ”

5월 29일(수) 대전 유성구 품앗이마을 탐방을 다녀 왔습니다.

품앗이마을은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미션으로 유성구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이곳은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지역참여형 주민자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품앗이마을이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였는데, 유성구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의 유통과 가공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홍은영 상임이사님이 품앗이마을의 태동과 발전과

정에 대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민과 활동가들이 행복한 마을살이를 위해 고민하고 협동하면서 함께 걸어온 7년여의 시간들이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실패와 어려움을 견딘 비결이 무엇이었나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함께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성구에는 품앗이마을을 플랫폼으로 다양한 주민모임들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중 로컬푸드를 재료로 도시락과 케이터링을 제공하는 열린부뚜막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은 엄마가 만들어 준 집밥처럼 맛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맛있는 점심을 먹고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내 두부제조 공장과 물류센터 견학을 하고 열린부뚜막으로 고고~.

열린부뚜막 협동조합에 대한 이사장님의 설명을 듣고 도담도담 맘스클럽 견학을 갔습니다. 지체장애 엄마를 둔 이웃 아기를 돌보고자 마을의 엄마들이 모여 만든 곳인데, 내 아이도 키우기 힘든 요즘 세상에 어려운 이웃의 아이를 위해 기꺼이 품을 낸 엄마들의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다음 이번 탐방의 하이라이트, 품앗이마을 제2기 도약의 발판 관저동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관저동에 위치한 공동체공간 해뜰어린이도서관에 들러 최순례 관장님으로부터 어린이도서관과 관저신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육아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 품앗이카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더 많은 이웃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자 마을신문사를 설립한 스토리가 놀라웠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어 부러운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 품앗이마을

관저매장입니다.

관저매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 건물인데, 마을 주민과 품앗이마을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사회적 자산화를 이룬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매장 앞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물건 등을 직거래하는 장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탐방의 백미, 품앗이마을에서 장보기가 한창인데, 최연소 탐방객 별하의 장보기 모습이 무척이나 귀엽습니다.

하루로는 짧은 유성구 탐방을 마무리하면서 양천구 마을공동체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마을살이를 해 나가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꿈마을**
6월 28일 ”

6월 28일(금) 노원구 공릉동 꿈마을로 탐방을 다녀 왔습니다.

지속가능한 마을살이를 위해 마을의 주민 모임들이 연대와 협력을 실천하고 있는 공릉동 꿈마을, 마을 공동체 선진지답게 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탐방지는 '공릉동청소년문화정보센터(공터)' 공릉동 꿈마을의 메카인 이곳은 청소년 뿐 아니라 어린이, 청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과 세대에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꿈마을 공동체를 소개하고 탐방 안내를 맡아 준 공릉동 꿈마을 협동조합의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도 이곳에서 진행된 강좌를 계기로 만나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공간은 단순한 활동처를 넘어 지역으로 성장하고 뻗어 나가는 운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층으로 이루어진 공터에서는 와글와글 어린이도서관, 꽃다방, 북고, 되살림가게 등 27개의 크고 작은 동아리들이 각 공간의 이름처럼 '꿈틀', '파닥', '폴짝'거리며 생동감 넘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탐방 팀이 가장 부러워했던 곳은 3층이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 모임 활동 공간뿐 아니라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 페타이어와 같은 재활용품을 이용해 놀이기구를 만들어 즐길 수 있는 옥상 등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전용공간이었습니다. 학부모인 우리 모두는 양천에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팀으로 나뉘어 꿈마을 속으로 출발! 숨겨진 골목 골목 이야기를 들으며 도착한 곳은 '꿈마을사랑방'인데, 지하에 위치한 이곳은 공간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으로 운영되다 지원이 끊긴 몇 년 전 공간을 이용하던 동아리들이 운영비를 십시일반 모아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서' 제공받는 혜택이 아닌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는 자발성과 협동이 마을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춘선 숲길을 산책해 도착한 곳은 '사랑의 날개'. 공릉동 마을계획단이 마을의제로 발굴하고 실행한 사업이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서야 날개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한 명보다 두 명이라 더욱 아름답지요? 화기애애 분위기 좋게 인증샷 찰카~.

공릉 꿈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마을과 마디'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 공간과 공간



을 잇는다는 뜻의 마을과 마디답게 지역의 발달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활동가들이 만든 수공예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전시대에 가지런한 공예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땀 한땀 정성으로 완성한 공예품들은 '나와 마을을 잇는' 마음의 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난 후 도착한 곳은 커뮤니티 공간 '다락'입니다.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자신들이 원하는 마을을 그리는 꿈꾸는 다락방인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봉사하던 주민들 중 취업을 해서 마을로 나가기도 하고, 마을과 마디

에서 판매되는 수공예품들도 이곳에서 바느질 재능 나눔으로 시작되어 발전한 사례라고 합니다.

탐방의 마지막 코스 경춘선 숲길, 화랑대역에서 경춘선길을 산책하며 탐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열린 공간은 운동이다!'

공릉동 꿈마을의 다양한 공간들은 각자의 문을 마을로 활짝 열어 두고 그곳의 사람과 활동들을 교류하며 키워 나가는 운동성을 지닌 공동체의 산실이었습니다.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데는 사람+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특히 열린공간을 시작으로 모이고 공리하고 공동체가 형성돼 다양한 마을살이로 다년간 뻗어온 과정이 인상적이고 매우 좋고 부러웠다. 희망을 본다. '스토리가 있는 우리 마을', 우리 마을만의 공동체 이야기의 역사를 써 나가야 할 것 같다."

최영경 샘의 탐방 후기처럼 우리 양천도 우리 마을만의 공동체 이야기를 써 나갈 것을 약속하며 모두 모두 파이팅~~!!



“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안산시 상록구
사동**
7월 8일
”

양천구는 지난해 목2동, 목3동·신월5동·신정3동, 신정4동 5개동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에 선정됨에 따라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으며, 2021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원활한 전동 확산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의주민자치회 사업을 공모, 3개동(신월1동, 신월4동, 신정6동)을 선정했습니다.

본격적인 모의주민자치회 사업에 앞서 7월8일(월) 안산시 상록구 사동으로 선진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모의주민자치회 사업을 막 시작한 우리와 다르게 앞서 진행하고 있는 '사동주민협의회' 모델이 궁금했으

며, 여러 단체들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등 솟아나는 질문들을 안고 안산 사동으로 향했습니다.

가기 전부터 기대가 컸던 곳이어서 그런지 버스 안에서도 내내 설레었는데, 도착한 사동행정복지센터의 첫인상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반겨 주는 통통우체통과 공유박스에서 느껴지는 주민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영임 부회장님으로부터 '사동주민협의회' 구성과정을 듣는 내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각각 활동하던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주민모임, 학부모회, 동아리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마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실천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지금의 '사동주민협의회'를 발족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의주민자치회도 서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동주민협의회는 별도 예산이 없어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마을돌봄 교실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아프리카 속담처럼 사동에선 마을돌봄 교실을 지난 6월19일 개소하고 마을주민인 2명의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비어 있던 경로당 2층을 마을돌봄 공간으로 내 주게 된 것 또한 사동주민협의회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양천구에도 비어 있는 경로당 2층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제공된 그 공간을 마을을 위해 기꺼이 내어 주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걸친 사동주민협의회 탄생 역사에 폭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할 복합문화공간 마을숲에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에 배꼽시계는 더 열심히 울어 댔습니다. 맛있는 점심 먹으러 출발.

도착하자마자 공동부엌에서 준비해준 맛있는 점심을 먹고 복합문화공간 지하에 자리 잡은 마을숲 통나무공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규모가 큰 공방으로 지역의 공동체공간에 사용되는 가구들을 주민들 손으로 직접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솜씨를 가진 능력자들이었습니다. 디자인부터 자르고 다듬고, 사포질까지 그렇게 정성껏 만든 원목 장난감은 새로 태어난 마을의 꿈나무에게 출생 기념으로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골주민회 대표이기도 한 이영임 부회장님이 감골주민회와 복합문화공간 마을숲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출자금을 내 '마을숲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한쪽 벽면엔 아이들 이름, 단체명, 본인 이름을 새긴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지금의 공간인 복합문화공간이 만들어졌으며 이 공간에서 함께 먹고, 함께 배우며, 성장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공방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목공을 통해 목공예, 가구제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고 문화가 풍성한 마을, 학습으로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마을살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현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돌아오는 내내 부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공동체, 내가 꿈꾸는 주민자치, 모두가 함께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꿈을 꾸어 봅니다.



“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서울시 성동구
새활용플라자**
9월 24일
”

9월 24일(화) 성동구에 있는 새활용플라자로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새활용(업사이클링)’이란 개선한다는 의미를 갖는 업그레이드(upgrade)와 재활용(recycling)의 합성어로, 폐기물을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제품 혹은 작품을 만드는 일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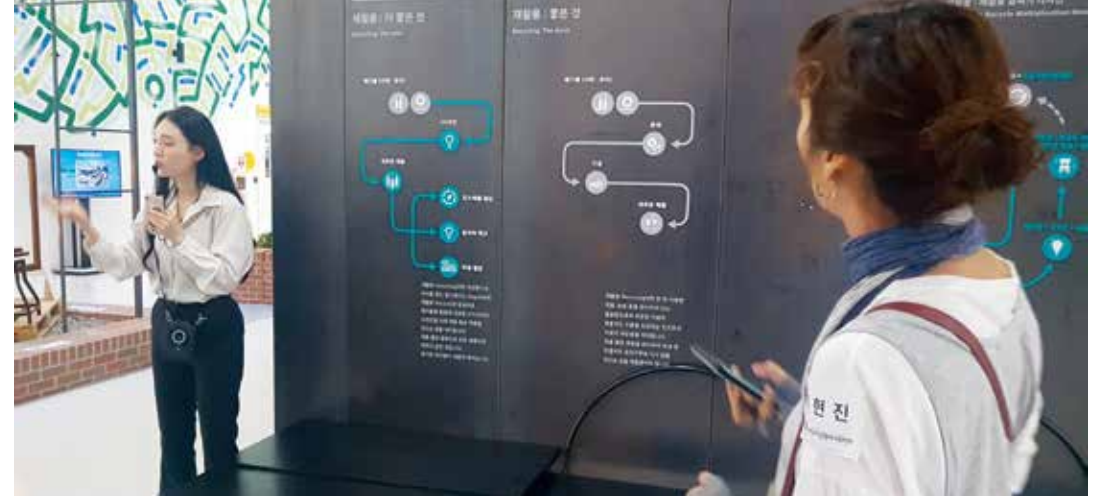
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이번 탐방은 마을공동체활동을 하는 주민모임들이 새활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마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먼저 해설사의 안내로 새활용플라자의 공간을 둘러보았는데, 무심히 버리는 물건들의 부품이 실용적이고 멋진 물건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유팩이 카드 지갑으로, 신문지가 접시로, 양말목이 방식으로 변신한 작품 앞에서는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새활용플라자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작업장을 둘러봤습니다. 버려진 물건들이 새로운 디자인과 가치를 담은 제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새활용플라자 안내를 마친 후, 폐가죽을 활용한 가죽키링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자투리 가죽을 이



용해 ‘나만의 키링’ 만들기에도 도전하는데, 버려진 가죽에 도안을 그리고 오려서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작은 아이디어와 관심이 새활용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의미를 녹여 만든 ‘나만의 키링’, 훌륭하지요?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새활용의 시작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배출이라고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불편함을 즐기며 실천하는 양천구 마을공동체가 될 것을 약속하며 파이팅~!



“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순천시(민관합동)
11월 6일-11월 7일
”

11. 6(수)-11. 7(목) 이틀동안 '민과 관이 협력하여 만든 마을과 도시재생의 선진지' 순천으로 민관합동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탐방 일정은 중앙동/천태만상창조센터->기적의놀이터->순천만습지->청수골새뜰마을->문화의거리 순으로 1박2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점심식사 후 먼저 중앙동 주민자치회 최두레 회장과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으로부터 2000년 대 초반 순천만지킴이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순천의 마을만들기 역사와 주민 주도 민관협력의 다양한 사례, 순천의 생생한 도시재생 이야기를, 구수하고 재

기 넘치는 전라도 사투리와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을에서 품을 내서 일을 하는 이유가 단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거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최두레 회장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면 공무원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방법을 알려 주고 해보라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역할 하는 자리라는 김석 사무총장의 얘기에다 모두들 크게 공감했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약 3년 동안 민관이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말에, 부러움과 함께 그것이 20년 가까이 지치지 않고 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천에는 김석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조만간 김석 사무총장을 양천으로 초청해서 못나눈 이야기를 이어가 봐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소중한 강의에 이어 기적의 놀이터, 청수골 새뜰마을, 문화의 거리 탐방을 통해 두 사람이 들려줬던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을곳곳에, 골목 이곳저곳에 주민들의 정성스런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 손길이 매우 창의적이고 순천만의 특성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천만의 갈대와 멋진 노을,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는 이번 탐방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 주었습니다. 올라오는 버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들려준 소감처럼 우리 양천도 전국에서 탐방 오는 멋진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요.



“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11월 30일
”

11월 30일(토) '민과 관이 협력해 만든 마을과 도시 재생의 선진지' 순천으로 2차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탐방은 아이들이 함께하는 마을사업 팀들이 주가 되어 참가한 것이 큰 특징이었고, 이에 맞추어 '기적의 놀이터', '문화의 거리' 등 참여자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장소들로 탐방 일정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새벽 6시 30분, 평상시라면 곤히 잠들어 있었을 시간, 삼삼오오 모여든 참가자들은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나지만, 설레이는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건네고, 함께한 일행을 챙기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앞두고 조금은 걱정이 어린

어른들과 달리 해맑게 기대감을 나타내는 아이들의 모습에 절로 웃음이 지어집니다.

탐사 일정 동안의 안전에 대한 당부를 시작으로 순천을 향해 출발. 차 안에서 조금은 낯설고 쑥스러운 자기소개와 참가 계기, 마을사업활동 내용들을 음성으로나마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두런두런 나누던 작은 이야기 소리도 이른 아침의 노곤함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의 시간에 잠겨 듭니다.

낮선 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들어선 순천은 12월로 접어드는 시기가 무색하리만큼 선명한 붉은색



의 꽃과 싱그러운 초록잎이 맺혀 있는 가로수가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동행한 일행들에 대한 배려가 엿보이는 중화식 점심식사로 짜장면과 탕수육을 만나게 먹고, 따뜻하고 청명한 순천의 하루 속으로 첫걸음을 뒀습니다.

자료도 찾아보고 손꼽아 기대했던 '기적의 놀이터 1'에 도착한 첫 마음은 '생각보다 굉장하지 않은 평범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웅장한 시설물도 화려하게 시선을 끌만한 기발한 놀이기구도 없는 '낮선' 놀이터의 모습 때문입니다. 웅성웅성 어른들의 어리둥절함은 곧 아이들의 웃음 소리에 묻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언덕을 오르고, 모래사장을 제치고, 둔덕을 박차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자, 마음이 두근두근해집니다.

좋은 활동지를 귀감 삼아, 아이들에게 더욱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했던 의무감을 살짝 내려놓고, 어릴 적 추억에 있는 수동식 펌프를 조작해 보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썰매가 되어 아이와 함께 슬라이드를 타고, 박스를 깔고 언덕을 구르며 잔디복숭이가 되는 동안, 이 놀이터의 특별함을 조금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신나게 놀던 어른들이 지쳐 갈 즈음에 딱 맞춰서 문형숙 놀이터 리더님이 찾아오셨고, 놀이삼매경인 아이들을 배경으로 '기적의 놀이터'의 특별함과 특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설계의 시작과 진행, 마무리, 현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주축이 어린이가 되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머릿속에서 '아차! 이걸 놓치고 있었네!' 라는 깨우침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만들어 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꾸러 가도록 하는 부분에서 보완할 점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기적의 놀이터 5'가 새로운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각의 놀이터가 시작점인 '기적의 놀이터 1'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에 충실하지만, 각자의 개성을 갖고 발전해 가는 그야말로 '순천형 놀이터'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시공법의 선택,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 외부로의 공개 활동 등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활동가의 설명만큼이나 관심과 문의가 많은 사업지



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과, 소속된 마을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 푸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페이스 넷트’와 ‘바구니그네’가 인상적이었던 ‘기적의 놀이터’에서는 지속형 사업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계속해서 협의하고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기적의 놀이터 10’을 완공할 때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조례

를 만들어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인력의 총원과 사업 활성화를 보조하기 위한 파생 사업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부연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관에서 만들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나왔을 때 관련된 이들이 의견을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간다는 것, 무엇보다 주민이 주가 되어,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방향을 찾아간다는 점은 필히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도심 지역에 형성된 놀이터에서의 신나는 놀이와 여흥을 뒤로 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구도심의 ‘문화의 거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도시여행협동조합의 활동가 선생님을 만난 곳은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앞의 공터였습니다.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용도를 잃은 공간에 모이는 것을 걱정하는 대신에 ‘청소년수련관’을 세우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 재생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후, 문화의 거리 골목 곳곳의 공간들을 살펴보면 각 건물들이 갖는 역사적 의미, 공간을 재생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어떤 활동을 펼쳤으며, 지자체에서는 어떤 지원 활동을 했는지 설명들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공동화 현상으로 쇠퇴했던 흔적과 현재의 활용 모습, 그 공간을 재생시키는 현장의 일선에서 활동을 하는 활동가, 재생된 공간에서 꿈을 펼치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 볼 수 있는 뜻깊은 탐방이었습니다.

탐방 중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유부엌, 외지인들이 무료로 숙박을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연로한 지역 주민들의 특성을 반영해 함께 꾸려 나갈 수 있

는 사회적 기업이 자생한 청수골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참여 계층이 다양하고, 공간 자체가 개방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주민들이 꾸려 가고 있는 문화의 거리를 걸으며 공동체활동의 나아갈 방향성을 한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기적의 놀이터, 문화의 거리에서 만났던 활동가들이 가장 강조하고 긍지 높게 이야기하던 것은 지금의 성과도 미래의 계획도 ‘모든 것은 주민으로부터 기인했고, 주민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젠가 양천구 공동체모임에서 만났던 마을사업지가 밝고 따뜻한 눈빛으로 활동을 소개해 주며, 앞으로의 활동을 이야기하던 그 어느 날이 함께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풍요로운 저녁식사를 마

치고 돌아오는 차 안, 개개인이 겪고 느낀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녘의 수줍고, 낮설고, 어색했던 시작은 열어지고 하루를 ‘공유한 우리’가 남아 한층 가까워진 나눔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들 얼굴을 보자니, 식당에서 슬쩍 봤던 아이들의 설문지에 수줍지만 아이다움으로 기록된 답변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새벽 서울을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을 동행하고 멀리까지 가려면 힘들지 않느냐는 물음에, “아이들은 미래고, 그 아이들이 보고, 체험하고 한 가지라도 느끼는 것이 있다면, 오늘의 일정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센터장님의 한마디로 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12월을 하루 앞둔 토요일 늦은 밤, 우리는 새벽보다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이현미(마을사업지기)



“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성남시
논골마을**
12월 13일-12월 14일 ”

12월 13일, 오후 3시 불타는 금요일. 양천구의 다양한 마을공동체모임의 대표제안자 1번을 주축으로 초대된 이번 탐방은 마을자치아카데미를 통해 양천과 인연을 맺은 윤수진 관장이 있는 논골마을로 1박 2일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1박 2일 집을 비우려니 나오기까지 신경 쓰이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남편 월차에, 시댁 찬스로 어떻게 얻은 기회냐 싶어 마치 감춰진 맛집 비법을 전수받는 마냥 뭐라도 얻어 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나섰습니다.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 일정에 한껏 부푼 마음을 아는 듯 성남시 단대동 논골마을로 가는 길마저 시원하게 뱅뻑 뚫렸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논골마을의 첫인상은 도심의 화려함은 눈 씻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고, 소박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주친 할머니의 반가운 인사와 함께 어디서 어떻게 왔냐는 질문에 “논골마을이 유명해서 배우러 왔어요.”라고 하니 환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만난 생판 모르는 타인에게 받은 환대로 설레던 마음이 더욱 부풀었습니다. 이 동네의 비밀이 뭘까 싶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득 품고 열혈 마을활동가 김경옥, 김다운 팀장님을 만나 우선 숙소로 이동해 짐을 풀었습니다.

두 팀장님의 소개는 논골마을 마을공동체활동의 역



사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대략 20년 전, 아이들을 키우면서 논골마을에 자리를 잡고 공동육아부터 여러 공동체활동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마을을 만드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스스로 성장해 자리매김하고 각자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숙소 공간 바로 아래층에는 마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일과 시간대별로 점핑스타, 요가, 줌바댄스, 기타교실부터 공예, 청소년봉사단모임 등 이곳이야말로 시시각각 변하는 트랜스포머 공간이지 싶습니다.

밖으로 나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은 상원여자중학교 앞 담벼락. 그 앞에 잠시 서서 훼손돼 지저분해진 높다란 학교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게 된 사연을 들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다소 남루해진 저층 주택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논골(논 골짜기)에 계획적으로 조성된 주택가로 대략 2,500세대가 삽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가 대략 3~60cm 남짓 불과한 빼곡한 주택가입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곳곳마다 그려졌다는 야생화와 타일벽화가 분위기를 환기하며 이색적으로 다가



읍니다. 차가 한 방향으로 간신히 다닐 정도의 골목에는 상가가 있을 공간마저 없어 어쩔 수 없이 슈퍼마켓 한 군데가 독점하고 있다는 보기 드문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아이들 뛰어놀 만한 흔한 놀이터 하나 없어서 예전에는 길 한 모퉁이에 돛자리를 깔아 놓고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놀게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든 생각이지만, 이러한 마을형성의 배경이나 특수성이 아마도 지금과 같은 논골마을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을을 쪽 돌아보고 저녁식사를 마친 뒤, 논골 대안공간 <틈>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개인 주택 일부 공간을 개방해 마을 전시공간인 '갤러리 틈'과 문화발전소 '디딜 틈'을 만들었습니다.

종종 마을전시회가 열리는 갤러리 틈은 개방 시간대를 비켜 들르지 못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기획하고, 소리를 내고, 흐드러진 몸짓으로 만든 콘텐츠를 선보이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문화발전소인 '디딜 틈'을 들렀습니다.

가족 대대로 열혈 마을공동체활동을 일상적으로 하던 집에서 자랐던 공간 주인장은 취지에 공감해 개인사업장공간을 주민공동체공간으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논골마을 작은도서관'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오늘은 7시 30분부터 매년 한다는 기타동아리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도서관 1층 공간에는 벽면에는 책이 뽕 둘러 꽃힌 곳이지만, 오늘은 무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행사나 모임의 성격마다 공간이 변신한다고 합니다. 저녁시간에 진행되는 발표회인데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마을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기타동아리 초급부터 고급까지 수년에서 수개월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꾸준히 갈고 닦은 실력을 한껏 뽐내고 즐기는 이 자리가 마치 연말 선물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기타 선율에 노래를 흥얼거리며 손뼉을 치며 한동안 그렇게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족 단위로 마을에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냥 즐기고 싶었으나 시간은 유한하니 소기의 목적대로 윤수진 샘을 따로 만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도서관 3층 공간에서 논골마을의 마을공동체 역사와 그 과정을 만들어 온 산증인에게 직접 그곳에서 들으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각자의 영역과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고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고 배우면서 마을공동체의 역사를 써 온 것 같았습니다.

첫 시작은 '마을공동체'의 주체는 바로 '마을 누구냐!' 마을 안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열린 마을공동체가 되려면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논골마을 장터를 열기 위해 반년 이상을 온 동네 주민들이 다 알도록 지하철 역사부터 일반사업장까지 가가호호 구석구석 발품을 팔아 홍보하고 알렸다는 것에는 이미 그 가치가 녹아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 참여도 독려하지만,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활동에 대

한 공감대가 생기는 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을행사나 활동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한다고 합니다. 가령 마을 축제에 경품으로 순댓국 5그릇을 쿠폰으로 찬조한다든지, 사장님이 잘하는 노래를 하러 무대로 올라간다든지, 그러면서 마을과 계속 밀접하게 연결돼 갑니다. 그 외에도 논골마을에는 유독 모든 마을행사가 가족 단위의 참여형으로 진행되는 것과 마을과 학교가 연계해 청소년 주도의 활동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성보경영고 청소년들이 어르신 미용 봉사하고, 그 과정을 대안공간 틈의 공간지기 샘은 어르신 사진을 찍어 마을전시를 여는가 하면, 매해 대단위의 가족참여 캠프를 진행하거나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100가정의 신청을 받아 마을산타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선물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타운이라고 하는 양천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 주축으로 주민모임과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는데 비해 다양한 연령층, 가족 단위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서 누구나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것이 부럽고 좋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을활동하면서 일에 치여서 이러한 공동체로 연대를 할 기회가 없는 남자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안타깝게 느껴진 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마을활동들이 누가 주도하거나 이끌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을 찾아 주체적으로 척척 일어나기까지는 물론 그만큼의 과정도 필요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마을 안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계속 모여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시간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싶습니다.

윤수진 관장님을 비롯한 김경옥, 김다운 마을활동가 샘들과 우리의 이야기는 새벽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지도 모르게 끝이 없이 이어졌습니다. 새벽녘에 숙소

에 돌아왔지만, 짧은 시간 보고 듣고 느낀 것에서 그간의 마을활동 경험이 교차되면서 끊이지 않는 이야기로 잠을 잊은 채 이야기의 장을 이어 갔습니다.

7시 반경 밖으로 나가 남한산성 아래의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논골마을을 한 바퀴 산책했습니다. 산책하며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심마다 골칫거리인 저층 주택가의 쓰레기 문제가 극심한 데 비해 골목골목마다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 논골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성과 시민의식의 정도 차이일까 생각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논골마을 작은도서관을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1층에는 토요일마다 청소년들이 꾸려가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이미 열람실에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 도서관을 좋아하기에 그 모습이 왠지 편안하고 정겨워 보였습니다. 서고에 꽂힌 책들

을 둘러보다가 유독 이곳에는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도서가 많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성장했다는 논골마을다웠습니다.

이후 어제 둘러보지 못했던 마을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마을 벽을 타일로 새롭게 단장하면서 참여한 마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기록해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징'과 '기록'을 남기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잠시 지나쳤던 마을 카페에 갔습니다. 마을 주민 몇이 출자를 해 옆에 작은 공방이 딸린 마을 카페공간을 마련하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과 장애가 있는 청년들이 함께하는 자활기업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시시때때로 마을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마을 안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존재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기회,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도심에서는 과연 어떻게 마을 안에서 필요한 자원을 찾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의 짧은 시간 동안 알차게 논골마을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버스를 타고 남한산성으로 향했습니다.

남한산성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도 동행한 김경옥 샘의 그간 아이들과 함께했던 여러 활동을 들으며 '누군가는 생각만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그 일을 시도하고 계속하고 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꿈꾸는 세상이 있다면 혹은 삶이 변화되길 바란다면

그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연결돼야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도 마을활동을 시작한 것은 변하지 않는 일상을 원하는 일상으로 내가 먼저 꾸려 봐야겠다는 소소한 시작이 동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꺼내 놓고 이야기했을 때, 같이 공감해 주고 같이 해 보자고 했던 마을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마을사업공모를 통한 마을활동의 경험은 자발성에 기초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저마다 세상이라는 큰 그림 속에 소모적인 하나의 존재가 아닌 스스로 빛을 내며 역할을 다하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논골마을을 다녀오며 마음에 새긴 몇 가지 깨달음입니다.

- 마을 주민은 '누구나'이다.
- 마을에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체의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 마을공동체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한다.
- 학습하는 마을공동체는 성장한다.
- 마을공동체는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말과 글이 아닌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배움의 기회를 선물해 주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감사 드립니다.

점은 선으로, 선은 면으로

양천구 마을공동체 권역별 네트워크파티

신월권/신정권/목동권

양천구 마을공동체 주제별 네트워크파티

공동체공간/성장과 나눔/교육과 돌봄

양천구 마을공동체 권역별 네트워크파티

/신월권/

7월 9일(화) 오전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미디어랩실에서 신월권 네트워크 파티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양천구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권역별로 모여 소통하고 호혜의 관계망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네트워크파티에 50명이 넘는 마을사업지기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의 현장에 마을통신원이 다녀왔습니다.

‘프라이드 그린토마토’ 팀의 활동장소인 서서울예술교육센터, 파아란 하늘 향해 자란 해바라기가 반갑게 맞아 줍니다. 네트워크 파티가 열리는 지하 미디어랩실, 모듬별로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색색의 풍선과 활동지에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을 담당 마을지원활동가들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속속 도착하는 사업지기 샘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반짝반짝 포토존! 팀별 미니현수막을 들고 모듬별로 찰칵! 신월7동 ‘맘밸런스’ 팀 이현미 샘의 당당한 포즈, 멋지죠?

드디어 시작된 파티 진행은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끼쟁이 은경 샘이 맡았습니다.

센터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함께 준비하고 도와준 동료 마지할 샘들을 소개하는 모습에서 양천마지할들의 팀워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월권역에서 활동하는 모임들의 활동사진을 모아 만든 팀소개 영상과 화면에 등장한 자신의 팀을 보며 미소 짓는 사업지기들의 얼굴을 옆에서 지켜보는 마을통신원도 더불어 흐뭇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신월3동에서 ‘신월 실버 스마일 오케스트라’ 팀을 이끌고 있는 멋진 청년, 장한샘 군의 축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센스 있는 선곡과 청중을 사로잡는 연주로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가장 큰 공간인 미디어랩실이 터져 나갈 듯했습니다.

한껏 고조된 분위기가 모듬별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네 글자로 자신을 표현하는 이름표를 만들어 모듬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엄마와 함께 참석한 하준 군의 깁스 투혼이 빛났습니다.

우리모임과 마을을 상상하고 디자인해 보는 ‘키워

드, 우리마을 디자인' 시간에는 내가 상상하는 마을, 우리모임 뽀뽀뽀, 우리마을 뽀뽀뽀, 마을+연결 등 4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모임만큼 다양한 키워드가 등장했는데, 내가 상상하는 마을은 배려, 나눔, 소통, 꿈을 키우는 마을 등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우리모임 뽀뽀뽀는 함께, 단합, 소통 등이 많았는데,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며 자랑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우리마을 뽀뽀뽀에서는 시장이 가깝고 호수공원이 있는 안전한 마을자랑을 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우리마을에 사는 이웃들이 가장 큰 자랑거리로 뽑혔습니다.

모임과 모임, 마을과 마을이 원활한 네트워킹과 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함께 모일 수 있는 공유공간, 네트워크파티 자주 하기, 나눔활동의 다양화 등의 키워드로 모아졌습니다.

참석자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을 만들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모임을 찾아 교환하는 교류의 시간을 끝으로 신월권역 네트워크파티를 마무리했습니다.

활짝 웃으며 단체사진을 찍는 참석자들의 모습에서 신월권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모임과 사업지기들이 소통과 호혜의 관계망이 보다 넓어지고 촘촘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88년생 마을청년 장한샘 군에서 41년생 서명석 어르신까지 '즐겁고 행복한 마을살이'를 위해 마음 모아 주신 신월권 마을공동체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 권역별 네트워크파티

신정권

7월 9일(화) 오전, 신정 1동 페이퍼 자유킴에서 신정동을 들썩이게 한 멋진 파티가 열렸습니다. 바로 양천구 마을공동체 신정권 네트워크파티입니다.

우리마을지원사업, 마을해결책, 이웃만들기, 골목아고라, 주민모임연합사업 등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 선정된 18개 팀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알아 가고 활동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자리였습니다.

파티에 입장하며 빛나는 지금의 순간을 플라로이드에 담아 모듬별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캔디 대마왕을 뽑는 시간에는 5개의 사탕을 가지고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예, 아니오로 답을 하면 지게 되는 게임이었는데, 처음 해보는 활동임에도 어색함 없이 게임에 집중하는 모습이 순수한 아이들 같았습니다.

모임소개 시간에는 각자의 활동과 자랑거리, 올해 계획을 공유하며 마을공동체 형성, 마을공동체 성장, 마을공동체 연결까지 서로에게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나를 있게 한 소중한 경험과 10년 후의 장래희망에 대해서 적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즐거운 마을살이를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자리로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한걸음 더 마을을 이해하고 마을속 다양한 즐거움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성스레 파티를 준비한 마을지원활동가와 마을지원센터에 감사 드리며 흔쾌히 공간을 내어 주신 페이퍼에도 감사 드립니다.



/목동권/

7월 11일(목) 오전, 양천구 마을공동체 목동권 네트워크파티가 있었습니다.
 포토존의 컨셉은 '팅커벨처럼~' 날개와 머리띠, 요술봉을 들고 포토존에 선 마을사업지기들의 얼굴엔 동화 속 동심이 가득합니다.
 센터장님은 심술 요정의 표정인걸요?
 마을지원활동가 해완 샘과 동매 샘의 발랄한 진행으로 네트워크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센터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신월3동 '신월 실버 스마일 오케스트라' 팀의 대표제안자 장한샘 군의 축하 연주가 있었습니다.
 신월권에 이어 목동권역 마을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낼 줄 아는 마을청년, 장한샘 군은 바깥 날씨를 고려해 차분하고 감동적인 선곡으로 분위기를 살려 주었습니다.
 목동권역 네트워크파티의 주제는 '마을책 만들기'.
 먼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친해지기 위한 모임별 소개의 시간을 가졌는데, 한 모임 한 모임 소개할 때마다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모임별 소개에 이어 '마을책 만들기'가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모임명이 쓰여진 12개의 우드락에 모든 팀들이 돌아가면서 인사말과 덕담을 적어 12장으로 이루어진 마을책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서로 돌려 가며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는 손길에 정성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마을책!

'맛난 세상~!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주는 멋진 팀~! 파이팅!^^'

'편견 없는 따뜻한 비빔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고예요.'

'마음으로 다가가는 친구가 되는 팀이네요!'

'우리 동네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받아 들고 긍정의 에너지로 기운이 팡팡~.

모임별로 가장 마음에 드는 글귀를 소개하며 서로에게로 한걸음 더! 마을 속으로 한걸음 더!

목동권 마을공동체 파이팅을 힘차게 외치며 목동권 네트워크파티가 마무리됐습니다.



/공동체공간/

11월 25일(월) 오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2층 교육실에서 2019 양천구마을공동체 '네트워크파티 시즌 2'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권역별(목동권, 신월권, 신정권)로 진행된 네트워크파티에 이어 11월에는 주제별 네트워크파티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주민모임 간의 교류와 연대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네트워크파티 시즌 2의 세 가지 주제는 공동체공간, 성장과 나눔, 교육과 돌봄입니다.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올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중에서 공간활성화 지원사업인 '들樂날樂' 사업을 통해, 마을에서 공동체공간 운영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목4동 '애플당당 스튜디오'의 이현진 샘과 함께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공동체사업이 그렇듯이 "보석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이현진 샘의 말은 자리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개인공간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전면개방해서 30여 개의 모임이 이용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지 등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 모두는 '공동체공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마을의 일꾼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 준 이현진 샘에게 감사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마을모임을 이어 나가기를 바래 봅니다.



/성장하고 나눔/

11월 27일(수) 신정1동 바느질하는 바리스타에서 '네트워크파티 시즌 2'가 있었습니다.

지난 25일(월) '공동체공간 이야기'에 이어 이날은 '성장하고 나눔'이란 주제로 김정심 샘과 김창숙 샘이 마을과 함께 성장하고 나눔이 이루어진 이야기를 함께했습니다.

먼저 우리마을지원사업인 '행복한 수작'의 대표 제안자인 창숙 샘이 지난 1년 동안 행복한 수작의 이모저모와 했던 작업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소품을 위주로 장바구니, 패브릭 필통, 바구니 등 사진만 봐도 정말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온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느질을 매개로 소통을 하고 회원들도 활동에 자부심을 느끼며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마음에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날 입고 온 철릭(개량한복의 일종)도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 솜씨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어서 마을지원활동가 정심 샘의 나눔이 있었는데, 정심 샘은 몇 년 전 마을 통장을 하며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한 양천마을의 베테랑 활동가입니다. 그런나래 도서관에서 책 읽어 주는 봉사, 마을지원 활동가, '양천모임, 나눔 바느질 이야기' 등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책과 바느질로 마을에서 이웃과 소통



하는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유치환의 '행복'을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두 샘의 생생한 이야기 후에는 모두 둘러앉아 이야기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말 잘 못해요.” 하며 난색을 표하거나 고개를 가로챘던 사람들도 차례가 되면 왜 그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잘 못한다는 말을 곧이 들으면 안되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육아우울증세가 있었는데 나와서 활동하니 사라졌어요.”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를 하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외진 지역에 공방을 열었더니 아무도 안 오고 비용은 계속 나가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둘 드나들기 시작하고 이젠 일이 있으면 편하게 맡기고 외출도 합니다.”

“마을공동체활동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정해진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간 뒤엔 다들 천과 바늘을 들고 바느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 앞에 잠깐 나갈 때 들고 다니면 딱 좋은 아담한 사이즈의 스트랩 가방 만들기. 밀작업을 해 와서 흠질 몇 번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런,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날 파티의 청일점, 센터장님의 바느질 솜씨를 보니 처음 바늘을 만져 보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완성을 향해 열심이었습니다.

모두들 수다를 떨며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마을활동 이야기, 만두 맛있게 빚는 팁 전수까지 주고받으며 즐겁게 바느질해 다들 예쁘게 들고 귀가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즐거운 사람들, 내년에도 마을활동으로 또 만나요, 오늘처럼 반갑게요.



/교육과 돌봄/

11월 29일(금) 오전 '네트워크파티 시즌 2'가 있었습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간의 연결과 협력을 촉진하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힐링의 장, 네트워크파티 시즌 2~. 마지막 시간으로 교육과 돌봄을 주제로, 신정3동에 있는 연의공원 북카페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월7동에서 공동체공간 온즈코코를 운영하면서 올해 이웃만들기사업을 진행한 이현미 샘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평소에 넘치는 에너지와 아이디어로 항상 활기가 샘솟는 이현미 샘의 주부로만 지내다가 마을로 나와서 모임을 이끌고 아이를 키우면서 겪어 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몽클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동화 《줄무늬가 생겼어요》에 나오는 줄무늬와 할머니 그리고 아육공은 각자에게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주제이고 현실에서 항상 마주하는 문제인 만큼 이번 네트워크파티에 참석한 주민모임들 간에 교육과 돌봄을 주제로 하는 후속 모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듯합니다.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주민 주도의 다양한 활동과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마을 속으로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한마당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한마당

10월 5일(토) 파리공원에서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의 모든 주민모임이 참여하는 마을축제입니다. 부스운영자 350명, 공연참가자 250명을 포함해 약 2,500여 명의 마을 주민이 함께했습니다.

체험, 홍보, 에너지, 먹거리, 공연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 행사에 마을공동체 주민모임들의 활동사진을 전시하는 '마을사진전'과 서울시가 지원하는 '마을밥차', '에너지놀이터'가 더해져 더욱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파리공원, 오늘의 주인공인 마을사업지기들이 속속 도착하자마자 준비해 온 재료와 홍보물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정리하는 손길에 정성이 가득합니다. 10시 40분 식전 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데, 기념식이 진행될 무대 앞으로 주인공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기념식엔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 가림막이 벗겨지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양천모임, 나눔 바느질 이야기' 팀이 한 달여에 걸쳐 손바느질로 만든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한마당' 글자 아래로, 공동체공간지기 이현진 샘과 마을사업지기들이 축제 전날 12시간에 걸쳐 그린 마을공동체그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마을공동체의 정신이 스며 있는 그림 위에 마을 주민들이 그림과 글귀를 새겨 넣었는데, 드디어 마을공동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어진 축하공연의 첫 번째 순서는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팀의 만화영화 주제곡 메들리였습

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도'밖에 모르던 중년 남성들이 노래를 통해 이웃을 만들어 가고 있는 '도만 아는 중창단', 몇 차례의 발표회를 거치면서 일취월장 발전한 노래 실력, 화음과 박자가 예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호흡이 척척... 그동안에 쌓인 팀워크가 느껴졌습니다.

노래 중간에 중창단의 멤버 박현주 샘이 인사말과 함께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며 느낀 점과 변화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집에서만 지내던 독거남이 마을공동체활동을 통해 집 밖으로 나오게 됐으며, 이웃들과 노래를 하면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행복하다는 말에 모두가 박수로 응원했습니다.

축하공연이 끝나고 본격적인 교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모임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 부스는 '마을 속으로 풍덩'(체험), '우리모임 뽀뽀뽀'(홍보), '에코양천존'(에너지), '마을밥상존'(먹거리) 등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모두 63개의 부스가 참가했는데, 각각의 모임을 소개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킹의 장이었습니다.

마을축제답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과 연령이 다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한마당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가족인 듯 뚝자리를 펴고 서로의 아이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마을공동체의 호혜와 상호부조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한마당'의 또 하나의 명물로 '마을밥차'를 꼽을 수 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재료와 정성으로 현장에서 만들어 제공한 짜장면과 탕수육으로 공동체의 따뜻함을 나누었습니다. 두 시간도 채 안 되어 600인 분이 동이 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주신 강동무료급식봉사회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다른 눈길을 끄는 코너는 이름하여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마을사진전'.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모임들의 활동사진을 모아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이 신중한 모습으로 마을활동이 잘 드러난 사진을 선택해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날 득표 수와 전문가의 심사를 반영해서 12장의 마을사진을 선정해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달력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사진들이 뽑힐까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후로 접어든 시간에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웃들의 발길로 파리공원이 유례없이 북적였습니다.
오후 2시 공연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신월 노인참여나눔터 어르신들이 '선구자'를 합창했는데, 머리에 빠알간 꽃을 꽂은 모습이 소녀처럼 어여뻐했습니다.
뭉트는 양말목을 이용해 나무에게 입혀 줄 뜨개모임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지난 8월 마을통신원으로 방문했을 때, "따뜻한 겨울옷 입고 추운 겨울이면 내년 봄엔 나무들이 훌쩍 자라 있겠제... 잘 자라야지... 우리들은 떠나도 나무들은 우리 마을에 남아 계속 살아갈 것 아냐." 하던 말이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부스 마감 시간도 다가오고 흥이 넘치던 18개 팀의 공연이 끝나자 공동체 뒷풀이의 시작을 알리는 풍물패의 길놀이가 이어졌습니다. 신명나는 풍물패가 이끄는 길을 따르는 주민들의 모습이 마치 커다란 물줄기로 모여지는 듯 했습니다. 주민 하나하나의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선들이 모여 면을 이루는 거대한 마을공동체의 기운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풍물패를 따라 모이고 커진 마을의 주민들이 마당 한가운데로 모이고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한마당' 뒷풀이의 하이라이트 박 터뜨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모두의 힘을 모아 줄을 당깁니다. 함성과 함께 터진 박 속에서 나타난 것은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600여 명의 주인공 모두의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찾으려

현수막을 올려다보는 눈동자엔 마을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바탕 놀던 풍물패의 길놀이가 잦아들 때쯤 500여 명의 주민들이 무대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둘러서서 딱딱한 피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덕담을 나누는 것으로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한마당'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후기〉

- 공동체 그림 그리기, 마을밥차, 공동체 뒷풀이 등에서 “함께라서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축제였다.
- 돗자리를 펼친 마당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배려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진 축제였다.
- 함께 준비하고 뒷풀이와 마무리도 함께한 마을공동체의 협동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축제였다.
- 남녀노소 연령과 계층을 아우르며 마을공동체 주민모임과 일반 주민이 다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마을축제였다.
- 마을사람들이 서로 눈을 맞추며 이야기 나누고 함께 어우러진 감동을 주는 자리였다.
- 놀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가 다양했고, 준비한 사람들의 정성이 깃든 축제였으며, 참여자나 부스운영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한 공동체한마당이었다.
- 마을공동체모임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축제 운영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고, 주민자치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10시, 양천구청 3층 양천홀에 떠들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보통 주민으로 살면서 구청에 올 법한 일이라곤 민원이나 서류 땔 일이 있을 때 정도 아닐까 했는데, 오늘만큼은 주인공이 된 으쓱한 마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 마음을 환영하기라도 하는 듯 널찍한 양천홀을 들어서기 전 로비부터 특별함을 더해 주는 레드카펫과 파티풍선 장식, 블링블링한 포토존, 마을사업 팀 ‘행복한 수작’과 ‘양천모임, 나눔 바느질 이야기’의 한땀 한땀 장인정신이 깃든 정감 있는 작품들이 우리를 반겨 줬습니다.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장에 들어서자 등근 테이블마다 이맘때를 알리는 포인세티아 화분과 한해 동안 곳곳의 마을 팀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준 반가운 마을지원활동가들의 이름이 곳곳에 꽃혀 있었습니다. 정성으로 마련한 간식과 행사 안내장을 받아두고 자리마다 앉으니 왁자지껄, 시끌벅적~. 그간 못 나눈 이야기를 나누기라도 하듯 마을 주민들의 서로 반가운 인사와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마을사업을 처음 하면서 마무리 자리로 ‘아듀~ 2018 마을공동체 네트워크파티’에도 참여했던지라, 올해는 장소부터 준비까지 행사 규모가 남다름에 놀랐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회자로 온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정소연 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짧았던 머리가 어느새 길어 머리카락을 질끈 동여맨 모습을 보고 시간이 그만큼 흘렀음을 느꼈습니다.

이야기꽃 핀 덕에 다소 웅성거림에도 자리마다 마자·활 샘들과 같은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분홍의 알록달록 색깔별로 나눠 준 땀땀이 수건을 장착했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각자 이름표를 적어 붙이고, 자리에 놓인 각양각색 나뭇잎 모양의 종이에에는 오른쪽에 아름드리 놓여 있는 ‘마을나무’에 나누고 싶은 소감이나 이야기를 적어 보기도 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며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해는 무려 62개나 되는 마을사업 팀이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 곳곳에서 활약하다 보니 공동체마다 서너 명을 초대해 대략 200여 명의 주민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양천구 한 해의 다양했던 마을활동을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통해 함께 공유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마을 주민들이 꾸려 간 가지각색의 활동을 통해 마을에서 공

동체를 형성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구나 싶었습니다.

이후 이 자리를 열성적으로 준비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님과 직원들, 마을지원활동가, 주민협치과 마을공동체 팀 직원들의 소개와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한 박진갑 센터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마을공동체활동이 지향하는 바를 진심으로 꼭꼭 눌러 강조하고 그간의 활동에 대한 수고로움을 다독겨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연이어 이웃만들기 새내기 마을사업지기인 신월7동 ‘나와 너, 우리의 숲’ 팀의 열정 만땅 김영원 씨와 2년 차 마을사업지기인 내가 함께 준비한 2019년 양천구 마을공동체 성과공유 및 2020년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있었던 ‘1번 모여라! 논골마을 탐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영원 씨와 나는 성과공유회에서 이 역할을 부탁받고,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소통하고 대본도 같이 써 가며 10분의 주어진 시간 내에 1년의 성과와 내년의 계획을 알차게 나눌 공리를 했습니다. 정해진 바가 없이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센터장님의 말에 처음엔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의논 끝에 지난 1년 동안 활동했던 62개 팀의 활동사진과 센터의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월별로 활동사진을 보면서 각자 참여했던 순간과 기억 나는 것을 끄집어 내면서 우리에게도 한 해를 다시금 되짚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2020년 계획과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서 박진갑 센터장님과 2번의 사전미팅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활동을 통해 주민의 주도성을 키우고 주민 자치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다시금 깨닫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 씨와는 오랜 시간 만난 사이도 아닌데, 마을공동체를 지향하고 활동하는 마을사업지기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척척 맞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 글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 봅니다.

무대 왼편에는 높은 천장까지 벽면 가득 큼지막하게 설치된 양천구를 상징하는 귀여운 강아지 모양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 칸에는 62개 마을공동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강아지



모양 지도에는 사진이 빼곡하고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리마다 놓여 있는 각 팀의 활동사진을 들고 나와 강이지 모양의 현수막에 붙이자, '양천 사랑해요~'라는 문구가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마을공동체활동으로 한 해를 채워 갔던 우리의 모습으로 양천구를 가득 채운 모습을 보니 순간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순서는 마을사업 팀에게 수여되는 재기발랄한 시상식이었습니다.
 '무력무력 자랐구나상', '마을로 나온 암탉상', '함께라서 행복했어요상', '마을과 통하였구나상', '양천 핵인싸상', '몽클스토리상', '정산의 여왕상'이라는 각 팀의 특색에 맞게 아낌없는 칭찬이 담긴 상은 62개 모든 마을공동체에게 골고루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상을 받을 때마다 서로 우렁찬 박수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는 모습마저 멋졌습니다. 시상 때 읊어 준 주옥 같은 시상 멘트가 인상적이어서 나중에 물어보니, 센터장님이 손수 쓰신 거라고 합니다. 역시 뻘하지 않은 특별한 성과공유회의 신박함과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마을공동체 골목아고라 '신월 2동 골목밥상' 팀이 한겨레신문사와 SH공사가 주관한 '제2회 행복동지 이야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더니 자랑스러움과 흐뭇함으로 감동이 두 배가 됐습니다.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로 시작해 어느 순간 열정과 지혜, 마을 사람들의 힘이 모이다 보니~ 마을활동도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해의 성과를 나누는 뒤, 마음이 벅찬 상태에서 축하의 무대가 준비됐습니다.
 '마을 주민 누구나'를 그대로 드러내듯이 다양한 연령층의 마을 주민이 준비한 축하의 자리라 더욱 특별했습니다. 신서초 송시현 군의 기타연주, 꽃할매골목합창단의 캐롤 합창, 장한샘 군의 전자바이올린 연주가 차례대로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 믿기 어려운 송시현 군의 신들린 듯한 기타연주에 박수가 절로 나왔으며, 테이블마다 '송시현, 송시현'을 외치며 마치 팬클럽을 방불케 하는 응원과 앵콜 환호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꽃할매골목합창단 어르신들은 가을에 있었던 마을공동체한마당에 이어 산타 복장과 루돌프 코에 핸드벨까지 갖추고는 한 목소리로 흥겹고 사랑이 넘치는 캐롤 합창을 선사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만들기 새내기 마을사업지기이기도 한 신월 실버 스마일 오케스트라단 장한샘 군의



전자바이올린 연주는 디즈니 명곡메들리와 흥겨움의 끝판왕으로 모두를 춤추게 한 '아모르 파티', 떼창을 이끌어 낸 '소양강 처녀'까지, 지금도 생생할 정도로 흥겨웠던 축하공연 무대였습니다.

막바지 순서인 '렛츠 송 투게더~'는 '공부할까 말까송'을 '공동체할까 말까송'으로 개사해, 모두가 공감하는 가사와 함께 즉석에서 마을공동체 팀 안현희 팀장님의 안무지도하에 율동과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을 위해 개사와 안무를 직접 구상하고 연습한 정성이 느껴져서 어설피나마 열심히 따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아름다리 양천 마을나무에 걸린 마을 주민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독성 있는 노랫말처럼 '공동체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공모부터 공동체 활동, 그리고 마무리 정신까지 앞이 깜깜했던 순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며, 이렇게 마을 곳곳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가에 대한 본질을 다시금 고민해 보면서 내내에도 '해야지!' 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해피 투게더~'였습니다~!!



마을 느티나무들의 몽클 릴레이



1. 마을사업지기
2. 마을지원활동가
3. 마을기록지원단
4. 주민협치과 마을공동체팀
5.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1. 마을사업지기



김창숙

차표를 살 때의 마음으로 여행을 끝까지 마칠 수 있다면, 어느덧 한 해가 지나고 마을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 사명감에 들떴던 시간, 원래의 사업계획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마음 졸였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일이란 게 어찌 좋은 추억만 있었겠나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두 아름답게 기억되고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분들, 같이 활동했던 회원 분들 모두 정말 감사 드립니다. 모두모두 수고하셨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마을사업을 시작했지만 가끔은 마을 일에 밀려 가정이 뒷전으로 내팽개쳐지는 경우도 있었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 한 해가 또 밝아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테지만 작은 두려움이 한켠에 자리잡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하지만 또 한 번 차표를 사서 떠나 보려고 해요. 차표를 살 때의 마음으로 여행을 끝까지 마치며 그 여정을 즐겨 보려 합니다.



김호순

마: 마을에 당신만의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을: 얼마나 있지요?
공: 공간도 많이 있습니까?
동: 동동거리며 모일 공간 찾지는 않았나요?
체: 체엿~ 공간이 없으면 못 모이나요? 우리가 모이면 그곳이 마을의 공간이 됩니다^^

4명의 소수정예였던 新사업당(산월2동, 신정3동의 엄마들의 모임)은 올해 10명의 정예 멤버로 꾸려져 '너와 나의 연결고리, 마을에 있다?' 잇다라는 사업명으로 우리마을지원사업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성장했습니다. 맘맘 소통데이라는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기다려지는 날을 보내며, 만나면 소소한 일상의 문제나 자녀 육아, 교육문제부터 크게는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혼자라면 시작하지 않았을 일, 아니 못 했을 일인 다독多讀책놀이터를 준비하고 매달 동네 아이들을 놀면서 만났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끈끈해지며 일상의 행복을 나눌 거리를 찾고 함께 해 나가면서 공동체의 힘을 느끼게 됐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신정3동 꽃사슴어린이공원에는 유모차부대와 함께 꼬물거리는 아이들이 쑥쑥 등장했습니다. 우리네 아이는 이만큼 커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힘들었던 첫 독박육아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매시간 참으로 소중하고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미 키가 훌쩍 자란 형님들은 놀이의 주인이 되어 즐길 줄 알고, 동네 어르신들은 익숙해진 듯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고, 왕년의 놀이 선수로 제기차기나 공기놀이의 진수를 보여 줬습니다. 올 한 해도 마을 주민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언제나 유희공간을 선뜻 개방해 준 신월종합사회복지관과 늘 그 자리에서 계절이 흘러감에 멋진 풍경을 선물해 준 신정3동 꽃사슴어린이공원은 열려 있는 마을 공간이 됐습니다. 각박해진 도심의 가정마다 꼭꼭 닫힌 문을 조금이나마 열고 나와 마을 사람마다 연결고리를 지어 갔던 행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박정연

'더불어 함께'라면 이루지 못할 게 없을 듯 싶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시작부터 마무리 짓기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었으니 말입니다. 펼치고 나누는 만큼 기쁨이 배가 됐으니 참으로 보람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정해져 있는 자금 안에서 미흡한 것만 같았던 처음과 달리 회를 거듭할수록 나비와 천사의 날갯짓처럼 인향만리였으니 제안자들과 참여해 준 이웃님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웃과 통했구나'. 우리 '도지나' 팀이 받은 상의 이름입니다. 어쩐 우리 팀과 딱 맞는지, 수상식에서 자랑하듯 상패를 들어 큰 소리로 "네. 우리 도지나 팀 마을과 통했습니다."라고 외칠만 했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하우도 쌓았으니 좀 더 야무지게 해내지 않을까 최면을 걸어 봅니다. 함께해 준 제안자들과 이끌어 준 마을활동가들, 무엇보다 참여해 준 이웃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하며 언제 어디에 머물든 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박지주

양천구의 공동체활동은 신이 납니다. 마음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더 함께하고 싶어지게 합니다. 거친 손, 작은 손, 가녀린 손, 아픈 손, 마을의 다양한 손들이 하나둘 모여 서로의 온기를 전해 주고 마음도 전해 줍니다. 각박해지는 물질사회에서 공동체활동은 사람의 연대 가치가 의미를 가지게 하고, 참으로 사람다워지는 활동이 됩니다. 양천구의 마을공동체활동은 그래서 특별합니다. 마을 안에서 제대로 사람다워지는 행복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백영은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됐습니다. 맛난 세상이 섬겼던 4달 남짓한 시간들, 그리고 몇 번의 추가 섬김의 시간을 가지며 할머니들과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할머니들이 넓은 경로당에서 쫓겨나서,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아파트 사정으로 경로당이 문을 닫으면서 뒷방 할머니처럼 좁은 방으로 옮겼을 때 서로 서러워하며 원인 제공을 한 과거의 어느 아파트 회장을 끊임없이 욕하며-물론 이 문제가 결국 해결된 건 없고 아쉬움이 남겨진 채로 남아 있지만-미워하던 할머니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또 다른 아파트 주인이 있네."라고 고마워하며 스스로도 간식을 나누며 서로 화기애애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못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며 섬기는 누구누구 덕분에 하며 감사하는 모습에 우리도 나눔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하며 감사했습니다.

서명석

요즘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무 뜨개옷을 잘 봤다고 칭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줘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나도 우리 모임 사람들도 놀이터를 지나갈 때마다 뿌듯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나무들에게 옷을 입혀 주자고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면서 즐거움과 보람도 얻고, 무엇보다 같이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같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현진

올해는 정말 풍성한 한 해였습니다. 사람과 공간, 그 안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행복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마음을 나누는 가치 속에서 뿔어지고 뿔어 나가는 경험을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확장됐기에 공동체공간에 감사합니다.

마을 속에서 아이들은 놀다가 물 마시러 오기도 하고, 시장 가는 엄마들이 짐을 잠깐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생활 질이 높아지고, 만나고 나누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올해 공동체공간을 운영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 마을에 사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나로서, 나답게 살아가는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고 내일을 설레게 되었습니다. 능동적인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된 것이 사람과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 준다는 것을 오늘도 공간에서 오늘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 웃음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사는 이 마을에서 더!! 설레어 볼까요? 거기서 만나용!!

이현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준 공동체활동을 되돌아봅니다.

2019년 봄, 나는 관계에서 기인한 소소한 오해들에 상처받고, 많은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꼈고, 소중한 분을 떠나 보낸 슬픔에 잠겨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틀에 갇혀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딱히 방법을 알지 못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해 내가 가진 것들을 놓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나올까라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연히 마을공동체활동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내가 가진 소소한 재능과 자원 그리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이웃들 기사를 시작으로 공동체활동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이웃과의 관계개선, 친분쌓기, 이웃살핌 정도의 개념만 갖고 시작했으나, 소극적인 활동을 접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사업팀과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견학 겸 나들이 겸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더욱 확장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해

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마을공동체활동'이라는 방법을 통해 현실로 구현해 나가는 이들을 통해 바라본 나의 이웃은 다양성을 갖고, 존재 자체로 소중하며, 타인을 인정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그물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나 또한 그들에게는 그런 소중한 이웃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감정, 생각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임을 알게 되었고, 다른 이들도 경험하는 삶의 한 형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저마다의 방식을 갖고 서로를 살피주고 마음속 이야기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된 것이 1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얻게 된 가장 값진 수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0년 봄을 기다리는 나는 타인과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 줄 수 있는지 알고, 나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 성장했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마음이 돌아나 자라서 생기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기에, 앞으로 활동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과 관계를 키우고, 함께 공감과 웃음,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감에 조금은 설레고 있습니다.

장숙영

2019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하반기 공모사업 신월5동 초화 마을 만드는 시니어의 사업 제안 후 선정, 시행,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 참여구성원, 주민의 폭넓은 참여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편 구청 전담부서, 센터, 활동가, 사업 실무자가 어떻게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하는지 전 과정을 충분히 익히고 다른 마을사업의 추진 과정도 배우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함께할 수 있었음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정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공모전에 대상의 영예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도화지에 많은 기억과 추억들을 그려 낸 함께 하는 우리 골목의 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골목 주민들을 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양천마을공동체 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의 수많은 스토리 속에 2019년도 무사히 끝낼 수 있었기에 다가오는 2020년도 씩씩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양천마을공동체의 행보에 사업지기들의 진심이 더해져 더욱 살기 좋은 양천으로 이어지리라 굳게 믿으며 앞으로의 모든 일들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담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 드려요~♡♡♡



최혜임

올해 마을공동체활동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 가는 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공터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놀게 만들고 변화를 준 우리 팀의 활동뿐 아니라 모든 팀들의 활동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세상이 아직은 자기만을 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마을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 마을공동체활동을 함께 하자고 권했고, 내년에는 더욱 많은 분들과 이 희망을 함께 보고 감동과 행복을 함께 느낄 것입니다. 마을공동체활동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분들과 마을지원활동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파이팅!!



한재분

2019년 마을공동체활동을 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참여자들의 열정, 마을공동체 참여자간의 교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다양한 자원과 네트워크 결성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엄청난 성장과 발전이 있었음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제 개인적으로도 마을공동체활동과 지원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그램과 지원 부탁 드리며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과 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황계진

마을공동체는 내게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처음 마을공동체를 접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안으로는 마을공동체로 인해 모임이 형성이 되어 팀원들과 만날 때마다 공연이 만들어지는 것이 즐거웠고,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또 다른 모임인 사업지기들과의 만남이 있어 나오는 다른 모임이지만 마을공동체라는 같은 곳을 향해 한 방향으로 가는 그들과의 만남이 낯설지 않음이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 하며 모임에 참석은 다 못 했지만 한 번씩 만나면 성숙해져 가는 사업지기들, 나와 너가 아닌 우리가 되어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주고, 박수를 보내 주고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며 다음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 '최고'입니다.

2. 마을지원활동가



김정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 회의, 워크숍, 네트워토평티, 여러 가지 축제, 성과공유회...

1년이라는 기간이 가슴 뛰는 수많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을이라는 큰 숲에서 한 그루의 나무로 새롭게 태어난 한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울고 웃으며 함께했던 시간들이 소중한 보람 있어 행복했습니다.



박동매

안녕하세요~2019년 1년 차 마을지원활동가 박동매입니다.

1년 동안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함께, 양천구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한 그루의 나무와도 같습니다. 나무는 오랜 시간을 자라면 줄기가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해마다 새싹이 나올 것이고, 작년에 나왔던 잎도 풍성합니다. 그리고 꽃과 같은 마을 주민들도 있고, 그 꽃이 피었던 자리는 열매도 맺습니다. 마을은 아름답고, 무성하고, 향기가 나는 나무입니다. 잎도 꽃도 열매도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본인의 능력과 역할을 발휘해 아름답고 따뜻하고, 활기찬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 양천구, 누구든지 오면 정이 드는 그런 마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양혜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마을 안에서 머물게 하려 했던 나의 바람이 아주 작게나마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2019년과 헤어지려 합니다.



여수진

마을공동체와 함께 바쁜 2019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마을지원활동가 4년 차를 보내며 나름 많은 성장과 고민을 하게 된 1년이었는데, 늘 결론은 사람이고 만남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관계에서 회복이 되고 행복이 남는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만남~~거부할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은경

관계의 회복이 행복을 줍니다. 마을사업만 3년을 하면서 느꼈던 행복보다 올해 마을지원활동가로 여러 사업지기와 소통으로 더 커진 행복감을 느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에도 어디서 어떻게 만나더라도 환한 웃음으로 서로 환대할 수 있는 인연으로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성숙

마을활동은 마을사람들과 함께 소통하여 가치를 공유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즐거움도 행복도 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서로가 밀어 주고 이끌어 주며, 사람을 잇고 마을을 만드는 양천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마을에 애정을 듬뿍 담은 즐거운 마을살이를 응원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3. 마을기록지원단



이경미

양천구 마을기록지원단으로 활동했던 기간은 오랫동안 살아왔던 양천구 안에서, 땀 흘려 공동체를 일구어 가는 새로운 이웃들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닳고 싶은 어르신들과 나와 다른 세대로부터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양천구 마을공동체가 더욱 많은 이웃들이 함께하는 풍성한 삶의 자리로 자리나기를 바랍니다.



차은경

웃음이 많았습니다.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지난 5개월간 마을기록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봤던 양천의 마을지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마을지기들, 주위에 먼저 손 내밀어 함께하려는 마을지기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는 마을지기들의 모습은 놀라움과 감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에 참여하고 기록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마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마을지공동체원센터까지 모두 애쓰셨고 멋졌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채형원

♡ 나도 마을에서 뭔가 같이 하는 일이 생기겠구나!!!
 지금까지 회사 일만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같이 웃고 즐기며 생활을 해야겠다.
 아무 생각없이...
 그러나
 세상은 어느 곳에서나 함께 살아가야 하는 법.
 집이나 회사나,
 마을이나 나라나,
 각자의 가는 길은 다를지라도
 올바른고 곧은 길은 아닐지라도
 살아간다는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고 있으니
 무슨 일을 하거나,
 어디에 있거나,
 함께 가지 않으면 곧 삶이 죽은 것
 내년에는
 모두모두 한 맘이라도 더 보태어
 마을이라는 수레에서 행복해지자고요.

4. 주민협치과 마을공동체팀

팀장
안현희

너와 내가 만나니 마을이 되고, 골목이 되고, 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관계를 만들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일을 나누니, 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함께 그리는 양천 이야기'는 우리가 꿈꾸는 행복을 함께 찾아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 수채화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주무관
박정숙

올해는 민관이 함께 이루어 낸 성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과공유회, 우수사례지 탐방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향상되고 마을공동체를 넘어 주민자치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탄탄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내년에도 주민 중심의 양천구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주무관
조은

2019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마을공동체한마당이었습니다. 마을사업지기 주도로 이렇게 멋진 축제를 완성했다는 점에 크게 놀랐으며, 양천구 마을공동체가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마을공동체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무관
황옥주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던 '공동체'라는 의미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마을사업지기들과 소통을 하며 자연스럽게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와 비슷하든 비슷하지 않든 누구와도 친구와 이웃이 될 수 있는 열린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마을공동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박진갑

양천의 골목골목마다 펼쳐지는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들과 그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는 수많은 마을사업지기님들 덕분에 2019년 한 해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무리처럼 반짝반짝 빛날 수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마을을 위해 기꺼이 품과 열의를 내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마을공동체활동을 통해서 양천의 매일매일이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쭉~욱 함께 해 주실 거죠?

팀장
양영숙

'마을을 만드는 일은 일상의 소소한 실천에서 시작하지만 하나하나의 실천들이 모이면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2019년 마을 현장에서 만난 이웃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작지만 행복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골목골목 그려진 작은 그림 조각들이 모여 '함께라서 행복한' 양천마을 이야기가 완성됐습니다. 양천마을 이야기 속 주인공인 우리 모두에게 칭찬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김지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의 만남과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만남을 통해 맺어지는 여러 꽃봉오리들이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꽃봉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마을꽃을 피우는 마을 주민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2019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2020년도 쭉~욱 꽃봉오리를 맺어 피울 수 있게 응원합니다.

최영경

2019년 양천은 곳곳에서 사랑과 정감이 넘치고 때론 떠들썩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민이 만들어 가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했던 한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공동체'의 힘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천마을 주민 누구나가 도심의 마을공동체 안에 사는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9 양천구 마을공동체 사례집
함께 그리는 양천 이야기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처 양천구 주민협치과,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 화 02-2643-1557
디자인 글자와 기록사이
제 작 제이케이프린팅

홈페이지
www.yangcheonmaeul.org